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 ▶ 책임연구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교수)
윤혜순(숭실사이버대학교·교수)
- ▶ 연구보조원 : 백유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조원)

2011년에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도입된 창의적 체험활동은 2013년에는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아직까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학교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사례들이 하나 둘 씩 만들어져가고 있어 희망적입니다. 2011년 본 연구로부터 제안되어 두 개 지역에서 시작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개발 시범사업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정착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2013년에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본 연구는 단기적으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운영모델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사회 학교가 될 수 있는 실천적인 방법을 찾고, 실제로 그런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학교와 청소년기관과 사회의 유기적 연계가 실현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는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고, 청소년기관들은 지역사회 연계를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학교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마을을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체험활동이 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좋은 사례가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이 연구의 성과가 다른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연계 사업도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2012년 12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이 재 연 드림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위원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내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 시범사업운영 및 평가, 설문조사, 국내외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자문회의, 정책협의회, 세미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였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청소년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가 동기형성 및 몰입과 같은 청소년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기대감도 크며,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위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체험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을 제고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 결과,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의지와 교사의 열의가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유연한 조직 운영 등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험활동 효과에 대한 교사, 학부모, 학생의 기대감과 확신의 형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소년기관은 학교를 비롯한 지역사회로부터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기관이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네트워크로서 역할을 전환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네 가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을 도출하였다. 운영주체의 주도성에 따라 학교 중심모형과 지역중심모형, 청소년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성인 주도형과 청소년 주도형으로 구분하여 학교중심-성인주도형, 학교중심-청소년주도형, 지역중심-성인주도형, 지역중심-청소년주도형의 네 가지 모형을 도출하였다. 가장 바람직한 모형은 지역중심-청소년주도형 모형으로, 이러한 모형의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정책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및 여성가족부 간의 유기적 협력,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사 및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책마련, 예산확보, 농어촌지역 지역 네트워크 지원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창의적 체험활동, 청소년 체험활동, 동기, 몰입, 지역사회연계, 코디네이팅,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고, 개발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2. 연구방법

- (문헌분석) 청소년 체험활동이 동기형성 또는 몰입경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창의성 및 인성교육의 효과를 가져오는지, 이를 위해 학교 및 지역사회의 연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피기 위하여 관련된 문헌들을 분석함.
- (설문조사) 2011년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모형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기관(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담당교사와 전국의 초·중·고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모형 개발」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기관(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② 전국의 초·중·고생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사례조사) 국내외 지역사례, 청소년기관사례, 학교사례를 조사하였음.
 - 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모형 개발」사업에 참여한 44개 청소년기관(코디네이터 기관)과 기타 청소년기관,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우수학교사례를 조사하였음.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사례를 조사하였음.
 - ③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종합적인 학습시간」과 진로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지역 및 학교사례를 조사하였음.

3. 주요결과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동기형성이나 자존감,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가져옴. 따라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음.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체험활동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중간목표로 동기의 형성이나 자아존중감, 몰입과 같은 측면이 강조될 필요가 있음.
- 몰입은 ‘힘겨운 과제가 높은 수준의 실력과 결합할 때’ 발생하는데, 체험활동을 통해서도 몰입경험의 빈도가 높아질 수 있음. 특히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동아리활동과 같이 특정의 과제나 주제와 관련된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경험할 때 몰입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짐. 이 같은 몰입은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등 주변의 환경,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지역사회연계 정도도 몰입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가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지역사회 활동에 청소년들이 얼마나 참여하는지, 즉 참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체험활동의 객체가 되기보다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때, 체험활동의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참여와 지역사회 활성화는 상보적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도 함.

2) 설문조사결과

- 시범사업 참여 코디네이터기관 및 시범학교 설문조사 결과
 - 코디네이터기관과 시범학교 담당자 모두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여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코디네이터기관의 경우, 시범사업이 실무자에게 다른 사업보다 더 힘들다는 의견이 63.8%로 조사되었고, 시범학교의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30%를 상회하였음.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부담이 된다는 응답 비중이 48%로 높게 나타났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모형에 대해 깊은 기대감을 드러냈음. 시범학교 담당 교사의 90% 이상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 전국 초·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대상 조사 결과

- 창의적 체험활동을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재량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78.2%에 달해, 최근 들어 체험활동을 둘러싼 정책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한편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주는 체험활동 전문 기관이나 인력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수요는 무척 큰 것으로 파악되었음. 체험활동 전문기관이 체험활동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2.7%,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해주는 인력이나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6.5%로 파악되었음.
-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9.2%로 가장 많았고, 업무부담 경감이 24.8%,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22.1%로 그 뒤를 이었음.

○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조사 결과

- 다수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학교급 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음.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지수를 산출한 결과 75점 만점에 초등학생 56.47점, 중학생 48.77점, 일반계고등학생 47.15점, 특성화고등학생 45.19점으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다층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여타 변인들을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설문조사결과의 시사점

- 일선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갖는 부담을 경감시켜 줄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또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이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느끼는 부담이나 어려움은 증가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이 현장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체험활동 경험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나 몰입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발달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체험활동과 진로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음.

3) 사례조사결과

○ 학교와의 네트워크 사례

-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등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국내외 사례를 보면, 우선 교장의 의지와 교사의 열정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밖에도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노력과 합리적인 체험활동 운영기법,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

- 지역사회기관(특히, 청소년기관)은 그간에 프로그램 제공자 중심의 역할을 해왔지만, 점차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는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로 전환해 가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역할전환을 통해서 지역에서의 존재감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됨.

○ 청소년 주도형 지역사회 참여 사례

-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국내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청소년 체험활동 중에서 교육적 효과가 크며, 동시에 교사 및 청소년지도자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큼.

4. 정책제언

- 16개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있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의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여야 함.
-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사업」에서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전달체계가 제기능을 회복하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및 보수교육에 반영하여야 함.
-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대한 정부와 기관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며,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 참여를 지도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사의 역량강화가 필요함.
-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관련 예산의 확보는 반드시 중앙부처의 예산에 의해서만 확보되는 것이 아님.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감과 존재감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재원확보가 가능하며, 여성가족부는 청소년기관이 사업중심이 아닌 네트워크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농어촌의 경우에는 차량이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으므로 향후 농어촌 지역의 체험활동은 이동수단의 확보를 위한 방안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체험활동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계된 체험활동, 예를 들어, ‘트라이앵글 모형의 체험활동’ 이나 교과연계형 체험활동, 진로활동과 연계된 활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모든 체험활동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를 강화해야 함.
-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체험활동 참여가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며,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체험활동이 가져다 주는 효과에 대해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체험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해갈 필요가 있음.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6
II.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의 이론적 배경	11
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의 개요	13
2. 체험활동의 효과 : 무동기 상황에서 몰입경험까지	15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 : 사회적 자본에서 청소년 주도적 지역사회 참여까지 ...	22
III.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 조사결과	29
1. 조사의 개요	31
2. 조사결과	
1) 시범사업 운영실태 조사	39
2) 일반 학교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 및 인식 조사	70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30
IV. 지역사회연계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조사결과	137
1. 사례조사의 개요	139
2. 지역사회연계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사례 조사결과	
1) 시범사업의 운영평가	142
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151
V.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모형	175
1. 모형개발의 절차	177
2. 모형의 분석	178

1) 학교중심-성인주도 모형	181
2) 학교중심-청소년주도 모형	181
3) 지역사회기관중심-성인주도 모형	182
4) 지역사회기관중심-청소년주도 모형	182
3.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의 제시	183
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 모형	185
 VI. 정책제언	 187
 참고문헌	 197
 부록(설문지)	 205

표 목차

〈표 Ⅲ-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33
〈표 Ⅲ-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34
〈표 Ⅲ-3〉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 학교 수 및 학생 수	36
〈표 Ⅲ-4〉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 현황 (학생)	36
〈표 Ⅲ-5〉 조사대상 코디네이터 시범기관 현황	37
〈표 Ⅲ-6〉 조사대상 시범학교 현황	38
〈표 Ⅲ-7〉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량 및 노력에 대한 담당자 평가	48
〈표 Ⅲ-8〉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자 평가	50
〈표 Ⅲ-9〉 시범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담당자 평가	51
〈표 Ⅲ-10〉 체험활동에 대한 시범학교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수준	52
〈표 Ⅲ-11〉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식	53
〈표 Ⅲ-12〉 체험활동 관련 연간 공동계획 수립 여부 및 향후계획	55
〈표 Ⅲ-13〉 시범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연계·협력 기관 수	61
〈표 Ⅲ-14〉 시범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연계·협력 강도(가중치 고려)	62
〈표 Ⅲ-15〉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시범학교 교사)	64
〈표 Ⅲ-16〉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시범학교 교사)	66
〈표 Ⅲ-17〉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만족도(시범학교 교사)	66
〈표 Ⅲ-18〉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시범학교 교사)	67
〈표 Ⅲ-19〉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도(일반학교)	71
〈표 Ⅲ-20〉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외부의 도움 수혜 여부(일반학교)	72
〈표 Ⅲ-21〉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일반학교)	73
〈표 Ⅲ-22〉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일반학교)	73

〈표 Ⅲ-23〉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하게 운영(일반학교)	74
〈표 Ⅲ-24〉 창의체험자원지도의 유용성(일반학교)	75
〈표 Ⅲ-25〉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학교급별 연계·협력 기관 수	77
〈표 Ⅲ-26〉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학교급별·지역별 연계·협력 기관 수(일반학교)	78
〈표 Ⅲ-27〉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학교급별 연계·협력 강도 (단계별 가중치 부여) (일반학교)	78
〈표 Ⅲ-28〉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학교급별·지역별 연계·협력 강도(단계별 가중치 부여) (일반학교)	79
〈표 Ⅲ-29〉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과 외부자원 연계수준 간의 상관관계(일반학교)	80
〈표 Ⅲ-30〉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학생지도 및 교육에 활력소로 작용(일반학교)	81
〈표 Ⅲ-31〉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일반학교)	82
〈표 Ⅲ-32〉 주5일제 전면도입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부담 여부(일반학교)	83
〈표 Ⅲ-33〉 지역사회자원 연계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기대(일반학교)	84
〈표 Ⅲ-34〉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역사회자원 연계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일반학교)	85
〈표 Ⅲ-35〉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일반학교)	86
〈표 Ⅲ-36〉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88
〈표 Ⅲ-37〉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89
〈표 Ⅲ-38〉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다	90

〈표 Ⅲ-39〉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91
〈표 Ⅲ-40〉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92
〈표 Ⅲ-41〉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93
〈표 Ⅲ-42〉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94
〈표 Ⅲ-43〉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95
〈표 Ⅲ-44〉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96
〈표 Ⅲ-45〉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97
〈표 Ⅲ-46〉 다시 해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98
〈표 Ⅲ-47〉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99
〈표 Ⅲ-48〉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100
〈표 Ⅲ-49〉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101
〈표 Ⅲ-50〉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102
〈표 Ⅲ-51〉 학교급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03
〈표 Ⅲ-52〉 학교급별·지역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04
〈표 Ⅲ-53〉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108
〈표 Ⅲ-54〉 투입변인의 기술통계치	108
〈표 Ⅲ-55〉 분석모형의 구성	110
〈표 Ⅲ-56〉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	112
〈표 Ⅲ-57〉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114
〈표 Ⅲ-58〉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115
〈표 Ⅲ-59〉 체험활동이 몰입수준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	117
〈표 Ⅲ-60〉 체험활동이 몰입수준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118
〈표 Ⅲ-61〉 체험활동이 몰입수준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119
〈표 Ⅲ-62〉 체험활동이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	122
〈표 Ⅲ-63〉 체험활동이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123

〈표Ⅲ-64〉 체험활동이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124
〈표Ⅲ-65〉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등학생)	126
〈표Ⅲ-66〉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학생)	128
〈표Ⅲ-67〉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등학생)	129
〈표Ⅳ-1〉 사례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141
〈표Ⅳ-2〉 2012년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반별 시간표	156
〈표Ⅳ-3〉 2012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영역	159
〈표Ⅳ-4〉 청담중학교의 지역사회자원 활용현황(2012년)	165
〈표Ⅳ-5〉 체험자원 선정과정 및 체험자원의 특징(예시)	166
〈부록 표-1〉 응답자 분포표	247
〈부록 표-2〉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248
〈부록 표-3〉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249
〈부록 표-4〉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250
〈부록 표-5〉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4)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251
〈부록 표-6〉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5)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252
〈부록 표-7〉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6)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253
〈부록 표-8〉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7)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254

〈부록 표-9〉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8)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255
〈부록 표-10〉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9)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256
〈부록 표-11〉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평균 및 표준편차)	257
〈부록 표-12〉 내적동기(평균 및 표준편차)	258
〈부록 표-13〉 외적동기(평균 및 표준편차)	259
〈부록 표-14〉 무동기(평균 및 표준편차)	260
〈부록 표-15〉 자아존중감(평균 및 표준편차)	261
〈부록 표-15〉 몰입(평균 및 표준편차)	262

그림 목차

【그림 I -1】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7
【그림 I -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2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8
【그림 II -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운영을 위한 장기적 모형	14
【그림 II -2】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달성 경로	16
【그림 II -3】 PISA결과 7개국 비교	17
【그림 II -4】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달성 경로(무동기-동기)	19
【그림 II -5】 과제와 실력의 함수 관계에 따른 경험의 질	20
【그림 II -6】 체험활동 경험을 통한 무동기에서 몰입까지의 경로	22
【그림 II -7】 하트의 참여의 사다리	24
【그림 II -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스펙트럼	25
【그림 II -9】 지역사회와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의 상호작용	26
【그림 III -1】 코디기관과 시범학교 간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	40
【그림 III -2】 코디기관과 시범학교 간 연구모임 운영실태	41
【그림 III -3】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협의회 운영실태	42
【그림 III -4】 코디네이터 기관 내 시범사업 전담팀 구성원 수	43
【그림 III -5】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비중	44
【그림 III -6】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상호교류 대상으로 선택한 비율	45
【그림 III -7】 코디네이터 기관이 상호교류하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기관의 수	46
【그림 III -8】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 자원과의 상호교류 수준 (단계별 가중치 부여)	47
【그림 III -9】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연계·협력 관계 구축 시기	54
【그림 III -10】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	55
【그림 III -11】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업무협의회 만족도	56

【그림Ⅲ-12】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연구모임 운영 실태	57
【그림Ⅲ-13】 시범학교-코디네이터 기관 간 협조 수준	58
【그림Ⅲ-14】 기관별 상호교류 실태(시범학교)	60
【그림Ⅲ-15】 창의체험자원지도의 유용성(시범학교 교사)	65
【그림Ⅲ-16】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시 학교의 역할(시범학교 교사)	68
【그림Ⅲ-17】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의 필요 요인(시범학교 교사)	69
【그림Ⅲ-18】 기관별 상호교류 실태(일반학교)	76
【그림Ⅲ-19】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일반학교)	86
【그림Ⅲ-20】 학교급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	103
【그림Ⅳ-1】 스와다이중학교의 통합교육 목표설정	159
【그림Ⅳ-2】 조에츠시의 코디네이터와 수퍼바이저 운영체계	172
【그림Ⅴ-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의 개발절차	178
【그림Ⅴ-2】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정도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179
【그림Ⅴ-3】 청소년의 참여정도에 따른 체험활동 모형	179
【그림Ⅴ-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매트릭스	180
【그림Ⅴ-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	184
【그림Ⅴ-6】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 모형	185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제 I 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교과지식 위주의 학습활동에만 매몰되다보니 창의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인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폭력, 집단따돌림, 자살과 같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나마 교과지식, 그것도 수험에 필요한 지극히 편중된 교과서적 지식에 치중한 교육과 광적인 사교육에 힘입어 국제학업성취도조사에서 최상위수준의 성적을 올리고 있지만, 위안이 될지 몰라도 교과에 대한 동기, 흥미,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점수는 최하위수준이라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미래사회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정책을 쏟아내도 ‘정책피로’ 현상이 현장을 압도하고 있다. ‘피로사회’ (한병철, 2012)의 전형적인 증후군이라 할만하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 중의 하나인 창의적 체험활동은 이러한 문제의 해소책으로 도입된, 형식적으로는 더할 나위없이 좋은 정책이다. 그렇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은 형식적 운영 등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갖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교육과학기술부, 2010. 1; 이미숙·민용성·조성기·조덕주·이낙중·김현철, 2007, pp.106-136)를 넘어설 수 있을까?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주 3시간 이상, 고등학교에서 주 4시간 이상 운영되고, 체험활동의 내용이 에듀팟(edupot)에 포트폴리오로 기록·관리된 후, 입학사정관제의 전형자료로 활용되니 이전보다 충실하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학교의 여건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 직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의식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e Resources Map)를 제작하여 크레존에 탑재하였고, 교육재능기부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자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다지 실효성이 높지는 않다. 아무리

1) 1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재능이 기부되고 창의체험자원지도를 제공해도 그 자원들이 학교에서 곧바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2012년도 현재 전국에 89개소),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변화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고 있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를 통해서 좋은 사례들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설문조사 결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결과는 여전히 많은 학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케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 역시 학교현장에서의 ‘정책피로’ 현상을 피해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의 교사들에게는 창의적 체험활동도 결국은 ‘업무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모든 학교급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이상 엄청나게 불어난 ‘업무부담’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교육기부를 잘 활용한 학교사례나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잘 활용한 학교사례를 보더라도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데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며, 결국 교사에게 업무부담을 안겨 주게 된다(참고: 김응춘, 2011; 박경희, 2011; 김현철·최창욱·민정석, 2010). 언제나 그렇듯이 더 발 빠르게 대응하는 쪽은 사교육시장이다. 사교육시장의 움직임도 어떤 양상과 규모로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는 않지만, 창의적 체험활동, 입학사정관제는 분명 ‘스펙관리’라는 사교육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탄생시키고 있다. 학교로서는 ‘업무부담’이 되고, 사교육시장으로서는 ‘수익모델’이 되고 있는 셈이어서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얼마나 기여할게 될지 알 수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과 2012년 2개년 간의 연구를 통해 학교 밖의 전문인력들과 전문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에 2011년 1차년도에는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에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청소년기관(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모형의 시범사업을 서울 및 수원지역 두 곳에서 운영하였다. 코디네이터 기관이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형식의 시범사업이었다. 2012년에는 시범사업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라는 이름으로 16개 시도 44개 코디네이터기관 100개 시범학교로 확대·운영되었다.

2년간의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지만, 문제점들도 드러났다. 많은 청소년기관이 아직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익숙하지 않지만, 코디네이터 역할의 중요성은 인식하게 되었다. 시범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참여기관이 많아지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드러났다. 그렇지만 지역적 특성과 기관의 특성을 살린 모범적 사례도 발굴되었다. 많은 청소년기관이 여전히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익숙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다른 사업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물론 이것만으로 시범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는 없다. 몇몇 기관은 목적인 바대로 방향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어떤 기관들은 적어도 사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평가는 유보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운영을 통해서 보다 진보한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2012년 시범사업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 시범사업」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시범사업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지 단순히 창의적 체험활동만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시범사업의 초점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지역사회연계’로 옮겨진 것이다. 이것은 그만큼 시범사업이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연구에서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연계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좋을지 가설적인 수준에서 장기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연계가 제대로 구축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가 장기적으로는 커뮤니티 스쿨과 같이 변화되길 기대하였다. 외국사례는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데 매우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김현철·이기봉, 2011; 이기봉·김현철·송민경·윤혜순, 2011; Jeffers, 2002, 2007, 2010, 2011;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 2008).

결국 찾고자하는 궁극적인 모형은 단순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모형이다. 변화의 속도는 더디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당장은 소수의 학교와 청소년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만이 변화를 선택하겠지만, 좋은 사례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사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사례 등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선된 지역사회연계모형을 개발하였으며, 끝으로 개발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본 연구에서는 다른 문헌들은 2011년 연구에서 가설적으로 제시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모형의 타당성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이론적 논거들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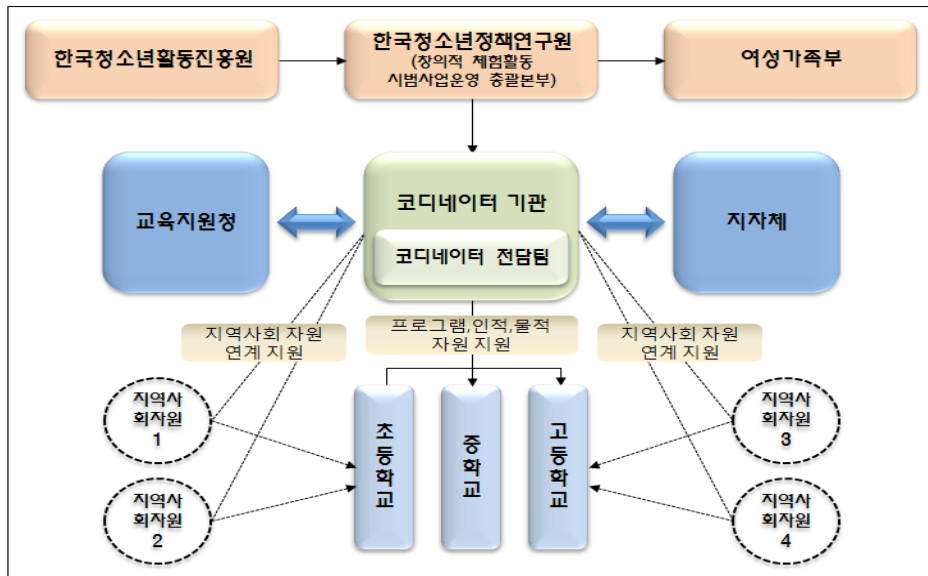
첫째, 2011년 연구에 이어 청소년체험활동과 동기형성 또는 ‘몰입(Flow)’ ,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거들을 고찰하였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 간의 관계, 그리고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참여가 가져다주는 효과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2011년 1차년도 연구로부터 개발된 장기적 발전모형(그림 II-1)에서 초기모형에 해당하는 모형(그림 I-1)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2011년도에 운영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 자원연계 시범사업」에서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와의 MOU 체결, 시범학교 지정,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기관 지정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전국단위의 청소년관련기관이나 민간 등 두 시범사업 지역 이외의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거나 두 시범사업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였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시범사업을 총괄하면서 두 지역의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였다.

해당 지역의 청소년수련관을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지정하여 시범학교로 지정된 초·중고 각 1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코디네이터 기관은 시범학교에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자체, 지역교육청은 물론 각종 공공 및 민간의 자원을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림 I -1】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1차년도(2011년)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평가결과(이기봉 외, 2011)를 반영하여 2차년도(2012년) 시범사업인 「청소년 체협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운영 모형을 [그림 I-2]와 같이 수정하였다. 1차년도 시범사업모형과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의 총괄본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바뀌었다.

둘째, 코디네이터 기관을 컨설팅하는 컨설팅단을 두었다. 컨설팅단은 중앙위원과 지방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지방위원으로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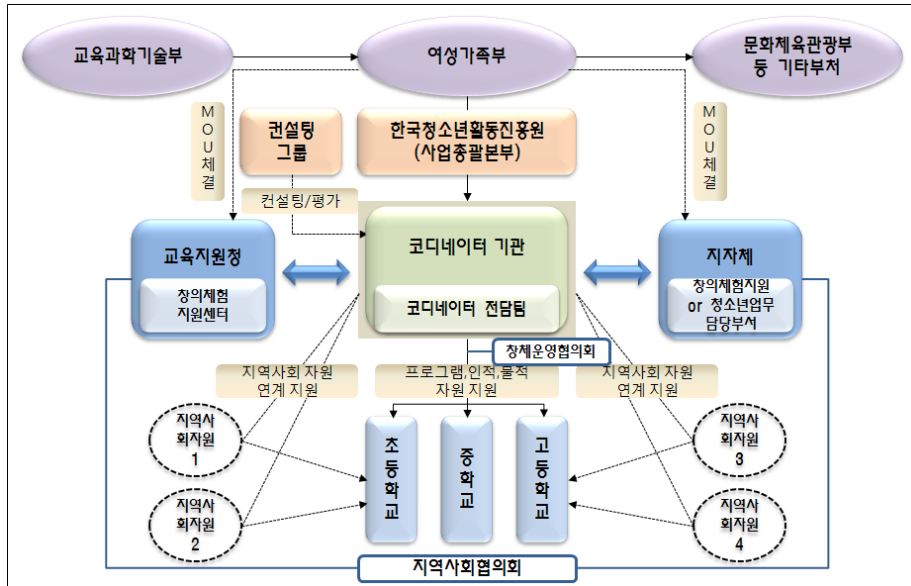
셋째,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과의 연계를 더욱 강조했고, 지자체의 창의체험지원 부서 및 교육(지원)청의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고려하였다.

넷째,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교과부와 여가부 그리고 기타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코디네이터 기관에 코디네이터 전담팀 구성을 권고하였다.

여섯째,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에 ‘창체운영협의회(가칭)’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코디네이터 기관이 다수의 지역사회기관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였다.



【그림 I -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2차년도 시범사업 운영모형

위와 같이 1, 2차년도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컨설팅 결과와 평가결과, 시범사업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분석하여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 설문조사

(1) 시범사업 운영기관 조사

2012년에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위탁하여 운영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시범사업기관(44개 코디네이터 기관 및 100개 시범학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선정된 44개 기관은 16개 시도의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이다. 시범학교는 각 코디네이터 기관이 직접 선정한 학교들이며, 코디네이터 기관마다 시범학교의 수는 다르다. 코디네이터 기관 조사대상은 시범사업운영담당자이며, 시범학교 조사대상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장 교사이다. 조사내용은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 또는 학교의 입장, 변화, 전망, 문제점 등이다(자세한 내용은 제3장 참조).

(2) 초·중·고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전국의 초·중·고생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도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은 4학년까지 중·고등학생은 2학년까지만 실시되지만, 학교재량에 따라 전학년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창의적 체험활동과 특별활동 및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도 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6학년, 중고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학생조사 표본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와 학교의 지역사회연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자세한 사항은 제3장 참조).

4) 사례조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범사업기관(코디네이터기관 및 시범학교)을 포함한 학교사례와 청소년기관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사례조사와 학교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대상 학교, 기관,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면접조사 및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기관이 생산한 각종 문서의 내용분석도 병행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제4장 참조).

5) 기타 연구추진방법

그 밖에 전문가자문회의, 시범사업 컨설팅단 참여, 정책협의회, 세미나 등 실행계획단계에서부터 정책제언마련 과정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각계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였다.

첫째, 실행계획서 수립을 위해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설문지 제작과정에서는 통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또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분석 및 지역사례조사를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전문가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둘째,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시범사업(1차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 자원연계 시범사업」, 2차년도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추진본부(1차년도)과 추진단(2차년도) 그리고 컨설팅단에 참여하여 시범사업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범사업기관들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시범사업기관의 사례조사를 위한 정보를 습득했다.

셋째,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 89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연계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인천 및 강원지역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하여 두 부처간의 협력방안 및 두 센터(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기관) 간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넷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우수학교사례 및 시범사업을 포함한 청소년기관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서 사례발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교사례는 서울, 경기, 부산, 경남, 전남 지역 등의 초·중·고등학교 사례이며, 시범사업 기관 등 청소년기관 사례는 서울, 경기, 인천, 부천, 강원, 여수, 울주 등 지역의 사례이다.

제 II 장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의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의 개요
2. 체험활동의 효과 :
무동기 상황에서 몰입 경험까지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 :
사회적 자본에서 청소년 주도적
지역사회 참여까지
4. 소결

제 II 장²⁾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의 이론적 배경

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의 개요

2011년 1차년도 연구(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정, 2011)에서 김현철(2011)이 제시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그림 II-1)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에게 동기형성이나 자존감,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영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위해 학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학교와 사회의 연계가 ‘느슨한 연계(weak tie)’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지역사회자원이 학교의 시수에 맞춰 지원되고, 체험활동은 체계성을 갖기보다는 단순한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이때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 주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가 필요하게 된다. 초기모형에서의 체험활동은 청소년들이 주도하기보다는 지도자나 교사가 주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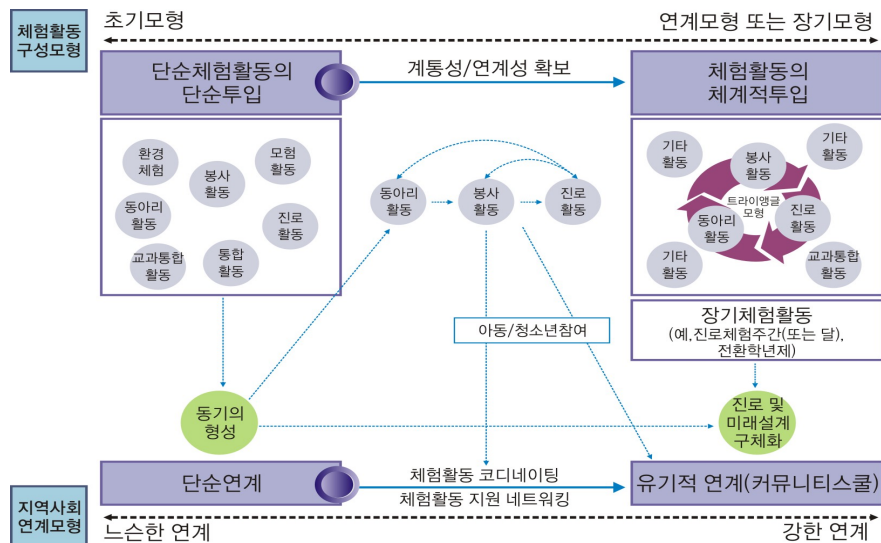
둘째, 초기모형에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경험하면서 특정 주제에 대한 흥미나 관심 또는 동기가 생기게 되면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진 활동이외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거나 또는 동아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다.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토대로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그것 자체가 좋은 진로활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동아리활동-봉사활동-진로활동이 연계된 형태의 활동을 2011년 연구에서는 ‘트라이앵글 모형’으로 명명하였다. 바람직한 체험활동의 유형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다양한 체험활동이 활발해지거나 청소년들의 요구에 맞춰진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면,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체험활동이 더 진화하게 되면, 체험활동을 지도자나 교사가 주도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 즉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 형태의 체험활동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2) 2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3) 2011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한 시범사업과 2012년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한 시범사업의 모델은 이 초기모형에 근거하여 만들어졌다.

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는 더 강해지고,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또는 네트워크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직접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역의 공공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의 공공조직은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수립하기도 하고,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도 활발해지며, 지역내 초·중·고 등학생들이 학교급별 또는 학년별로 위계성이 있는 또는 나선형 교육과정 형태의 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다. 이른바 계통성을 갖춘 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연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눈덩이 효과’에 의해 점차 확산되고, 체험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된 형태로 운영될 것이며, 동시에 체계적인 체험활동도 많아지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이른바 커뮤니티 스쿨의 형태의 체험활동의 운영도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지역사회의 연계는 매우 ‘강한 연계(strong tie)’, 유기적인 연계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지면,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게 되고, 장기적인 체험활동, 예를 들면, 청소년들에게 일본 효고현의 1주일 직장체험(이기봉 외, 2011)이나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Jeffers, 2007)와 같은 장기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또는 자유학기제)도 도입하게 될 것이다. 이 때 청소년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 출처: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2011), p.22.

【그림 II-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운영을 위한 장기적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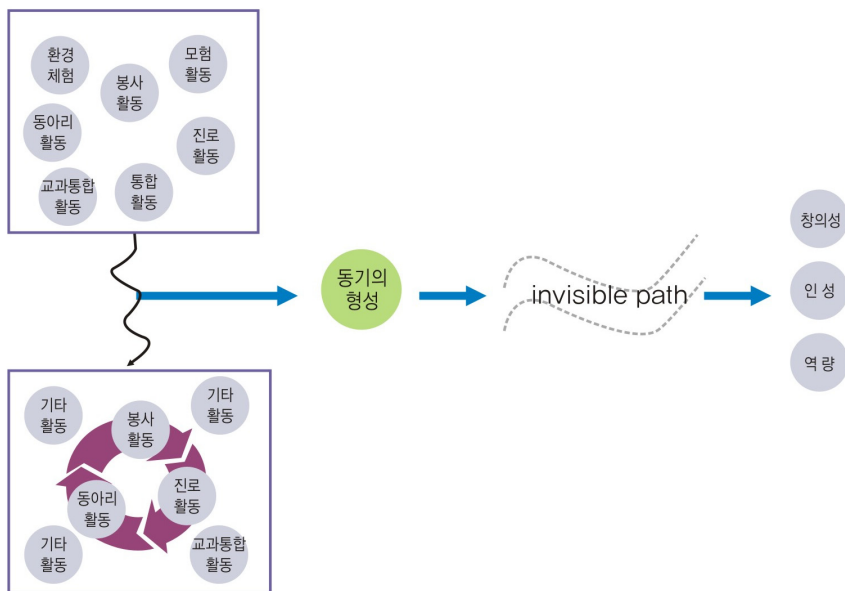
이러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지역사회연계모형은 가설적인 수준에서 제시된 것이지만, 2011년 연구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다. 그렇더라도 각 단계별로 얼마나 타당한지 더 면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론적인 논거를 갖춘 내용도 있으나,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다. 다음 절부터는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론적인 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체험활동의 효과 : 무동기 상황에서 몰입경험까지

2011년 연구(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 2011)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청소년 체험활동의 목적하는 바가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이나 인성 또는 역량일 수 있으나, 그것은 단위프로그램이나 단기적인 체험활동 경험을 통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지 않은 경로(invisible path)’ 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였다. 달리 말하면, 장기적인 경험의 축적이 어떻게 목표달성지표인 창의성이나 인성 또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 과정은 엄밀히 말해 ‘혼돈(chaos)’ 의 특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경험과정에 개입되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창의성이나 인성의 개념이 갖는 복잡성도 한몫한다(참고: 강선보 · 박익수 · 김귀성 · 송순재 · 정윤경 · 김영래 · 고미숙, 2008; 임선하, 1996; 남궁달화, 2005; Sternberg, et al., 2004).

청소년의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OECD DeSeCo 프로젝트의 핵심역량지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생애핵심역량지표(김기현 · 김지현 · 장근영 · 소경희 · 김진화 · 강영배, 2008; 김기현 · 맹영임 · 장근영 · 구정화 · 강영배 · 조문흙, 2009; 김기현 · 장근영 · 조광수 · 박현준, 2010)를 비롯해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개발한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K-CESA)(주인중 · 박동열 · 진미석, 2010),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개발한 핵심역량지표(이광우 · 전제철 · 허경철 · 홍원표 · 김문숙, 2010) 등 다양하다. 이러한 역량지표들은 국가수준에서 모든 교육과 청소년정책의 성과로서 청소년들의 수준을 평가하고 비교하기 위한 도구로서는 유용하지만, 단위 프로그램이나 단기적인 체험활동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2011년 연구(이기봉 외, 2011)에서는 체험활동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중간목표로서 동기의 형성이나 자아존중감과 같은 목표설정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물론 체험활동과 동기형성, 자아존중감 등 정의적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도 쉽지는 않다. 2011년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 운영한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동기형성이나 자아존중감 같은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몇몇 정의적인 변인들, 예를 들면, 성취동기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학업동기 등에 있어서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뿐 아니라, 학교급 또는 학교에 따라서는 체험활동 후 오히려 점수가 낮아진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각 집단의 체험활동이 균형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사후 검사 사이의 기간 동안의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경험들이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질적인 조사를 통해서는 정의적인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났으며, 특히 학교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분명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김현철 · 최창욱 · 민경석, 2010; 이기봉 외, 2011). 체험활동의 경험이 가져오는 동기형성⁴⁾의 중요성, 또는 ‘동기형성 중간목표론’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II-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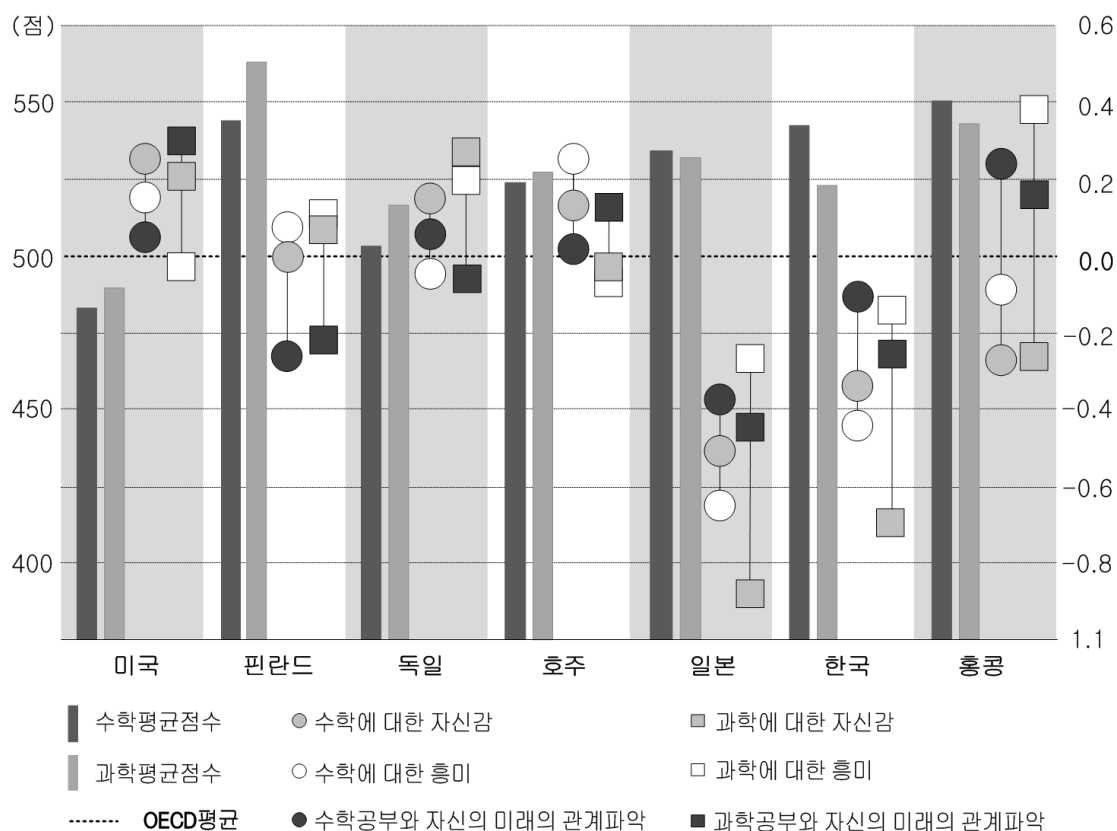


※ 출처: 이기봉 · 김현철 · 윤혜순 · 송민경(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 p.17.

【그림 II-2】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달성 경로’

4) 동기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많지만 체험활동의 경험과 동기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흔하지 않다. 이 또한 개념의 복잡성에 연유한 것일 수 있다. 창의성이나 인성의 개념이 복잡한 것처럼 동기의 역시 매우 복잡하다. 동기개념도 창의성이나 인성과 같이 높은 추상수준의 개념에서부터 비교 추상수준이 낮은 개념까지 매우 다양하다(참고 : 김아영, 2010). 그렇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기에 대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고 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행동을 시작시키고, 방향을 결정하며, 끈기와 강도를 결정하는 힘’으로 정의하고자 한다(김아영, 2010, p.20).

동기형성은 체험활동이 아니라도 학업성취나 창의성의 계발 등 인지적 발달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한국청소년들의 정의적 특성 중 ‘무동기’ 변인은 흥미를 끝만하다. 주로 학업동기와 관련된 ‘무동기(amotivation)’에 관한 연구들이지만(Ryan & Deci, 2000; 강상진·김아영·박광배·반재천·이규민, 2006에서재인용; 김아영, 2008; 박병기·이종욱·홍승표, 2005), 연구들은 일관되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무동기 점수가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2011년 본 연구 차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중1=2.53 / 고1=3.16). 그러나 ‘무동기’의 특성에 대한 국제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상대적인 위치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 주 : 수학 관련 점수는 PISA 2003, 과학 관련 점수는 PISA 2006에 의거한 점수임.

* 출처: 文部科学省(2010)、「平成22年度文部科学白書」. p.76으로부터 재작성

【그림 II-3】 PISA결과 7개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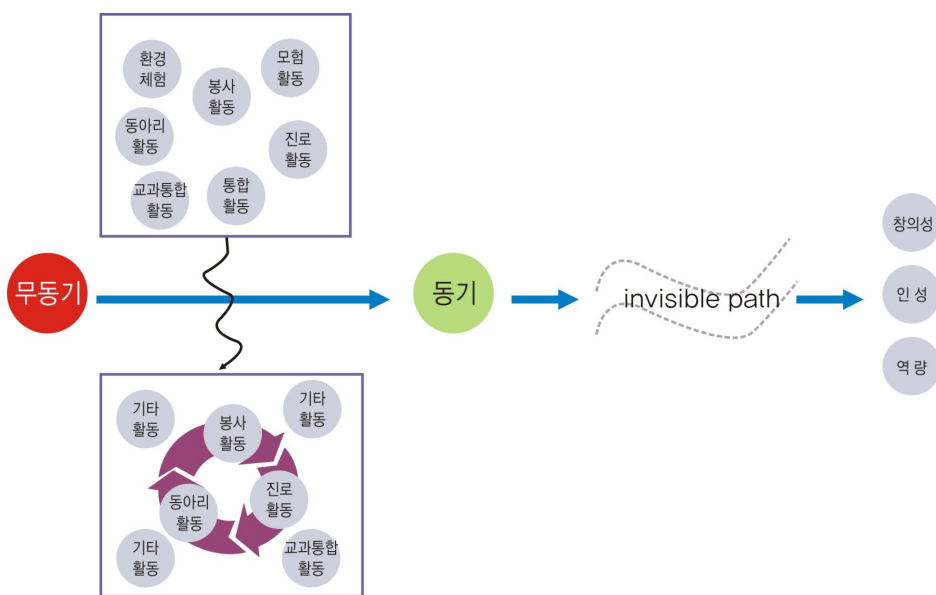
다만, PISA나 TIMMS 등과 같은 국제학력성취도 검사를 통해서 잘 알려진 바처럼, 높은 학업성취와는 달리 흥미, 동기, 자신감과 같은 정의적 변인에서의 낮은 점수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무동기’적 특성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그림 II-3>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국과 반대로 학업성취는 낮고, 정의적 영역의 점수는 높다. 핀란드는 학업성취가 높으면서 정의적 영역의 점수는 OECD 평균수준이다.

무동기와 체험활동과의 관련성 역시 분명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2011년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에서 체험활동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운영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사후검사결과로부터도 ‘무동기’ 변인의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동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 집단의 체험활동이 균형적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전-사후 검사 사이의 기간 동안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일 수 있다. 따라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PISA와 TIMMS에서의 낮은 정의적 변인점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무동기’ 변인점수가 높아지는 경향 등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의적 영역의 발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비록 인지적 영역에서의 점수는 높을지라도 인지적 발달이 정서나 감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 (Amstrong, 2000)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창의성이나 인성발달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높다.

동기의 형성은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무동기 상황을 고려하면, 무동기 상황에서 동기형성으로의 이행은 중요한 모멘텀이다. 무동기는 내적인 동기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강상진 외, 2006; 심우엽, 2001; Vallerand & Bissonnette, 1992) 동기의 형성은 당연히 무동기 상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만, 특히 학습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을 고려할 때, 무동기 상황으로부터의 탈출은 체험활동의 의미를 더욱 부각시켜준다. 앞에서 제시한 체험활동의 효과를 보여주는 몇 가지 질적인 연구들은 체험활동이 무동기에서 동기로의 이행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점을 고려하면, <그림 II-2>는 다시 <그림 II-4>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체험활동은 무동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동기형성의 기회를 주고, 형성된 동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험들을 이어지면, ‘보이지 않은 경로’를 거쳐 궁극적인 목표지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동기형성 후의 과정이다. 성과목표지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동기형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보이지 않은 경로’를 상정한 것은, 예를 들어 ‘창의성’의 경우라면, 창의성이라는 성과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지속적인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즉, 창의성에 있어서 이른바 ‘10년의 법칙’, 다시 말해 ‘어떤 영역에서 진정한 탁월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법칙’ (Sternberg, 2009, p16)을 고려한 것이다. 10년의 법칙은 ‘신중하게 훈련하고 전문가적인 수행을 발달시키는 데’ 사용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창의적 업적이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찾아오게 될 그날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Sternberg, 2009, p16). 즉, 특정 주제나 영역 또는 과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 중요하며, 이러한 지속적인 경험의 추동력이 바로 동기형성, 특히 내적인 동기의 형성, 그리고 흥미 또는 재미와 같은 정의적 변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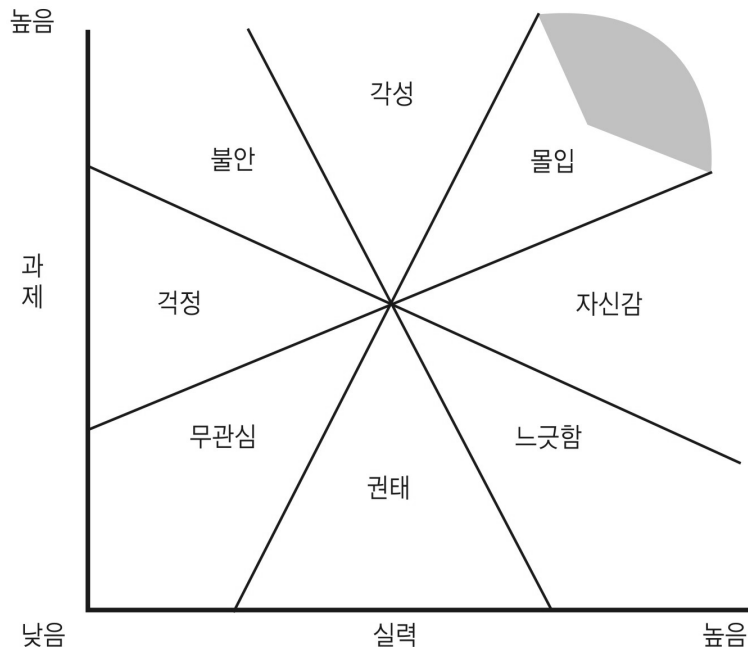


【그림 II-4】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달성 경로(무동기-동기)’

나아가 칩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M.) 등의 몰입(Flow)에 대한 연구들(예, Csikszentmihalyi, 1997; 2000 등)의 중요한 결과, 즉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내적 동기화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자료들은 체험활동의 목표달성경로에 대한 추가적인 논거를 제공한다.

‘몰입(Flow)’, 즉 자기목적적인 또는 내적 동기화된 경험(autotelic experience)의 상황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버겁지도 않은 과제를 극복하는 데 한 사람이 자신의 실력을 온통 쏟아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행동력과 기회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그림 II-5). 과제가 너무 힘들어지면 불안과 두려움에 져다가 제품에 포기하고

만다. 과제와 실력의 수준이 둘 다 낮으면 아무리 경험을 해도 미적지근할 뿐이다. 그러나 힘겨운 과제가 수준 높은 실력과 결합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심도 있는 참여와 몰입이 이루어진다 (Csikszentmihalyi, 1997, p.46).



* 출처: 마시미니와 카를리(1988), Csikszentmihalyi(1999), p.47에서 재인용.

【그림 II-5】 과제와 실력의 함수 관계에 따른 경험의 질

이와 같은 ‘몰입’의 경험은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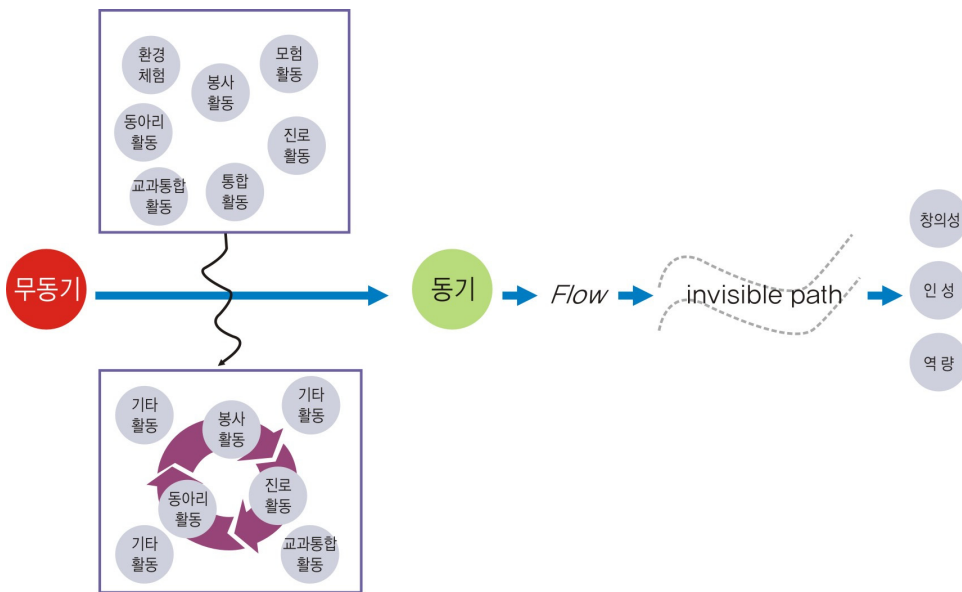
하나는 ‘몰입’의 상황에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것이다. 즉 ‘불안과 두려움에 져다가 세월에 포기하고 마는’ 상황, 다시 말해, ‘불안’, ‘느긋함’, ‘걱정’, ‘권태’, ‘무관심’과 같은 상황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통틀어서 ‘무동기’ 상황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무동기는 내적동기와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림 II-5>가 보여주듯이 몰입과 상극의 위치한 것은 무관심의 상황이다. 즉, 과제에 대해 무관심하며, 과제에 관련된 실력의 수준도 낮은 상황이다. 결국 체험활동은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돌파구를 찾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체험활동이나 과제가 어떤 종류의 것이냐 하는 점과 관련이 있다. 칙센트미하이는 ‘힘겨운 과제가 높은 수준의 실력과 결합할 때 몰입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Csikszentmihalyi,

1999, p. 46). 이러한 경험은 물론 학습활동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여가생활에 많은 관심을 보인 칙센트미하이(Csikszentmihalyi, M.) 등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동기 또는 몰입과의 관련성을 찾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모든 활동이나 여가가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청소년들은 하루 시간의 35%를 ‘일 같지도 않고 놀이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면서 보낸다고 한다(Csikszentmihalyi, 2003, p.74). 김기현 등(김기현 · 안선영 · 장상수 · 김미란 · 최동선, 2009)에 의하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평일학습시간은 7시간 50분으로 5시간 전후인 외국에 비해 길며,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참가시간은 매우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활시간의 비교는 활동 내용의 질적인 차이를 설명해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의 양과 몰입경험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체험활동이 동기나 흥미를 갖게 해주고, 이러한 의미에서 체험활동은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모든 체험활동이나 여가활동이 몰입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활동으로부터 자기목적적인 보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내적 동기화의 핵심이지만(Csikszentmihalyi, 1999, p.65), 그것이 산출하는 효과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p.73). 그 만큼 체험활동과 동기와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렵지만, 국제학력성취도조사 결과에서 높은 성취를 보인 원인이 과목에 대한 동기나 흥미 또는 자신감과 같은 요인이 아니라는 점은 그 만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의 경험빈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에 칙센트미하이 등이 말하는 몰입의 경험이 ‘힘겨운 과제가 높은 수준의 실력과 결합할 때’ 일어나는 것이라면,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닌 동아리활동과 같이 특정의 과제나 주제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활동경험이 몰입경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김기현 등(김기현 외, 2009)의 연구나 김현철 등(김현철 · 김은정 · 민경석, 2007)의 국제비교조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 참여는 외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동아리활동과 같은 체험활동이 ‘힘겨운 과제가 높은 수준의 실력과 결합할 때’의 몰입경험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을 개연성을 고려해보자면, 동아리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이점을 고려하면, <그림 II-4>는 다시 <그림 II-6>와 같이 수정될 수 있다.



【그림 II-6】 체험활동 경험을 통한 무동기에서 몰입까지의 경로

요약하자면, 체험활동은 무동기 상황에서 동기형성으로 이행하는 통로역할을 한다. 그러나 단순 체험활동보다는 동아리활동과 같은 자기목적적 경험이 동기형성과 더 높은 상관을 가지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체험활동이 동기형성을 위해서 더 좋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을 토대로 봉사활동과 진로활동과 연계되는 트라이앵글형의 통합형 체험활동 경험도 내적 동기의 형성과 자기목적적 경험, 즉 몰입을 경험하게 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일단 흥미가 생기고 자기목적성을 가진 체험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개별적인 ‘보이지 않는 경로’를 따라 또는 ‘10년의 법칙’에 따라 전문성(역량)을 쌓고 또 창의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적·자기목적·통합적 체험활동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진로교육의 수단이 될 수 있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효과 : 사회적 자본에서 청소년 주도적 지역사회 참여까지

그렇다면, 몰입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의 차이로부터 오는 것일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몰입 연구들에 의하면,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문화적 배경, 부모와의 관계 또는 ‘질풍노도’적 경험 유무 등에 따라서 몰입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청소년들의 사회적 환경인 가정이라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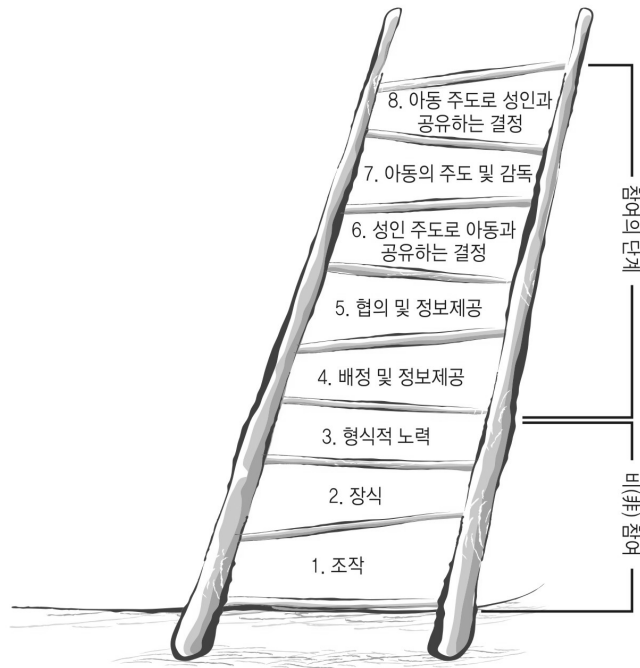
가 학교의 상황도 중요하다(Csikszentmihalyi, & Schneider, 2001). 나아가 다른 문화나 역사적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몰입경험에 대해서도 다르게 경험할 수 있다(Csikszentmihalyi, 1999, p.86). 마시미나는 몰입이론으로부터 개인들의 사소한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문화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을 발견했다(Csikszentmihalyi, 1999, p.28). 몰입의 결과가 사회문화적 변화를 가져오고, 또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몰입의 경험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몰입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의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넓게는 속해 있는 사회전체가, 좁게는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발달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이것은 생태심리학의 교과서적인 내용에 몰입을 대입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네트워크를 중요한 생태심리학적 환경의 하나로 보고,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어떻게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한다.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교육복지사업 관련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사례분석 연구(예를 들어, 김경애, 2009a; 2009b), 지역사회학교 모형에 대한 연구(예 : Peters, 1977, 中野区沼袋小学校, 2008; 貝ノ瀬, 2010), 학교를 작은 사회로 보는 존듀이(John Dewey)의 진보주의적 관점과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예:Hart, 1997) 등을 역사회연계의 당위적 논거로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이론은 네트워크의 ‘밀도’ 또는 ‘관계의 정도’를 ‘약한 연결(weak tie)’와 ‘강한 연결(strong tie)’로 구분하고, 약한 연결과 강한 연결의 장단점을 대비시켜 말하지만(손동원, 2002), 대체로 네트워크는 유용한 정보 및 자원으로의 접근과 새로운 기회의 확보, 구성원간의 물질적, 정서적 지원효과와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을 높인다(조영복·김경원, 2011, p.92).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구성원들의 사회적 자본이 된다(Baker, 1990: 조영복·김경원, 2011에서 재인용).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지역사회 또는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긍정적 발달을 지원한다. 이것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의 일차적인 효과들이다. 지역사회학교란 대체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학교를 포용하는 형식이다(Christine & Atkins, 2000). 이러한 연구와 사례들은 많이 있다. 2011년 1차년도에 소개한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도 지역사회자원의 연계를 통해서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었다. 주로 질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효과들이지만, 「전환학년제」의 경험이 인성 및 사회성 발달의 효과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의 향상 등 교육적 효과 그리고 직업적 발달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이기봉 외, 2011, p.39), 이것은 다름아닌 지역사회 연계의 효과이다. 중학교 졸업 후 1년간 「전환학년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이 상호연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 효고현의 「트라이 야르 워크」⁵⁾나 케센누마시가 추진해 온

「지속가능한 환경체험활동」이 가져온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효과도 주목할만하다(「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 2008; 김현철·이기봉, 2011). 이른바 ‘지역의 교육력’⁶⁾이나 ‘지역사회 역량(community capacity)’ (Delgado & Staples, 2008)으로 표현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효과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연계의 힘에 청소년의 참여라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 알려진 대로 로저 하트(Rpger A. Hart)의 ‘참여의 사다리’ (그림 II-7)에서 시작되었다. ‘조작’, ‘장식’, ‘형식적 노력’ 과 같은 참여는 참여로 볼 수 없으며, 청소년의 주도성이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참여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높은 수준의 참여단계는 청소년이 주도하면서 성인들이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단계이다.



※ 출처: Hart(1997). Children's Participation, p.41.

【그림 II-7】 하트의 참여의 사다리

- 5) 「트라이 야르 위크」 프로그램은 효고현의 모든 공립중학교 2학년생들이 평균 3명이하의 팀을 구성하여 1주일간 직장체험을 하는 프로그램이다(자세한 내용은 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2011)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를 참조할 것!)
- 6) 일본 문부과학성은 「유토리교육」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지역의 교육력」을 강조해 왔다(참조 : http://www.mext.go.jp/a_menu/01_g.htm).

Delgado와 Staples(2008)는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청소년주도나 성인주도나에 따라서 참여의 수준을 <그림 II-8>과 같이 보다 간결하게 나타내었다.



* 출처: Delgado & Staples(2008), p.69.

【그림II-8】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스펙트럼

각 모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Delgado & Staples, 2008, p.70).

첫째, 모델 1의 「성인주도형 청소년참여형」에서는 청소년은 활발히 참여하기는 하지만 권한이 없고,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둘째, 모델 2 「성인주도-청소년 제한적 파트너형」에서는 성인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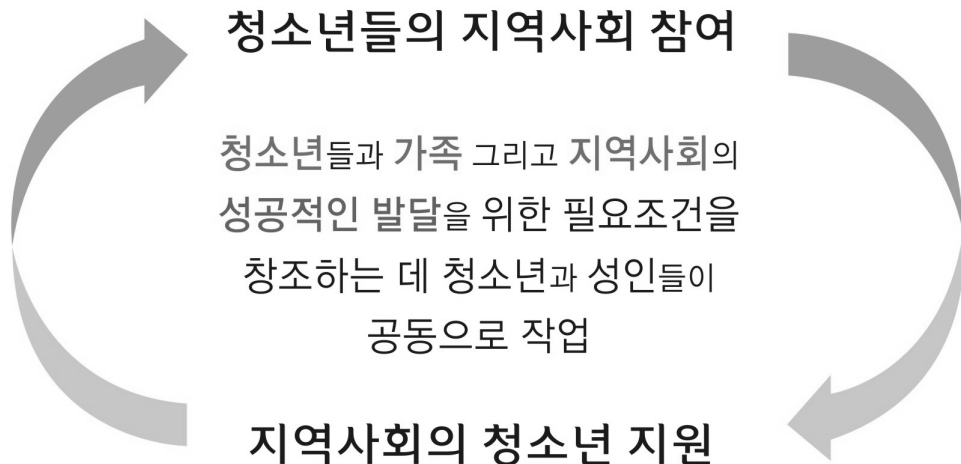
셋째, 모델 3 「청소년-성인 공동 파트너십형」에서는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하게 권한을 나눠 갖는다.

넷째, 모델 4 「청소년주도 성인지원형」에서는 청소년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며,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할 때 지원하는 역할만 한다.

지역사회학교 모형은 오랫동안 지역사회가 청소년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형태를 의미했지만, 지역사회학교 모형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통한 모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크리스틴과 아트킨스(Christine & Atkins, 2000)는 지능이나 창의성을 개인의 능력요인을 넘어 확장된 개념으로 보았다. 개인학습자의 능력을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요구를 파악하고 지원하는 내용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였다. 지역사회는 순환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의 발달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은 지역의 개선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상호작용 모델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청소년들을 미래사회의주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주역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p. 126).

미국에서도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60년대는 청소년의 지지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지만, 이 시기는 청소년의 문제를 사회비용으로 간주하던 시기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지만, 여전히 청소년 서비스는 청소년문제의 방지라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청소년들을 문제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청소년들이 성인들과 함께 동반자적인 존재로 보고,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된다(Pittman, 2000). 즉, <그림 II-9>와 같은 방식의 청소년 참여이다.



* 출처: Pittman(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그림 II-9】 지역사회와 청소년지원과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의 상호작용

모크웨나 등(Mokwena et. al., 1999)이 청소년 주도 지역사회 조직활동(Youth-led community organizing)의 목표를 (1) 지역사회 참여가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2) 청소년 참여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설정한 것(Delgado & Staples, 2008, p.54에서 재인용)은 청소년 주도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요약적으로 말해 준다. 즉, 지역사회연계를 점차 ‘강한 연계’로 발전시켜가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과정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참여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러한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의 효과 역시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 연구된 바도 없다. 다만, 몇몇 질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참여가 가져다주는 효과들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렛 등(Jarett, et. al., 2005)이 지역사회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에 대해 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조사한 결과, 청소년들은 성인으로부터 필요한 도움과 정보를 얻고, 성인들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며, 성인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진은설과 임영식(2009)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해서 지역사회 참여활동이 ‘즐거움’, ‘자기만족’, ‘나의 발견’과 같은 긍정적 발달을 가져온다는 점을 밝혔다.

〈그림 II-1〉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에서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이유는 결국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 참여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모든 체험활동이 지역사회 참여활동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체험활동이 자기목적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우 효과적이며, 지역사회연계에 청소년들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청소년주도적인 형태여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제도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지만, 진정으로 청소년주도적인 참여활동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도 있다(예, 정건희, 2011). 모크웨나 등(Mokwena et. al., 1999: Delgado & Staples, 2008, p.54에서 재인용)이 언급한 것처럼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하나라기보다는 최선의 프로그램이며, 지역사회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조직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동반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이야말로 가장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지역사회운영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제 III 장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 조사결과

1. 조사의 개요
2. 조사 결과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 III 장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 조사결과

1. 조사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종류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운영실태와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 관련 인식, 체험활동의 효과 등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수준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모형의 적용 가능성과 성과 및 한계 등을 밝히기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의 시행 기관(청소년기관 및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 전국 단위 설문조사

(1) 학생조사

가. 모집단 및 표본의 크기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실태와 인식을 조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2012년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해당 조사는 한국청소년

7) 3장은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경석(세종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집필함.

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하는 2012년 통합조사⁸⁾의 표본설계를 적용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학생의 모집단은 5,548,299명으로(초등학교 1,175,619명, 중학교 1,898,699명, 일반계 고등학교 1,486,941명, 특성화 고등학교(옛 전문계 고등학교, 이하 특성화고) 447,070명)이다. 지역과 학교를 층화변수로 고려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적용하여 총 300개의 학교, 8,53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표본의 배분

본 연구에서는 조사 모집단을 2011년 교육통계연보에 수록된 전국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과 학교를 층화변수로 한 층화집락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높였다. 층화변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 역(16개): 16개 시도
- 학교급(4개):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 학 년(3개): 초등학생(4학년, 5학년, 6학년), 중고생(1학년, 2학년, 3학년)

상술한 기준을 토대로 학생수에 비례하도록 지역구분(16개 시도) × 학교급(4개)=64개의 각 층에 표본크기를 할당하면 <표 Ⅲ-1>과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한 학년, 한 학급을 선정하여 학급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조사하게 되므로, 각 층에 할당된 표본크기를 각 층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로 나누면 <표 Ⅲ-1>에 제시된 것처럼 조사될 학교수가 할당된다. 총 300여개의 학교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8) 통합조사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2년도에 실시하는 6개 과제의 전국단위 설문조사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방법을 말한다. 6개조사를 3개 조사씩 두 유닛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조사가 속한 유닛의 경우, 표본학교에서 3개반을 추출하여 그 중 한 반에 대해서 본 조사의 설문을 실시함으로써 동일한 비용으로 충분한 학교표본수를 확보하였다.

표 III-1 단순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
서울	1,490	447	503	453	87	47.7	16.5	15.2	12.9	3.2
부산	545	158	186	150	51	18.4	6.4	5.7	4.4	1.9
대구	457	135	156	131	34	14.5	5.2	4.5	3.7	1.1
인천	477	146	163	133	35	16.0	5.9	4.7	4.1	1.3
광주	303	94	105	82	22	9.4	3.6	2.9	2.2	0.7
대전	281	86	97	81	17	9.1	3.4	2.9	2.3	0.6
울산	221	66	76	63	16	7.2	2.6	2.3	1.7	0.5
경기	2,100	676	720	544	161	66.0	25.1	20.8	15.0	5.1
강원	253	79	87	51	35	11.6	4.7	3.6	1.9	1.4
충북	270	84	94	62	30	11.0	4.6	3.5	1.9	1.0
충남	346	111	118	89	29	14.1	5.9	4.2	2.8	1.1
전북	330	101	114	77	38	14.7	5.9	4.8	2.6	1.5
전남	318	98	109	76	34	14.6	5.8	4.6	2.6	1.6
경북	422	131	143	105	43	18.6	7.1	6.2	3.5	1.7
경남	580	181	200	156	42	22.8	8.9	7.3	4.9	1.6
제주	109	35	37	26	11	3.9	1.6	1.2	0.7	0.4
합계	8,500	2,628	2,909	2,278	685	299.4	113.2	94.5	67.1	24.6

그런데 이와 같이 각 층에 단순비례배분으로 표본을 할당할 경우, 특정 층에 너무 작은 표본크기가 배당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광주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에는 21명(학년당 7명)의 표본이 배당되는데, 이 경우 한 학교를 방문하여 이처럼 소수의 표본만 조사할 경우 비효율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2 통합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 학교수 및 표본크기를 최종 결정하였다.

- 각 학년별로 지역(16개)×학교급(4개)을 교차하여 산출된 64개 각층에서 최소 한 개 이상의 학교 할당
- 각 학년별로 층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학교수를 할당하되, 전체 학교수가 300개가 되도록 함.

2011년 교육통계연보 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전국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22명, 중학교 30명, 일반계고 33명, 특성화고 27명이다. 이 같은 정보와 앞에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구분×학교급별 모집단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크기를 배분하고, 각 층별로 조사될 학교수와 조사 대상 학생수를 계산하면 <표 III-2>와 같은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표 III-2 변형비례배분에 의한 표본크기 할당

구분	학생수					학교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서울	1,411	408	497	423	83	45	15(5)	15(5)	12(4)	3(1)
부산	528	148	195	103	82	18	6(2)	6(2)	3(1)	3(1)
대구	381	79	104	107	91	12	3(1)	3(1)	3(1)	3(1)
인천	434	149	104	97	84	15	6(2)	3(1)	3(1)	3(1)
광주	397	78	108	112	99	12	3(1)	3(1)	3(1)	3(1)
대전	371	76	101	108	86	12	3(1)	3(1)	3(1)	3(1)
울산	376	75	98	111	92	12	3(1)	3(1)	3(1)	3(1)
경기	1,718	565	623	435	95	54	21(7)	18(6)	12(4)	3(1)
강원	279	51	73	82	73	12	3(1)	3(1)	3(1)	3(1)
충북	322	55	80	99	88	12	3(1)	3(1)	3(1)	3(1)
충남	371	112	84	96	79	15	6(2)	3(1)	3(1)	3(1)
전북	339	103	71	90	75	15	6(2)	3(1)	3(1)	3(1)
전남	324	102	72	87	63	15	6(2)	3(1)	3(1)	3(1)
경북	413	110	138	89	76	18	6(2)	6(2)	3(1)	3(1)
경남	520	182	164	95	79	21	9(3)	6(2)	3(1)	3(1)
제주	355	64	92	105	94	12	3(1)	3(1)	3(1)	3(1)
합계	8,539	2,357	2,604	2,239	1,339	300	102(34)	84(28)	66(22)	48(16)

다. 표본의 추출

각 학교구분과 지역구분별로 할당된 표본학교의 추출은 <표 III-2>에 주어진 표본배분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비례추출법으로 선정하였다. 학교 선정 과정에서 조사모집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제한하였다.

- 중학교: 일반 중학교(국제중, 예술중, 체육중 제외)
- 일반계 고등학교: 일반계고 (과학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외국어고 제외)
- 특성화 고등학교: 가사고, 공업고, 농림업고, 상업고, 수산고, 실업고, 해양고

각 학년별로 지역구분(16개)×학교급(6개)=64개 층내에서 조사대상 학생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 추출법으로 표본학교를 선정하되,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2개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년별 학급수가 3개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20명 이상인 학교가 추출되도록 하였다. 그리고 선정된 표본학교 내에서 각 학년별 1개의 표본학급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그 학급의 모든 학생들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표본을 확보하였다. 만약 추출된 학교 측의 조사협조 거절로 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동일한 층 내의 학교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대체하였다. 아울러 사전 학교 섭외과정에서 우열반, 특수반 등 특별편성이 되어 있는 학급은 제외했고, 지역별·성별 구성비율도 고려하여 최종 조사될 학교 및 학급을 선정하였다.

이 같은 표본설계에 의해 실시된 본 연구의 지역별 조사 대상학교 수와 학생 현황은 <표 III-3>에 제시되어 있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4>에 정리되어 있다.

표 III-3 지역별 설문조사 대상 학교 수 및 학생 수

구분	학교수					학생수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합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서울	45	15(5)	15(5)	12(4)	3(1)	1,346	395	477	407	67
부산	18	6(2)	6(2)	3(1)	3(1)	504	144	197	93	70
대구	12	3(1)	3(1)	3(1)	3(1)	379	76	105	106	92
인천	15	6(2)	3(1)	3(1)	3(1)	450	155	103	104	88
광주	12	3(1)	3(1)	3(1)	3(1)	379	83	102	98	96
대전	12	3(1)	3(1)	3(1)	3(1)	377	83	98	108	88
울산	12	3(1)	3(1)	3(1)	3(1)	383	76	100	107	100
경기	54	21(7)	18(6)	12(4)	3(1)	1,775	603	645	436	91
강원	12	3(1)	3(1)	3(1)	3(1)	367	108	94	94	71
충북	12	3(1)	3(1)	3(1)	3(1)	363	76	100	107	80
충남	15	6(2)	3(1)	3(1)	3(1)	447	147	98	109	93
전북	15	6(2)	3(1)	3(1)	3(1)	437	163	97	99	78
전남	15	6(2)	3(1)	3(1)	3(1)	449	163	108	102	76
경북	18	6(2)	6(2)	3(1)	3(1)	534	153	193	110	78
경남	21	9(3)	6(2)	3(1)	3(1)	612	240	191	102	79
제주	12	3(1)	3(1)	3(1)	3(1)	377	68	110	109	90
합계	300	102(34)	84(28)	66(22)	48(16)	9,179	2,733	2,818	2,291	1,337

* 주: 괄호안의 수치는 학년별 학교수.

표 III-4 설문조사 대상자 일반 현황 (학생)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4,820	52.5
	여자	4,359	47.5
학교급	초등학교	2,838	30.9
	중학교	3,141	34.2
	일반계고	2,460	26.8
	특성화고	740	8.1
경제적 수준	상	1,344	14.6
	중	7,296	79.5
	하	428	4.7
	무응답	110	1.2
학업 성적	상	2,726	29.7
	중	3,828	41.7
	하	2,581	28.1
	무응답	44	0.5
전체		9,179	100.0

(2) 교사대상조사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전국 단위 학생조사의 300개 학교표본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에 대해서 물었다.

2) 시범사업 기관 조사

한편,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 실태 및 가능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2012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기관 및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해당 시범사업은 2011년도에 수행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차원에서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을 확대적용한 것으로, 여성가족부 예산과 16개 시도 예산을 50:50 매칭으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에는 전국의 44개 청소년기관과 100개 초·중·고교가 참여하였다.

시범사업 기관 대상 설문조사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학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총 44개 청소년기관 가운데 37개 기관이 조사에 응하였으며, 100개의 시범학교 가운데 82개교가 설문에 응하였다. 조사가 이루어진 기관 및 학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5>와 <표 III-6>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5 조사대상 코디네이터 시범기관 현황

구분		빈도	비율(%)
기관 유형	청소년수련관	25	67.6
	청소년문화의 집	9	24.3
	청소년수련원	1	2.7
	무응답	2	5.4
소재지	대도시	15	40.5
	중소도시	11	29.7
	읍면지역	9	24.3
	무응답	2	5.4
전체		37	100.0

표 III-6 조사대상 시범학교 현황

		빈도	비율(%)
지역	서울	5	6.1
	부산	4	4.9
	대구	6	7.3
	인천	6	7.3
	광주	4	4.9
	대전	5	6.1
	울산	5	6.1
	경기	6	7.3
	강원	5	6.1
	충북	5	6.1
	충남	5	6.1
	전북	5	6.1
	전남	6	7.3
	경북	4	4.9
	경남	5	6.1
	제주	6	7.3
학교유형	초등학교	31	37.8
	중학교	28	34.1
	일반계 고등학교	19	23.2
	특성화 고등학교	4	4.9
소재지	대도시	34	41.5
	중소도시	25	30.5
	읍면지역	23	28.0
전체		82	100.0

2. 조사 결과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시범사업 참여 청소년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모형의 운영 실태조사결과를 분석한 다음, 전국 단위 학교조사결과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1) 시범사업 운영실태 조사

여기에는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한 코디네이터 기관 및 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코디네이터 기관 담당자들이 응답한 결과를 먼저 살펴본 뒤, 이어서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의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1) 코디네이터 기관의 시범사업 운영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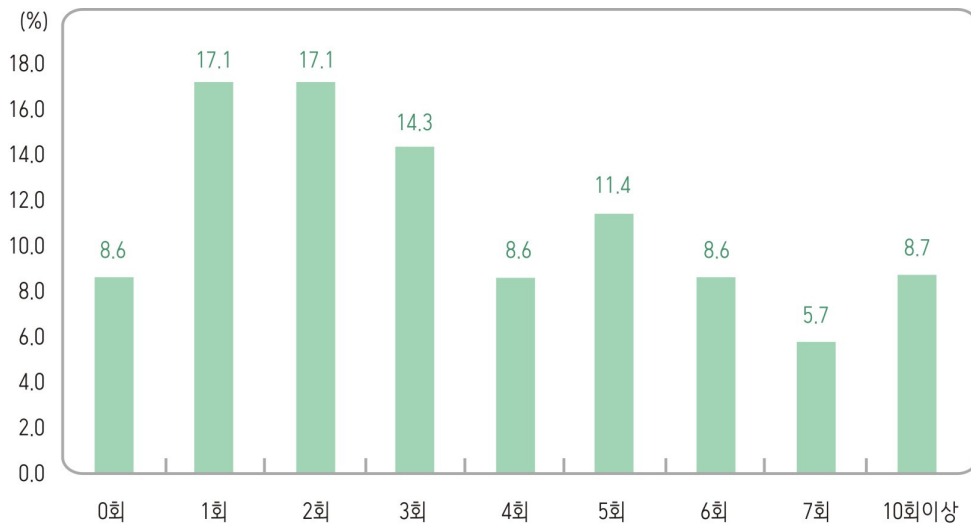
가. 기본 운영 실태

- ◎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에 업무협의회는 한 학기 당 평균 1~3회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고,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의 연구모임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코디네이터 기관의 시범사업 전담팀 인력은 1~2명으로 구성된 사례가 전체의 75%를 차지해 사업운영인력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운영 실태는 ①시범학교와의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 ②시범학교 교사와의 연구모임 운영 실태, ③시범사업 관련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실태, ④시범사업 전담팀 구성원 수, ⑤코디네이터 기관 사업 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 등의 지표를 통해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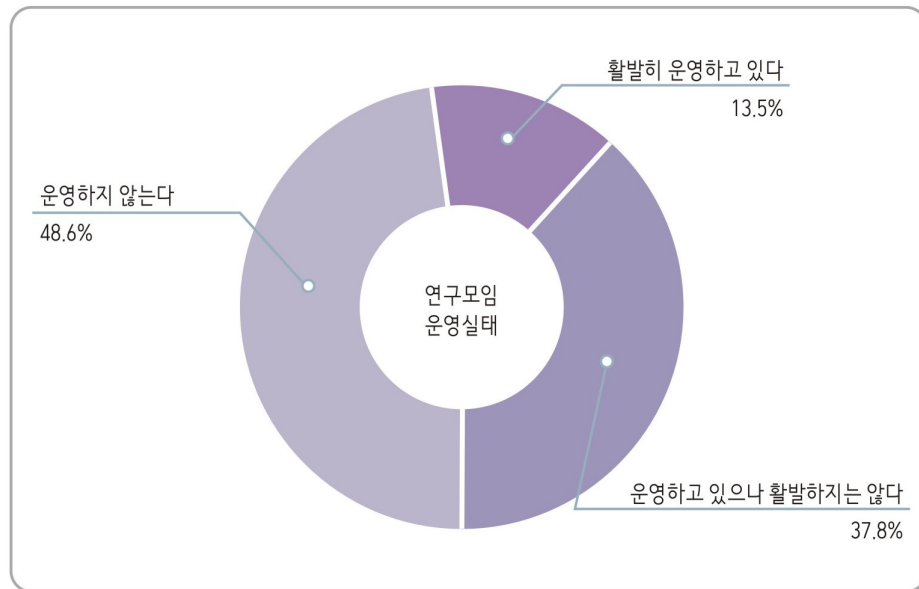
우선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의 연계·협력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12년 1학기 동안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의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를 살펴보았다. 개최 횟수만으로 연계의 강도와 밀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업무협의회도 자주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 기관 37개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34.2%의 기관이 지난 한 학기 동안 1회 또는 2회 업무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3회 개최했다는 응답이 14.3%로 나타나, 1~3회 개최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8.6%를 차지해, 일부 코디네이터 기관은 시범학교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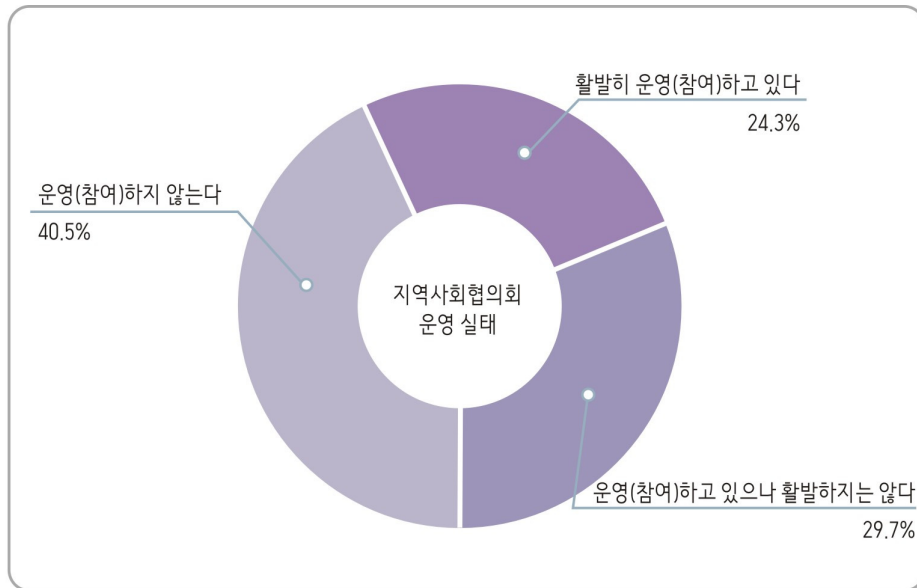
【그림 III-1】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

다음으로 코디네이터 기관 담당자와 시범학교 교사 간에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운영하고 있다면 얼마나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코디네이터 담당자와 시범학교 교사 간에 연구모임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8.6%로 거의 절반에 달한 반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13.5%에 불과했다. 한편 운영하고는 있으나 활발하지는 않다는 응답도 37.8%를 차지해,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교사 간의 연구모임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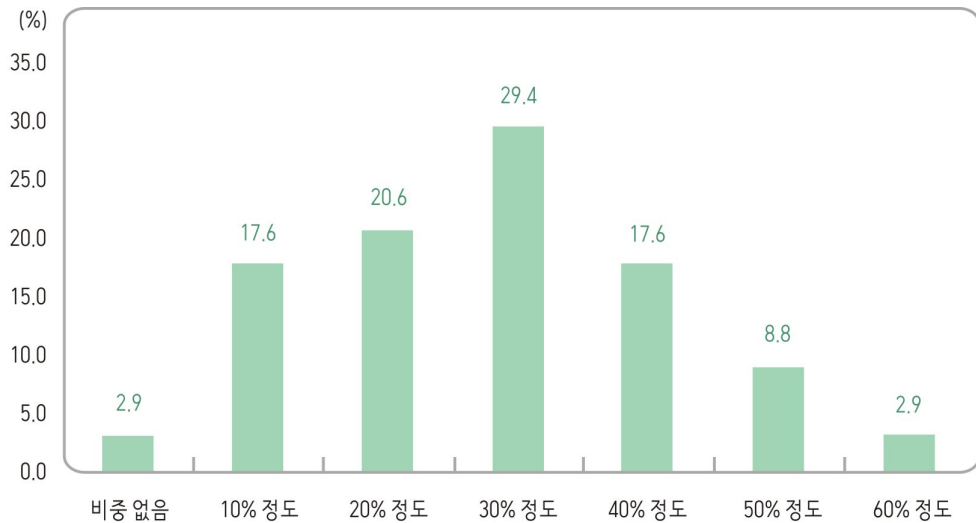
【그림 Ⅲ-2】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간 연구모임 운영 실태

코디네이터 기관이 지역사회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코디네이터 기관이 시범사업 관련 지역사회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참여하는지를 알아본 결과, 운영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5%, 운영(참여)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않다는 응답이 29.7%, 활발히 운영(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24.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3】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협의회 운영 실태

다음으로, 코디네이터 기관의 인력 자원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해당 코디네이터 기관에서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전담팀 구성원수를 파악해보았다. 조사 결과, 1명이 시범사업을 모두 담당한다는 응답이 41.7%로 가장 많았고, 2명이라는 응답이 33.3%로 1~2명으로 구성된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3/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례는 25%에 불과했다. 대체로 코디네이터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1/3에 약간 못 미치는 정도의 기관이 코디네이터 인력을 보강하는 등 시범사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5】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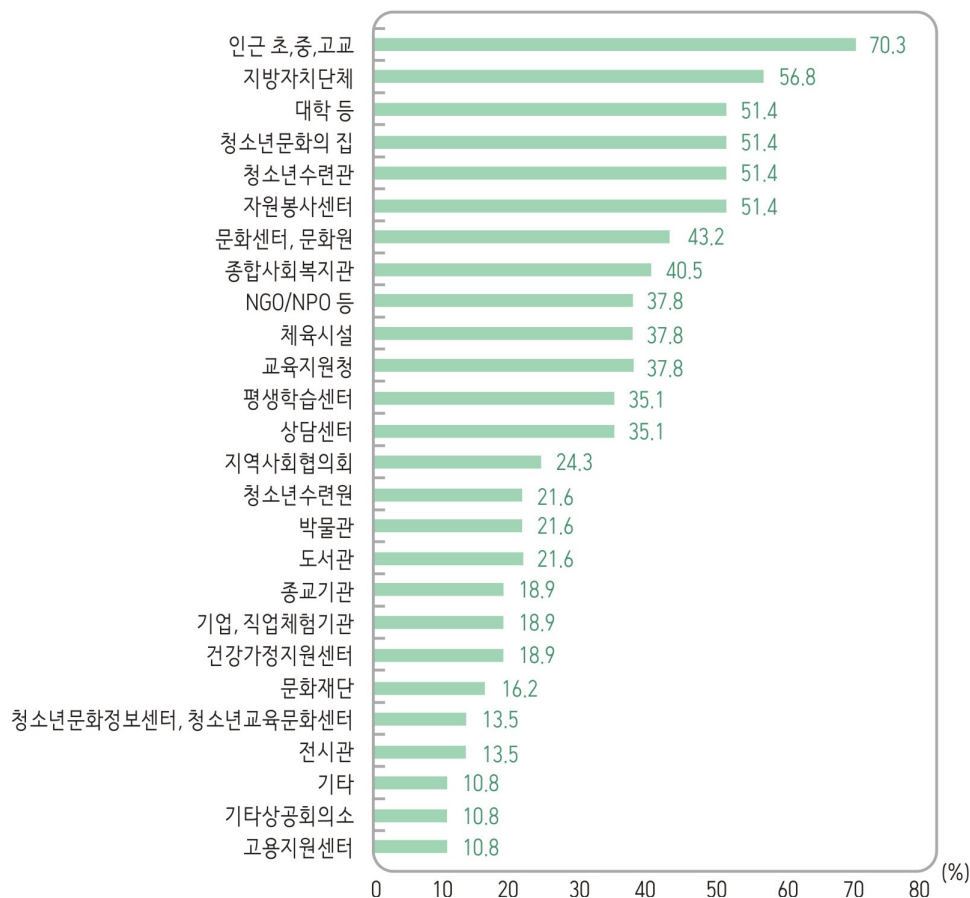
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실태

- 코디네이터 기관 한 개 당 평균 약 9개의 지역사회 자원과 교류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인근 초·중·고교, 지자체, 대학, 청소년 기관(수련관, 문화의 집 등), 자원봉사센터 등이 가장 빈번한 교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운영 실태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림 III-6]에는 선택지로 제시된 25개 지역사회 자원들 가운데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다고 선택한 응답 비중이 높은 기관 및 시설을 순서대로 제시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청소년 체험활동을 위해 주로 교류하는 기관 및 시설의 종류와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주로 교류하는 기관들로는 인근 초·중·등학교가 70.3%로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가 56.8%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학,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관, 자원봉사센터도 각각 51.4%의 응답자들이 상호교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비교적 교류가 활발한 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전시관 등은 코디네이터 기관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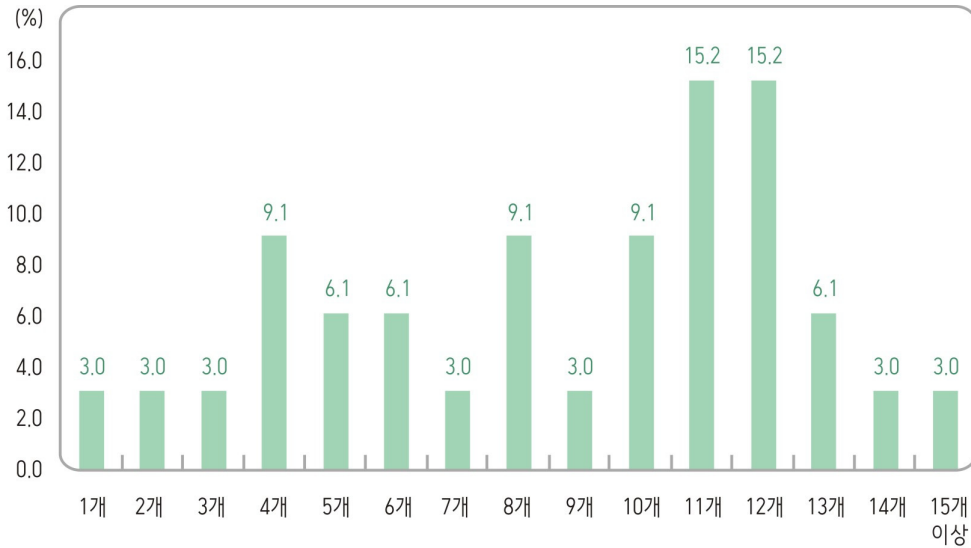
교류가 매우 드문 시설들로 확인되었는데, 이들 시설들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소재하고 있어 지리적 근접성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박물관, 도서관과 상호교류 한다는 응답도 전체 응답자의 21.6%에 그쳐 그다지 교류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육지원청과 연계·협력한다는 응답도 40%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림 Ⅲ-6】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상호교류 대상으로 선택한 비율

[그림 Ⅲ-7]과 [그림 Ⅲ-8]는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 자원과의 네트워크 밀도와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Ⅲ-7]은 코디네이터 기관이 선택지로 제시된 25개 지역사회자원 항목 가운데 몇 군데 시설이나 기관과 상호교류를 하고 있는지, 즉 교류기관의 개수를 보여준다. 전체 평균은 9.21로 나타나 대체로 하나의 코디네이터 기관이 9개 안팎의 지역사회 자원과 교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빈도별 분포에서는 11개, 12개 기관과 교류하는 경우가 각각 15.2%로 가장 많았다.

반면, 5개 이하로 교류하는 사례도 전체의 24.2%에 달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기관들 가운데 약 1/4 가량은 비교적 제한된 시설 및 기관들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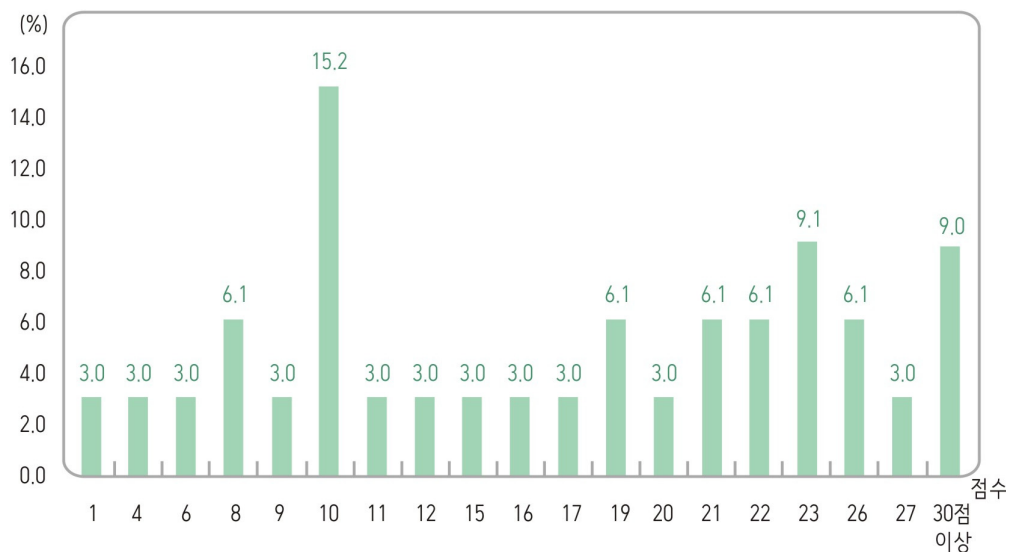
【그림 III-7】 코디네이터 기관이 상호교류하는 지역사회 내 시설 및 기관의 수

【그림 III-8】은 상호교류의 강도를 함께 고려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상호교류의 강도를 3단계(1단계: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2단계: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3단계: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 체결)⁹⁾로 구분하고, 1단계에 1점, 2단계에 2점, 3단계에 3점을 부여하여 관계의 강도를 고려해 네트워크 점수를 산출하였다. 단, 상호교류가 없는 경우는 0점을 부과하였다. 따라서 25개 항목에 대해 각각 0점~3점까지의 분포를 갖게 되므로, 0점~75점의 분포가 가능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상호교류하는 기관의 수가 많고 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코디네이터 기관의 네트워킹 점수의 평균값은 17.51점으로 분석되었다. 산출된 평균이 실제 가능한 분포(0점~78점) 중간값보다 훨씬 낮을 뿐만 아니라, 특히 네트워킹의 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산했던 【그림 III-7】의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산출한 결과는 네트워킹이 대부분 낮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분포의 형태를

9) 이 척도는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 발달단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송민경·김주현·이현주, 2005,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01-229)를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보면, 정규 분포 형태를 나타내기보다는 평균 이하와 이상 지점에 분포가 몰려 있는 일종의 쌍봉형 분포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들과 비교적 활발하고 긴밀하게 교류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대단히 제한된 자원들과 낮은 수준의 교류에 머물고 있는 기관들도 있다는 것이다.



【그림 III-8】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역사회 자원과의 상호교류 수준 (단계별 가중치 부여)

다.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자의 인식 및 평가

- ⦿ 코디네이터 기관 담당자들은 코디네이터 기관이 내실 있는 시범사업을 위해 대체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확산,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한 노력에 비해 코디네이터의 역량 개발을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 ⦿ 시범사업이 다른 사업보다 더 힘들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63.8%를 차지해,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 본 사업의 성과와 향후 기대효과 모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과반을 차지해, 사업의 필요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담당자의 인식 및 평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용의 성과와 애로 사항을 분석하였다. 관련 문항들은 크게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량 및 노력’, ‘시범사업 운영 실태’, ‘시범사업의 효과 및 성과’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먼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량과 노력 수준에 관한 조사 결과는 <표 III-7>에 제시되어 있다. 코디네이터 기관들은 대체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역의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자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가 긍정적(그렇다 59.5%+매우 그렇다 5.4%)인 반응을 보인 반면,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응답은 8.1%(그렇지 않다 2.7%+전혀 그렇지 않다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경향은 코디네이터 기관의 노력 수준을 묻는 여타 문항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지역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 대해서도 긍정적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70.3%를 차지하였고,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응답(그렇다+매우 그렇다)이 73%에 달했다. 같은 맥락에서 ‘코디네이터의 역량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도 54%(그렇다+매우 그렇다)에 달했다. 이처럼 코디네이터 기관의 담당자들은 코디네이터 기관의 사업 역량과 노력의 수준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다만 코디네이터의 역량 계발을 위한 노력의 경우, 여타 항목에 비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비중이 다소 낮게 나타난 점은 눈여겨 볼 점이다. 코디네이터의 역량 계발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표 III-7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량 및 노력에 대한 담당자 평가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①지역의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자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	2 (5.4)	1 (2.7)	10 (27.0)	22 (59.5)	2 (5.4)	37 (100.0)
②지역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2 (5.4)	9 (24.3)	22 (59.5)	4 (10.8)	37 (100.0)
③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1 (2.7)	9 (24.3)	22 (59.5)	5 (13.5)	37 (100.0)
④코디네이터의 역량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3 (8.1)	14 (37.8)	16 (43.2)	4 (10.8)	37 (100.0)

다음으로 <표 III-8>에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요소별로 운영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가 확고한가’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45.9%가 의지가 확고하다는 반응(그렇다 27.0%+매우 그렇다 18.9%)을 보인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은 16.2%에 그쳐, 긍정적 평가가 좀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평가가 전체 사례의 약 46%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수의 기관장들이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사업에 대해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III-8>에 제시된 항목들 가운데 ‘개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은 충실히 활용되고 있다’, ‘특화프로그램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반면 ‘시범사업 운영팀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운영팀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는 항목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9.7%에 그쳤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문항의 경우에는 긍정하는 반응(그렇다+매우 그렇다)이 29.7%, 부정하는 반응(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이 40.5%로 나타나 현장에서의 청소년주도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무자들이 체감하는 업무 부담에 관한 조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시범사업은 실무자들에게는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더 힘들다’는 항목에 대해 동의하는 반응이 63.8%(그렇다 44.4%+매우 그렇다 19.4%)로 전체 응답자의 약 2/3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범사업 운영팀은 전담팀으로 운영되길 기대하였으나, 현장의 현실상 어려움이 많다. 청소년기관의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하지 못해 사업담당자는 시범사업을 기존 업무에 대한 추가업무로 맡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I-8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자 평가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①시범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1 (2.7)	5 (13.5)	14 (37.8)	10 (27.0)	7 (18.9)	37 (100.0)
②시범사업은 실무자에게는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더 힘들다	1 (2.7)	5 (13.5)	7 (19.4)	16 (44.4)	7 (19.4)	36 (100.0)
③개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은 충실히 활용되고 있다	-	5 (13.5)	11 (29.7)	17 (45.9)	4 (10.8)	37 (100.0)
④시범사업 운영팀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3 (8.1)	7 (18.9)	16 (43.2)	9 (24.3)	2 (5.4)	37 (100.0)
⑤특화프로그램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	9 (24.3)	7 (18.9)	16 (43.2)	5 (13.5)	37 (100.0)
⑥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3 (8.1)	12 (32.4)	11 (29.7)	9 (24.3)	2 (5.4)	37 (100.0)

〈표 III-9〉에는 시범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담당자들은 청소년 체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모형의 기대효과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두 개 항목(‘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증가하였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졌다’)의 경우, 긍정적인 평가가 각각 54.0%(그렇다 45.9%+매우 그렇다 8.1%), 56.7%(그렇다 48.5%+매우 그렇다 8.1%)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 기대효과를 묻는 문항인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범학교의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는 항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그렇다+매우 그렇다)가 각각 62.2%, 54.0%로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결과에서 코디네이터 기관의 사업 담당자들은 운영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성과와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9 시범사업의 효과 및 성과에 대한 담당자 평가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①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증가하였다	-	6 (16.2)	11 (29.7)	17 (45.9)	3 (8.1)	37 (100.0)
②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졌다	-	3 (8.1)	6 (16.2)	18 (48.6)	3 (8.1)	30 (100.0)
③시범사업을 계기로 시범학교의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	3 (8.1)	11 (29.7)	19 (51.4)	4 (10.8)	37 (100.0)
④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	4 (10.8)	13 (35.1)	15 (40.5)	5 (13.5)	37 (100.0)

(2) 시범학교의 시범사업 운영실태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시범사업의 또 다른 파트너인 시범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 기본 운영 실태

- ① 창의적 체험활동을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하거나 모든 학년에 대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응답은 각각 42.7%, 41.5%로 나타난 반면,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은 61.0%로 더 높게 나타났다.
- ②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업무협의회는 학기 당 평균 2-3회 가량 개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협의회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반응이 90.2%로 높게 나타났다.
- ③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연구모임은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로 과반을 차지해,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범학교의 시범사업 운영 실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교사들의 참여 수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식, 그리고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연계·협력 실태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시범학교 교사들의 참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학교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한 82개교 담당자 가운데 84.1%에 해당하는 69명이 긍정적인 반응(그렇다 46.3%+매우 그렇다 37.8%)을 보여, 시범학교에서 체험활동에 관한 교사들의 참여와 협조는 비교적 무리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더 우세한 경향이 있었다.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강한 긍정적 평가의 경우, 고등학교에서는 26.1%의 응답비율을 보인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51.6%의 응답률을 나타내 약 2배 가량 더 높게 파악되었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조사 사례수가 82개로 적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례수가 확대된다면 유의한 차이가 발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체험활동에 대한 시범학교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수준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d.f.)
초등학교	—	0(0.0)	2(6.5)	13(41.9)	16(51.6)	31(100.0)	7.274 (d.f.=6)
중학교	—	1(3.6)	5(17.9)	13(46.4)	9(32.1)	28(100.0)	
고등학교	—	0(0.0)	5(21.7)	12(52.2)	6(26.1)	23(100.0)	
전체	—	1(1.2)	12(14.6)	38(46.3)	31(37.8)	82(100.0)	

〈표 III-11〉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매월 1-2일을 할애하여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하는지,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조사하였다. 전자의 2가지 방식은 비교적 시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마지막에 제시된 세 번째 방식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구현하는 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시사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42.7%,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7.3%로 나타났으며,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응답은 41.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8.5%로 나타나, 대략적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10개 중 4개 학교는 보다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응답은 61.0%,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39.0%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 약 60% 가량은 기존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는 경향이 있으며, 약 40%의 학교들은 나름대로 변화를 주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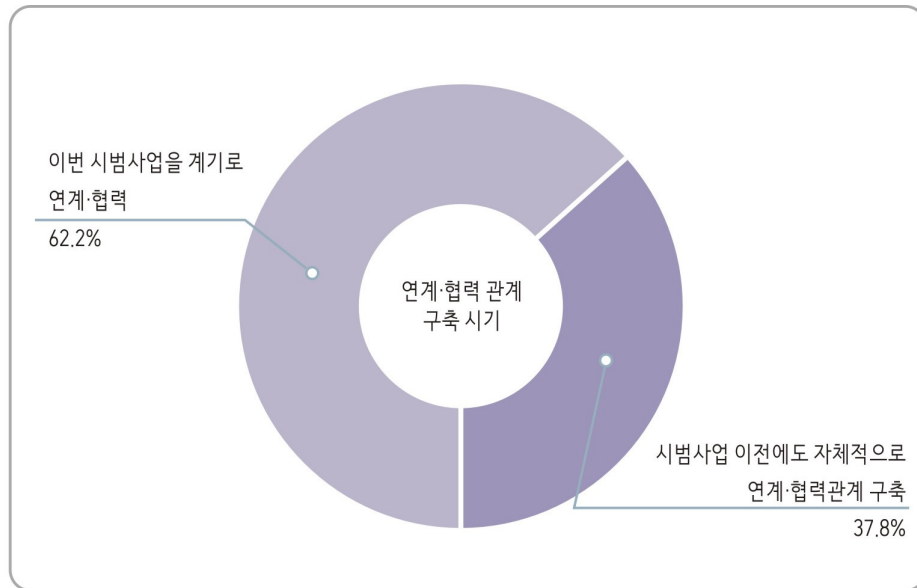
표 III-II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식

(단위: 명, %)

문항	그렇다	아니다	전체
①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한다	35(42.7)	47(57.3)	82(100.0)
②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34(41.5)	48(58.5)	82(100.0)
③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50(61.0)	32(39.0)	82(100.0)

다음으로 시범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연계·협력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연계·협력관계 구축 시기, 연간계획 공동 수립여부 및 향후 계획,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 및 만족도, 연구모임 운영 여부, 연계·협력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에 관해 조사해보았다.

먼저, 조사 대상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이 언제부터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는지와 관련하여,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처음으로 연계·협력하게 되었다’ 는 응답이 62.2%, ‘시범사업 전에도 자체적으로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는 응답이 37.8%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교들이 시범사업을 계기로 코디네이터 기관과 네트워킹의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9】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연계·협력 관계 구축 시기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이 체험활동 관련 연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두 기관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수준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사업을 시행하는 두 기관이 애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프로그램을 구상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2년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했다는 응답은 79.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7%로 나타나, 시범사업에 참여한 학교들은 대부분 연간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협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조사에 응한 82개교 가운데 약 21%에 해당하는 17개교는 연간 운영계획을 함께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적지 않은 비중의 학교가 초기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향후 계획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에 해당하는 93.9%의 학교가 코디네이터 기관과 공동으로 체험활동 관련 연간 계획을 수립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을 보여, 공동 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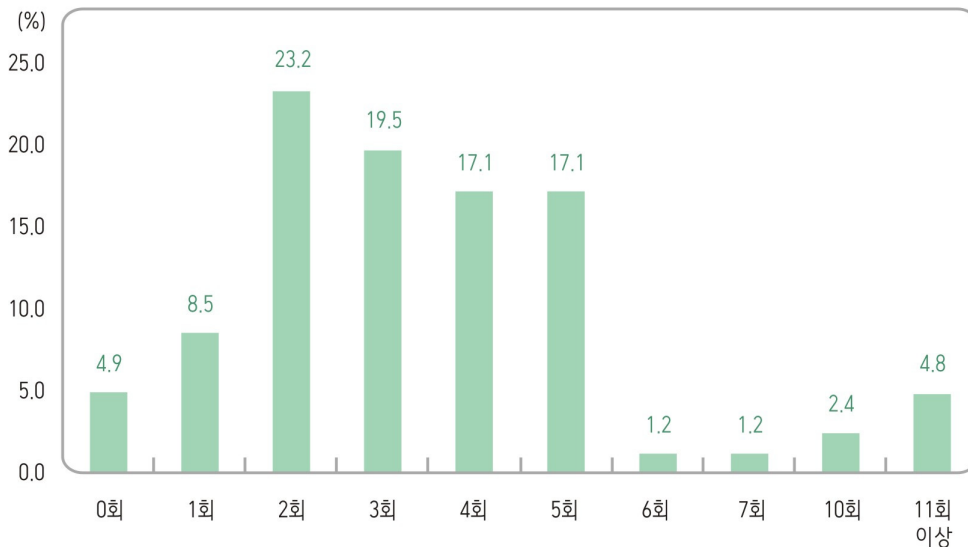
표 III-12

체험활동 관련 연간 공동계획 수립 여부 및 향후계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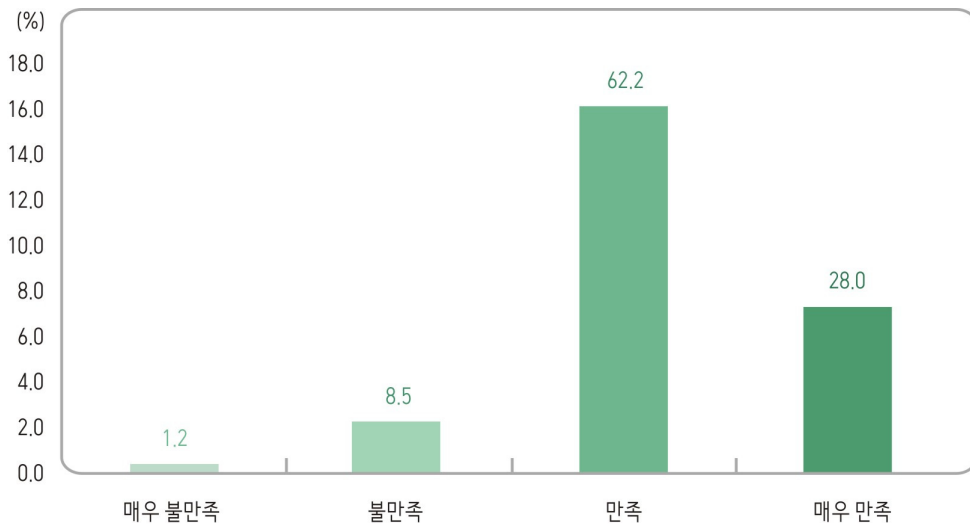
문항	그렇다	아니다	전체
① 2012년 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65(79.3)	17(20.7)	82(100.0)
② 향후 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할 의향이 있다	77(93.9)	5(6.1)	82(100.0)

다음으로 지난 한 학기 동안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를 조사해보았다. 분석 결과, 한 학기 동안 2회 개최했다는 응답이 23.2%로 가장 많았고, 3회 개최했다는 응답이 19.5%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사례가 전체의 42.7%를 차지해, 약 절반 가량의 학교들이 한 학기 당 평균 2-3회 정도 업무협의회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회 또는 5회 개최했다는 응답은 각각 17.1%로 나타났으며, 6회 이상 개최했다는 응답은 약 9.6%(6회 1.2%, 7회 1.2%, 10회 2.4%, 11회 이상 4.8%)로 파악되었다. 반면 한 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1번 개최했다는 응답도 전체 사례수의 13.4%를 차지해, 아직까지 현장에서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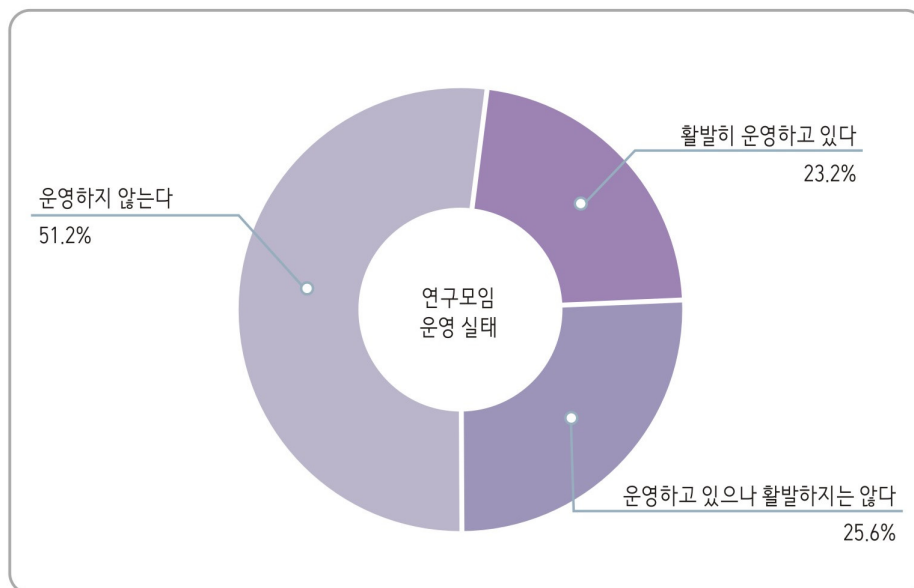
【그림 III-10】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연계협력수준은 업무협의회 개최 빈도와 같은 양적 지표와 더불어, 만족도와 같은 질적 측면을 통해서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업무협의회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해보았다.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반응이 90.2%(만족 62.2%+매우 만족 28.0%)로 나타나, 시범학교 담당교사들은 대부분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업무협의회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9.7%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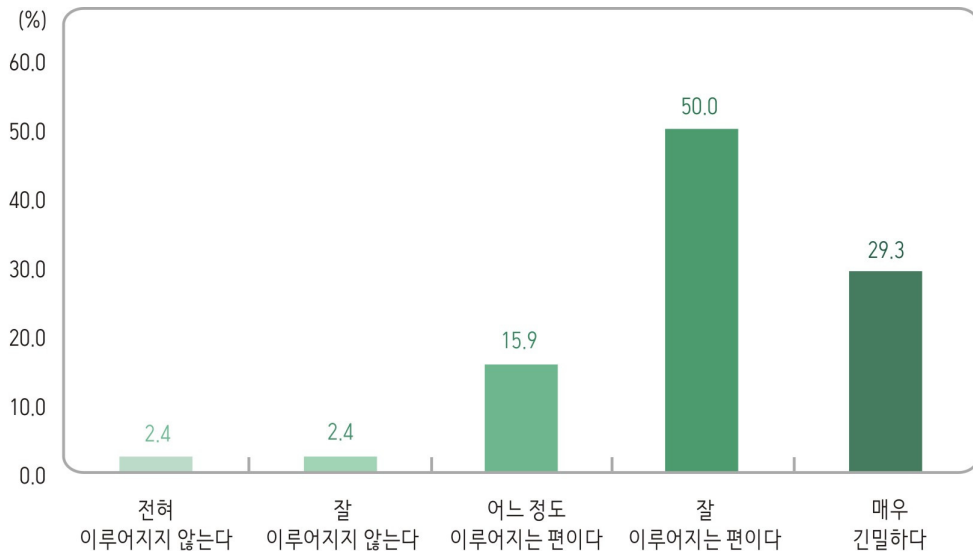
【그림 III-11】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업무협의회 만족도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연구모임 운영 여부도 두 기관 간의 자발적인 연계협력 수준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조사 결과, 연구모임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1.2%로 과반을 차지했으며, 운영하고 있지만 활발하지는 않다는 응답이 25.6%,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23.2%로 나타나는 등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에 연구모임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2】 시범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연구모임 운영 실태

마지막으로,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 연계·협력 실태와 관련하여 실무자들에게 협조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주관적 평가를 내리게 해 보았다. 그 결과, 조사에 응한 82개교 가운데 약 90%에 달하는 학교들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29.3%의 학교가 코디네이터 기관과 매우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였고,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평가도 50%에 달했다. 그리하여 긍정적 평가가 전체 응답자의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편’이라는 유보적 입장은 15.9%,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2.4%,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2.4% 등으로 나타나, 부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III-13】 시범학교-코디네이터 기관 간 협조 수준

나.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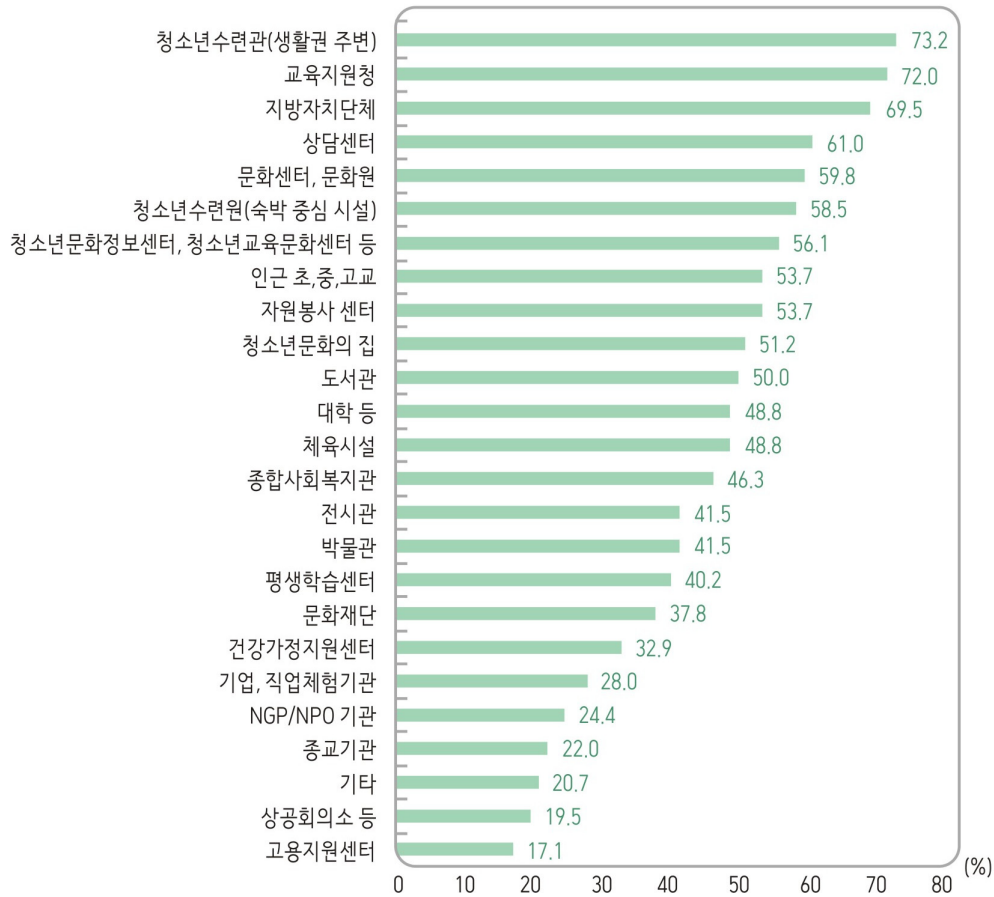
- 시범학교들은 제시된 25가지 종류의 지역사회 자원 가운데 평균 11.3개 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청소년수련관이 7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그 밖에 교육지원청(72%), 지방자치단체(69.5%), 상담센터(61.0%) 순으로 파악되었다.
-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실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서,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는 평균 13.8개, 중소도시 9.7개, 읍면지역 9.3개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시범학교들이 지역사회 자원과 구축하고 있는 연계·협력 실태를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시범학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총 25개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각 선택지별로 상호교류 여부와 교류수준을 답하도록 하였다. 교류수준은 앞서 살펴본 시범 기관에 대한 조사에서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여 총 3단계로 나누어 측정되었는데, 단순 정보교류 및 의견교환이 이루어진 경우는 1단계,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가 이루어진 경우는 2단계, 그리고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3단계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그림 Ⅲ-14]는 학교들이 25개 기관 가운데 어떤 기관과 가장 많이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82개교 가운데 73.2%에 해당하는 60개교가 주변의 청소년수련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교육지원청과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응답이 72%, 지방자치단체가 69.5%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상담센터, 문화센터·문화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인근 초·중·고교, 자원봉사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도서관 등이 50% 이상의 응답률을 보여, 일선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때 주로 이들 기관과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에 비해 고용지원센터, 상공회의소, 조교기관, NGO/NPO, 기업·직업체험기관 등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킹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이들 기관이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등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림 III-14】 기관별 상호교류 실태(시범학교)

〈표 III-13〉과 〈표 III-14〉에는 학교가 지역사회 자원과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선택지로 제시된 25개 기관 가운데 학교당 평균 몇 개 기관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그리고 연계·협력의 강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본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III-13〉은 학교별 평균 연계·협력 기관수를 단순 합계낸 것이며, 〈표 III-14〉는 여기에 연계·협력의 강도를 고려하여 1단계(단순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협력일 경우에는 1점, 2단계(물적자원 교류 또는 인적자원 교류) 협력은 2점, 3단계 협력(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3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것이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하고 아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별 연계·협력 실태에서는 학교급과 지역별로 모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연계·협력 기관수의 경우, 선택지로 제시된 25개 기관 가운데 초등학교가 평균 12.9개, 고등학교가 13.0개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비슷한 수준을 보인 반면,

중학교는 8.1개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기관들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같은 차이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대도시 소재 학교들이 평균 13.8개 기관과 어떠한 형태로든 네트워크 관계를 맺고 있는 데 비해, 중소도시 9.7개, 읍면지역 9.3개로 이들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적은 수의 기관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학교들이 대도시 학교를 보다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이 적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13 시범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연계·협력 기관 수

구분		연계·협력 기관수			
		n	M(S.D)	F	사후검증
학교급	① 초등학교	31	12.9(6.6)	4.719*	①-②*
	② 중학교	28	8.1(6.0)		②-③*
	③ 고등학교	23	13.0(7.7)		
지역	① 대도시	34	13.8(7.9)	4.105*	①-③*
	② 중소도시	25	9.7(6.0)		
	③ 읍면지역	23	9.3(5.6)		
전체		82	11.3(7.0)	-	

* $p<.05$, ** $p<.01$

〈표 III-14〉에는 연계협력 단계를 함께 고려한 분석결과가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급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각각 21.7점, 23.0점으로 나타난 데 비해, 중학교는 13.8점으로 나타나 연계 기관수와 연계 강도에서 모두 초등학교나 고등학교보다 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 23.5점, 중소도시 17.3점, 읍면지역 15.5점으로 나타나, 도시규모가 클수록 네트워크 정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시범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연계·협력 강도(가중치 고려)

구분		연계·협력 강도(가중치 고려)			
		n	M(S.D)	F	사후검증
학교급	① 초등학교	31	21.7(10.6)	5.135**	①-②* ②-③*
	② 중학교	28	13.8(9.3)		
	③ 고등학교	23	23.0(14.7)		
지역	① 대도시	34	23.5(13.9)	3.801*	①-③*
	② 중소도시	25	17.3(10.8)		
	③ 읍면지역	23	15.5(8.6)		
전체		82	11.3(7.0)	—	

*p<.05, **p<.01

다. 시범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및 평가

-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인력이나 기관이 필요한지에 대해 응답자의 93.9%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61.0%+필요한 편이다 32.9%)는 반응을 보여,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 관련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시, 학교의 역할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응답자인 40.2%가 ‘여타 기관 및 자원이 중심이 되고 학교는 단순 참여’ 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에 대해 ‘좋은 프로그램’ 이 34.1%로 수위를 차지하였고, ‘지역사회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 이 28.0%로 운영 예산’ 이 필요하다는 응답(19.5%)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해, 시범학교 담당자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학생지도 또는 교육에 활력소가 된다’ 는 문항의 경우,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학교급이 낮을수록 그 같은 경향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82.9%(그렇다 46.3%+매우 그렇다 36.6%)의 응답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지도 또는 교육에 활력소가 된다고 답한 가운데,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96.8%, 중학교 82.1%, 고등학교 65.2%의 응답비율을 나타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간에 약 30%p의 격차를 보여주었다. 특히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61.3%, 고등학교 21.7%로 양자 간에 약 3개 가량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문항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9%(전혀 그렇지 않다 22.6%+그렇지 않다 32.3%)로 과반을 차지한 데 비해, 중학교는 17.8%, 고등학교는 33.7%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의 경우에는 초등학교는 19.3%(그렇다 16.1%+매우 그렇다 3.2%)에 불과한 반면, 중학교는 35.7%, 고등학교는 47.8%가 이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학습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대입을 앞두고 있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은 차이는 $p < .10$ 의 완화된 수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조사에 응한 사례수가 82개교로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사례수가 증가한다면 의미 있는 차이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5일 수업제 전면도입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가’를 물어본 결과, 29.3%(그렇다 19.5%+매우 그렇다 9.8%)의 응답자들이 어려움을 야기했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중학교에서 46.4%(그렇다 32.1%+매우 그렇다 1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그에 비해 초등학교에서는 64.5%(전혀 그렇지 않다 29.0%+그렇지 않다 35.5%)가 그렇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종합해보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대체로 우호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운영 과정에서 애로점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에 비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중고등학교가 교과별로 운영되는 데 비해 초등학교는 담임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교과공부와 입시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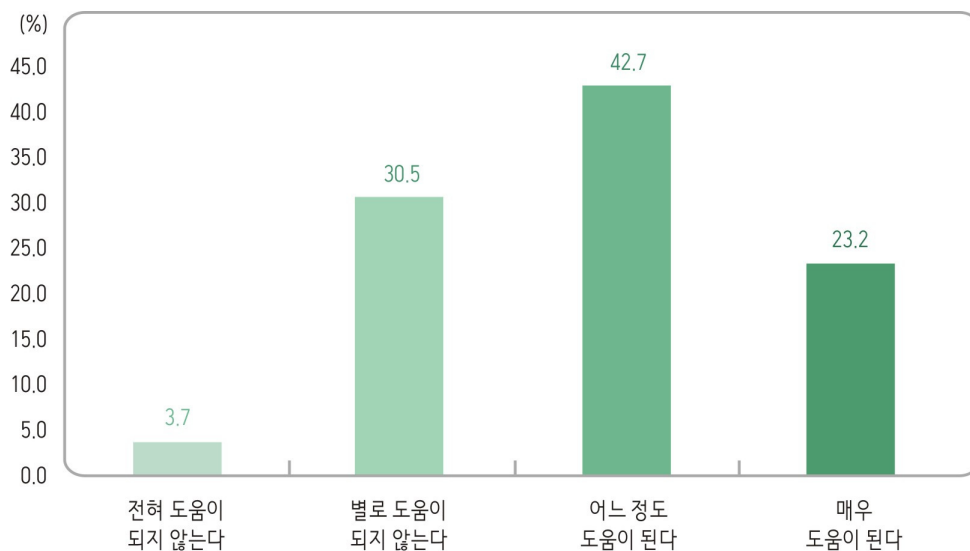
표 III-15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교 현장 분위기(시범학교 교사)

(단위: 명, %)

문항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d.f.)
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학생지도 또는 교육에 활력소가 된다	초	—	0 (0.0)	1 (3.2)	11 (35.5)	19 (61.3)	31 (100.0)	20.541** (d.f.=6)
	중	—	0 (0.0)	5 (17.9)	17 (60.7)	6 (21.4)	28 (100.0)	
	고	—	2 (8.7)	6 (26.1)	10 (43.5)	5 (21.7)	23 (100.0)	
	전체	—	2 (2.4)	12 (14.6)	38 (46.3)	30 (36.6)	82 (100.0)	
②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초	7 (22.6)	10 (32.3)	8 (25.8)	5 (16.1)	1 (3.2)	31 (100.0)	13.753 † (d.f.=8)
	중	3 (10.7)	2 (7.1)	13 (46.4)	7 (25.0)	3 (10.7)	28 (100.0)	
	고	3 (13.0)	5 (21.7)	4 (17.4)	9 (39.1)	2 (8.7)	23 (100.0)	
	전체	13 (15.9)	17 (20.7)	25 (30.5)	21 (25.6)	6 (7.3)	82 (100.0)	
③ 주5일 수업제 전면도입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초	9 (29.0)	11 (35.5)	5 (16.1)	3 (9.7)	3 (9.7)	31 (100.0)	13.281 (d.f.=8)
	중	2 (7.1)	7 (25.0)	6 (21.4)	9 (32.1)	4 (14.3)	28 (100.0)	
	고	2 (8.7)	8 (34.8)	8 (34.8)	4 (17.1)	1 (4.3)	23 (100.0)	
	전체	13 (15.9)	26 (31.7)	19 (23.2)	16 (19.5)	8 (9.8)	82 (100.0)	

*p<.05, **p<.01

다음으로, 창의체험자원지도가 체험활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III-15]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65.9%(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42.7%+매우 도움이 된다 23.2%)로 주류를 이루었으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34.2%에 달해, 전체 응답자의 1/3 이상은 창의체험자원지도의 효용성을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림 III-15】 창의체험자원지도의 유용성 (시범학교 교사)

한편, <표 III-16>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인력이나 기관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에 응한 82개교의 담당자 가운데 61.0%에 해당하는 50명이 ‘매우 필요하다’ 는 반응을 보였으며, 32.9%가 ‘필요한 편이다’ 는 반응을 보여, 전체적으로 93.9%의 응답자가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 관련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요가 무척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기에서는 지역 간에 응답 양상에 다소 차이가 있어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 는 응답이 50%대의 비율을 보인 데 비해 대도시에서는 70.6%의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표 III-16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시범학교 교사) (단위: 명, %)

지역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 다	전체	χ^2 (d.f.)
대도시	-	0 (0.0)	0 (0.0)	10 (29.4)	24 (70.6)	34 (100.0)	14.001* (d.f.=6)
중소도시	-	1 (4.0)	0 (0.0)	10 (40.0)	14 (56.0)	25 (100.0)	
읍면지역	-	0 (0.0)	4 (17.4)	7 (30.4)	12 (52.2)	23 (100.0)	
전체	-	1 (1.2)	4 (4.9)	27 (32.9)	50 (61.0)	82 (100.0)	

*p<.05, **p<.01

다음으로 시범사업을 함께 운영한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코디네이터 기관의 담당자, 코디네이터의 전문적 역량,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강사,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프로그램 등 조사대상으로 삼은 모든 항목에 대해 만족한다는 반응(만족+매우 만족)이 90%를 상회하여, 대체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매우 만족한다는 강한 긍정의 경우, 코디네이터 기관 담당자에게 만족한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고,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강사의 경우에는 32.9%로 4개 항목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 양자 간에 약 20%p 가량 차이를 보였다.

표 III-17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만족도(시범학교 교사) (단위: 명, %)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① 코디네이터 기관의 담당자	-	4(4.9)	35(42.7)	43(52.4)	82(100.0)
② 코디네이터의 전문적 역량	-	8(9.8)	42(51.2)	32(39.0)	82(100.0)
③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강사	-	1(1.2)	54(65.9)	27(32.9)	82(100.0)
④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프로그램	-	2(2.4)	47(57.3)	33(40.2)	82(100.0)

〈표 III-18〉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에 대한 향후 전망에 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조사 결과, 시범사업처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는 98.7%에 해당하는 절대 다수의 담당자들이 동의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 가운데 70.7%가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여, 학교 현장에서도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코디네이터 기관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필요하다는 데도 67.1%의 응답자가 매우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31.7%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수요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범사업 담당 교사들은 학교 내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데는 다소 의견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72%가 동의, 28.1%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동의하는 의견이 더 우세했지만, 앞서 살펴본 두 개 항목에 비해 동의 비율이 다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킹 강화를 통해 체험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학교 내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91.5%가 대체로 긍정하는 반응을 보이는 등 시범사업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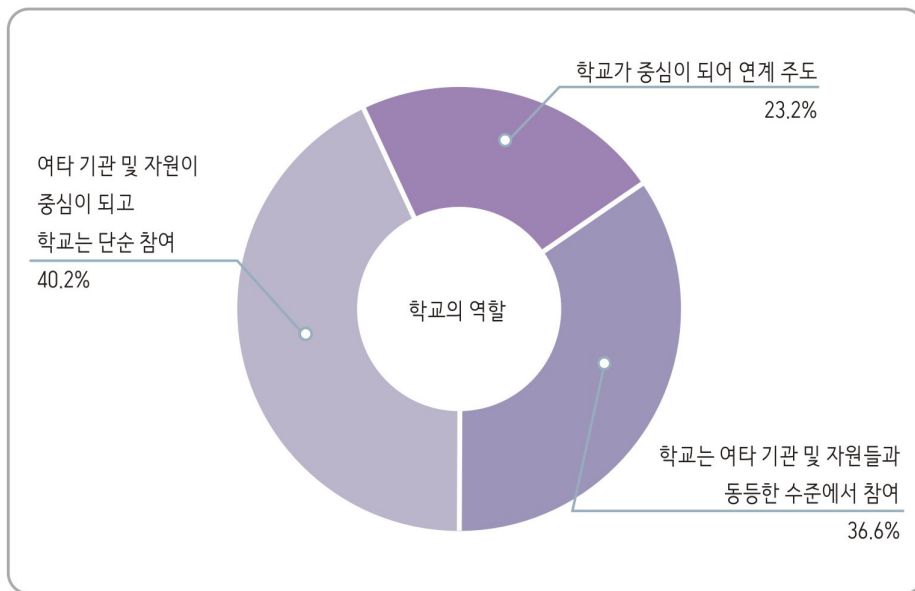
표 III-18 시범사업에 대한 의견(시범학교 교사)

(단위: 명, %)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①본 시범사업처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1(1.2)	23(28.0)	58(70.7)	82(100.0)
②코디네이터 기관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필요하다	-	1(1.2)	26(31.7)	55(67.1)	82(100.0)
③학교 내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3(3.7)	20(24.4)	34(41.5)	25(30.5)	82(100.0)
④본 사업을 계기로 학교 내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	7(8.5)	50(61.0)	25(30.5)	8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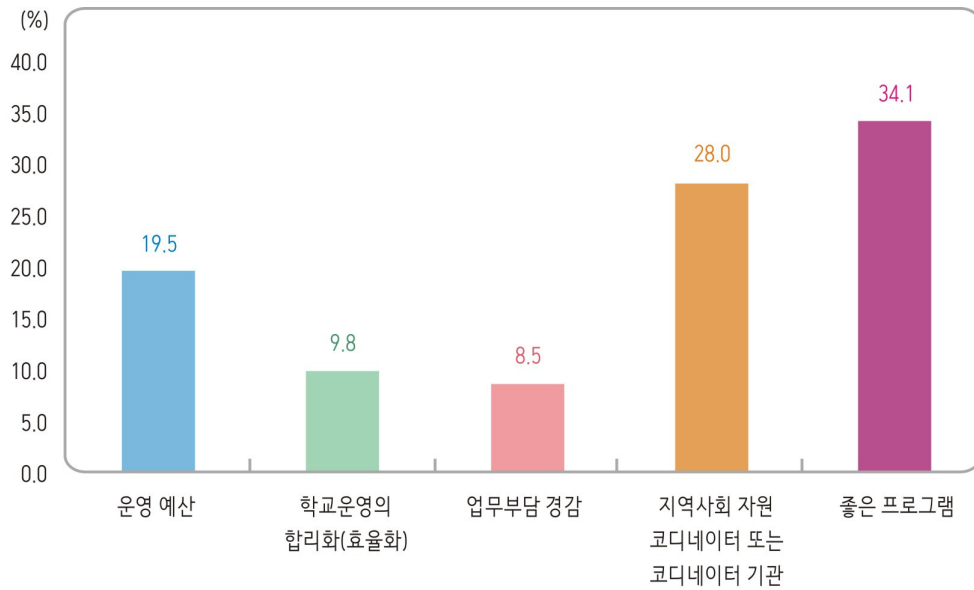
앞서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매우 깊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림 III-16]에 제시된 것처럼, 시범사업 담당 교사 가운데 40.2%는 ‘여타 기관 및 자원이 중심이 되고 학교는 단순 참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여 가장 높은

응답비중을 보여주었고, ‘학교는 여타 기관 및 자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참여’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도 36.6%로 대동소이한 비율을 나타냈다. 그에 비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연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3.2%로 약 10%p 이상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 교사들은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체감하고 있지만, 학교가 이러한 연계의 중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III-16】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시 학교의 역할(시범학교 교사)

마지막으로 [그림 III-17]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가장 필요한 요인이 무엇인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체험활동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반응을 보였고(34.1%),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8.0%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9.5%, ‘학교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9.8%, 업무 부담 경감 8.5% 순으로 파악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양질의 콘텐츠와 이러한 콘텐츠의 소재(所在)를 확인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자원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그림 Ⅲ-17】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의 필요 요인(시범학교 교사)

2) 일반 학교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 및 인식 조사

앞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전국의 초·중·고 300개 학교의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보다 일반적인 인식과 운영 실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1)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 대상 조사

표집 대상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는 앞서 시범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i)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운영 실태, ii)지역사회 연계 실태, 그리고 iii)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담당 교사들의 인식 및 평가로 대별하여 제시하였다.

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데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35.5%)보다 우세하였다.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형태와 관련하여,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한다는 응답은 32.8%, 모든 학년에 대해서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응답은 39.5%로 40%에 채 못 미친 반면,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하게 운영한다는 응답은 78.2%를 차지했다.
- 창의적 체험활동자료지도(CRM)의 유용성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47.1%,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24.6%로 나타났다. 특히 '잘 모르겠다' 는 응답도 28.3%를 차지했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도

일선 학교 현장에서 목도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실태는 해당 활동에 교사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를 통해 가늠해볼 수 있다. 이에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속학교의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그런 편이다' (41.8%)와 '매우 그렇다' (37.1%)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해, 시범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였다. 특히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19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도(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	0 (0.0)	5 (5.4)	37 (39.8)	51 (54.8)	93 (100.0)	34.09** (d.f.=9)
중학교	-	3 (2.9)	21 (20.6)	52 (51.0)	26 (25.5)	102 (100.0)	
일반계고	-	3 (3.8)	23 (28.8)	29 (36.3)	25 (31.3)	80 (100.0)	
특성화고	-	1 (4.2)	7 (29.2)	7 (29.2)	9 (37.5)	24 (100.0)	
전체	-	7 (2.3)	56 (18.7)	125 (41.8)	111 (37.1)	299 (100.0)	

*p<.05, **p<.01

②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외부 인력 및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데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이 41.8%(그런 편이다 35.2%+매우 그렇다 6.6%)로 나타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9.3%+그렇지 않다 26.2%)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는다는 응답이 과반에 이르지 못하고, 양자간에 약 6%p의 비교적 적은 격차를 보여주어,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이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그다지 일반화되어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응답 패턴에 학교급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II-20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한 외부의 도움 수혜 여부(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6 (6.5)	28 (30.1)	20 (21.5)	30 (32.3)	9 (9.7)	93 (100.0)	12.18 (d.f.=12)
중학교	13 (12.7)	21 (20.6)	19 (18.6)	42 (41.2)	7 (6.9)	102 (100.0)	
일반계고	6 (7.3)	23 (28.0)	24 (29.3)	25 (30.5)	4 (4.9)	82 (100.0)	
특성화고	3 (12.5)	7 (29.2)	5 (20.8)	9 (37.5)	0 (0.0)	24 (100.0)	
전체	28 (9.3)	79 (26.2)	68 (22.6)	106 (35.2)	20 (6.6)	301 (100.0)	

*p<.05, **p<.01

③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형태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형태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하는지, ii)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지, 혹은 iii)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먼저,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7.2%로 나타나, 그렇다는 응답(32.8%)보다 2배 가량 더 높게 파악되었다. 이 같은 운영 방식은 학교급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한다는 응답이 10.7%에 불과한 반면, 중학교에서는 4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고등학교는 36% 수준으로 파악되어,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21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초등학교	8 (10.7)	67 (89.3)	75 (100.0)	25.61** (d.f.=3)
중학교	44 (46.8)	50 (53.2)	94 (100.0)	
일반계고	27 (36.5)	47 (63.5)	74 (100.0)	
특성화고	8 (36.4)	14 (63.6)	22 (100.0)	
전체	87 (32.8)	178 (67.2)	265 (100.0)	

*p<.05, **p<.01

한편,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파악한 바에 따르면, 초·중·고 모두 그렇지 않다는 반응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61.3%, 중학교의 54.3%, 일반계고의 64.0%, 특성화고의 71.4%가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중학교에서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한다는 비율이 45.7%로 나타나 여타 학교급에 비해 약 10% 가량 더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표 III-22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초등학교	29 (38.7)	46 (61.3)	75 (100.0)	2.91 (d.f.=3)
중학교	42 (45.7)	50 (54.3)	92 (100.0)	
일반계고	27 (36.0)	48 (64.0)	75 (100.0)	
특성화고	6 (28.6)	15 (71.4)	21 (100.0)	
전체	104 (39.5)	159 (60.5)	263 (100.0)	

*p<.05, **p<.01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제시된 선택지는 체험활동을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여부이다. 조사 결과, 전체적으로 78.2%에 해당하는 다수의 학교들이 현재 체험활동을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초등학교에서 85.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일반계고에서 7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이 같은 학교급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표 III-23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하게 운영(일반학교)(단위: 명, %)

학교급	그렇다	아니다	전체	χ^2
초등학교	75 (85.2)	13 (14.8)	88 (100.0)	4.87 (d.f.=3)
중학교	75 (77.3)	22 (22.7)	97 (100.0)	
일반계고	57 (71.3)	23 (28.8)	80 (100.0)	
특성화고	19 (79.2)	5 (20.8)	24 (100.0)	
전체	226 (78.2)	63 (21.8)	289 (100.0)	

④ 창의체험자원지도(CRM)의 유용성

창의체험자원지도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7.7%,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9.4%로 나타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잘 모르겠다’는 반응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CRM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효과가 크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창의체험자원지도의 유용성(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잘 모르 겠음	전체	χ^2
초등학교	1 (1.1)	16 (17.6)	38 (41.8)	9 (9.9)	27 (29.7)	91 (100.0)	14.65 (d.f.=12)
중학교	10 (9.7)	23 (22.3)	39 (37.9)	11 (10.7)	20 (19.4)	103 (100.0)	
일반계고	6 (7.6)	12 (15.2)	26 (32.9)	7 (8.9)	28 (35.4)	79 (100.0)	
특성화고	1 (4.2)	4 (16.7)	9 (37.5)	1 (4.2)	9 (37.5)	24 (100.0)	
전체	18 (6.1)	55 (18.5)	112 (37.7)	28 (9.4)	84 (28.3)	297 (100.0)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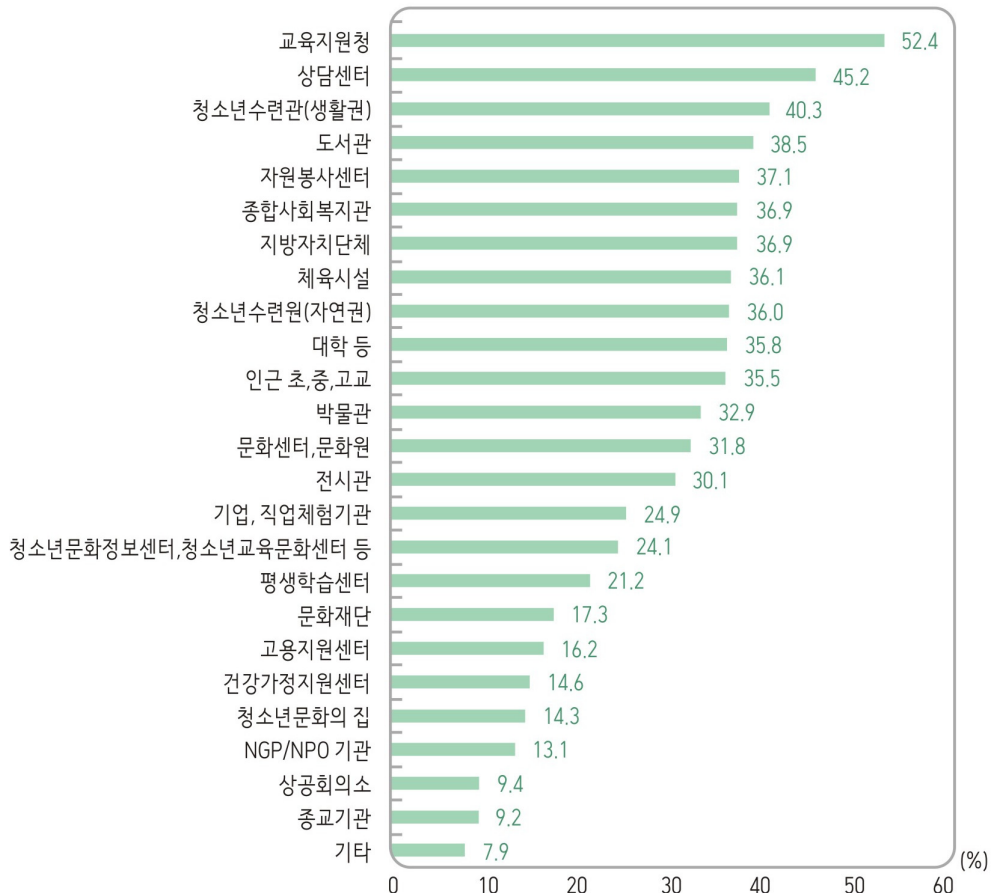
나. 지역 사회 연계협력 실태

- ⊙ 조사 대상 학교들은 제시된 25개 유형의 지역사회자원 가운데 평균 7개 유형의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가 가장 흔히 네트워크링 하는 지역사회 자원은 교육지원청(52.4%), 상담센터(45.2%), 청소년수련관(40.3%), 도서관(38.5%), 자원봉사센터(37.1%) 등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운영 실태를 개괄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지역 사회 자원과의 연계협력 실태를 점검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서도 시범사업 참여 학교에 대한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일선 학교들이 어떤 기관과 가장 많이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를 개괄한 후, 선택지로 제시된 25개 기관별로 연계협력 여부를 단순 합산한 결과와 더불어 연계협력의 강도를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합산점수의 결과를 함께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기관별 상호교류 실태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300개 학교들이 가장 많이 연계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은 교육지원청으로 52.4%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교육지원청은 사실상 일선 학교와 어떤 형태로든 교류할 수밖에 없는 교육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맺고 있는 네트워크는 발굴된 지역 사회자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기관은 상담센터(45.2%)로 파악된다. 그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40.3%), 도서관(38.5%), 자원봉사센터(37.1%) 등이 뒤를 이었다.



【그림 III-18】 기관별 상호교류 실태(일반학교)

학교와 지역사회 내 외부 자원과의 연계협력 실태를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기 위해, 연계협력기관수와 강도를 고려한 지수를 산출하여 학교급별·지역별로 비교해보았다. 먼저,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학교당 제시된 25개 유형 가운데 약 7개 유형과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고가 9.6개로 가장 많았고, 여타 초·중·고교는 모두 6개~7개 사이의 분포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5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 학교급별 연계·협력 기관 수(일반학교)

구분		연계·협력 기관수			
		n	M(S.D)	F	사후검증
학교급	① 초등학교	93	6.88(5.90)	1.503	—
	② 중학교	103	6.77(6.85)		
	③ 일반계고	80	6.57(5.32)		
	④ 특성화고	24	9.56(8.20)		
전체		300	6.98(6.32)	—	

다음으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1차적으로 학교급을 구분한 뒤, 동일한 학교급 내에서 지역별 비교한 결과를 <표 III-26>에 제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경우, 대체로 대도시에서 여타 지역에 비해 연계·협력하는 기관수가 더 많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읍면지역의 연계·협력기관수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 같은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수의 합계에서 학교급이나 지역별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II-26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 학교급별 지역별 연계·협력 기관 수(일반학교)

구분		연계·협력 기관수			
		n	M(S.D)	F	사후검증
초등학교	① 대도시	39	7.74(6.89)	0.748	-
	② 중소도시	38	6.10(5.26)		
	③ 읍면지역	16	6.64(4.59)		
	④ 합계	98	6.88(5.89)		
중학교	① 대도시	45	7.40(5.26)	0.475	-
	② 중소도시	47	6.51(8.42)		
	③ 읍면지역	11	5.26(5.05)		
	④ 합계	103	6.77(6.85)		
고등학교	① 대도시	45	6.94(5.81)	0.337	-
	② 중소도시	46	7.20(6.63)		
	③ 읍면지역	13	8.52(6.18)		
	④ 합계	104	7.26(6.19)		

〈표 III-27〉에는 앞서 살펴본 외부 자원과의 연계·협력실태를 네트워크의 강도를 함께 고려하여, 1단계에 1점, 2단계에 2점, 3단계에 3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지수를 산출한 뒤, 이 지수를 학교급별·지역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11.10점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가 10.04점으로 가장 낮고, 특성화고가 14.21점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나타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학교급 간 평균비교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으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27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 학교급별 연계·협력 강도(단계별 가중치 부여)(일반학교)

구분		연계·협력 기관수 및 강도			
		n	M(S.D)	F	사후검증
학교급	① 초등학교	93	11.60(9.57)	1.44	—
	② 중학교	103	10.04(9.01)		
	③ 일반계고	80	10.96(8.93)		
	④ 특성화고	24	14.21(10.74)		
전체		300	11.10(9.34)	—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Ⅲ-2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초등학교에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연계협력지수를 나타냈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좀 더 일관된 패턴이 감지되어, 대도시에서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평균점수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고등학교에서는 읍면 지역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산출되었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여타 학교급에서는 모두 대도시에서 연계협력 지수가 가장 높게 도출되어, 도시 규모가 클수록 연계수준과 연계강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아 엄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표 Ⅲ-28 학교·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실태: 학교급별·지역별 연계협력 강도(단계별 기중치 부여)(일반학교)

구분		연계협력 기관수			
		n	M(S.D)	F (d.f.1, d.f.2)	사후검증
초등학교	① 대도시	39	13.91(11.40)	2.26 (2, 89)	—
	② 중소도시	38	9.31(7.57)		
	③ 읍면지역	16	11.40(7.99)		
	④ 합계	93	11.60(9.57)		
중학교	① 대도시	45	11.04(7.01)	0.49 (2, 99)	—
	② 중소도시	47	9.28(10.58)		
	③ 읍면지역	11	9.15(9.44)		
	④ 합계	103	10.04(9.01)		
고등학교	① 대도시	45	11.63(9.65)	0.18 (2, 101)	—
	② 중소도시	46	11.37(9.54)		
	③ 읍면지역	13	13.13(8.84)		
	④ 합계	105	11.71(9.43)		

다음으로, 학교가 이처럼 외부자원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데 학교의 전반적인 풍토나 교사들의 체험활동 참여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와 외부자원과의 연계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학교급을 막론하고 조사에 응한 300개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한 뒤,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확인하고자 학교급별로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Ⅲ-29>에 제시하였다.

전체 상관계수는 0.14($p < .05$)로 도출되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교에서 가장 뚜렷한 관계가 감지되었다. 요약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그리고 일반계고에서는 모두 해당 학교 교사들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학교가 확보하고 있는 외부자원과의 네트워크도 더 풍부하고 견고한 경향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학교급별 분석 결과는 중학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학교급을 분리하면서 사례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좀 더 충분한 사례수가 확보되면 더 뚜렷한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III-29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과 외부자원 연계수준 간의 상관관계(일반학교)

학교급	사례수	pearson 상관계수	유의확률
초등학교	93	0.11	0.31
중학교	103	0.24*	0.01
일반계 고등학교	80	0.11	0.32
특성화 고등학교	24	-0.01	0.98
전체	300	0.14*	0.01

*p<.05, **p<.01

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인식

-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라는 미온적 또는 유보적 입장이 36.9%로 가장 많았고,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33.8%,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29.3%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증가하였다.
- 학교와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주는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전문기관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인지에 대해, 대다수인 82.7%가 긍정하는 의견을 보였다.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에 대해서는 ‘좋은 프로그램’ (29.2%), ‘업무 부담 경감’ (24.8%),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 (22.1%) 순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①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인식

여기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담당교사의 주관적 평가, 향후 전망, 기대 등 관련 인식을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지도와 교육에 활력소로 작용하는지에 관해,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반응이 69.8%(그런 편이다 52.2%+매우 그렇다 17.6%)로 다수를 차지하였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94.5%(그런 편이다 63.0%+매우 그렇다 31.5%)로 대단히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58%(그런 편이다 46.9%+매우 그렇다 11.1%), 중학교에서는 58.2%(그런 편이다 45.6%+매우 그렇다 12.6%) 등으로 양자 간에 약 26%p에 이르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교과 중심 학습이나 입시 교육에서 자유로운 초등학교에서 긍정적 평가가 훨씬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표 III-30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학생지도 및 교육에 활력소로 작용(일반학교)(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0 (0.0)	1 (1.1)	4 (4.3)	58 (63.0)	29 (31.5)	92 (100.0)	50.36** (d.f.=12)
중학교	0 (0.0)	11 (10.7)	32 (31.1)	47 (45.6)	13 (12.6)	103 (100.0)	
일반계고	2 (2.5)	9 (11.1)	23 (28.4)	38 (46.9)	9 (11.1)	81 (100.0)	
특성화고	0 (0.0)	3 (12.0)	6 (24.0)	14 (56.0)	2 (8.0)	25 (100.0)	
전체	2 (0.7)	24 (8.0)	65 (21.6)	157 (52.2)	53 (17.6)	301 (100.0)	

* $p<.05$, ** $p<.01$

앞서 살펴본 문항과는 역으로, 이번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 결과, 주어진 선택지 가운데 ‘보통이다’ 라고 미온적 입장을 보이거나 또는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응답이 36.9%로 가장 많았으며,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전체적으로 33.8%(그런 편이다 28.2%+매우 그렇다 5.6%),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3%(전혀 그렇지 않다 5.0%+그렇지 않은 편이다 24.3%)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17.3%에 불과하고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44.1%로 양자 간에 2.5배를 상회하는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58.4%로 훨씬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었다. 이러한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9 (9.7)	32 (34.4)	36 (38.7)	14 (15.1)	2 (2.2)	93 (100.0)	32.97 (d.f.=12)
중학교	5 (4.9)	22 (21.4)	40 (38.8)	30 (29.1)	6 (5.8)	103 (100.0)	
일반계고	0 (0.0)	16 (19.8)	29 (35.8)	28 (34.6)	8 (9.9)	81 (100.0)	
특성화고	1 (4.2)	3 (12.5)	6 (25.0)	13 (54.2)	1 (4.2)	24 (100.0)	
전체	15 (5.0)	73 (24.3)	111 (36.9)	85 (28.2)	17 (5.6)	301 (100.0)	

*p<.05, **p<.01

교육환경의 제도적 변화가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주5일제 수업을 전면 도입한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부담이 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를 <표 III-32>에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집대상으로 선정된 300개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들 가운데 46.2%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 8.0%+그렇지 않은 편이다 38.2%)을 표명하였으며, 주5일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은 29.6%(그런 편이다 24.9%+매우 그렇다 4.7%) 수준에 머물러, 대체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학교급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고등학교에서는 영향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2 주5일제 전면도입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부담 여부(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8 (19.1)	32 (34.0)	30 (31.9)	11 (11.7)	3 (3.2)	94 (100.0)	42.24** (d.f.=12)
중학교	3 (2.9)	43 (42.2)	18 (17.6)	30 (29.4)	8 (7.8)	102 (100.0)	
일반계고	1 (1.2)	33 (40.7)	19 (23.5)	25 (30.9)	3 (3.7)	81 (100.0)	
특성화고	2 (8.3)	7 (29.2)	6 (25.0)	9 (37.5)	0 (0.0)	24 (100.0)	
전체	24 (8.0)	115 (38.2)	73 (24.3)	75 (24.9)	14 (4.7)	301 (100.0%)	

*p<.05, **p<.01

②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에 대한 인식

앞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확인했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 담당교사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교와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주는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전문기관(코디네이터 기관)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인가를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82.7%(그런 편이다 48.7%+매우 그렇다 34.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의견은 4.4%(전혀 그렇지 않다 0.7%+그렇지 않은 편이다 3.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강한 수요가 48.4%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 반면, 이 같은 의견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18.3%,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는 20.8%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술한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대체로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지원해주는 기관에 대한 수요가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보다 초등학교에서 이 같은 수요가 훨씬 더 강한 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학교급간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33 지역사회자원 연계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기대(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0 (0.0)	1 (1.1)	7 (7.7)	39 (42.9)	44 (48.4)	91 (100.0)	42.06** (d.f.=12)
중학교	0 (0.0)	5 (4.9)	12 (11.7)	48 (46.6)	38 (36.9)	103 (100.0)	
일반계고	2 (2.4)	1 (1.2)	18 (22.0)	46 (56.1)	15 (18.3)	82 (100.0)	
특성화고	0 (0.0)	4 (16.7)	2 (8.3)	13 (54.2)	5 (20.8)	24 (100.0)	
전체	2 (0.7)	11 (3.7)	39 (13.0)	146 (48.7)	102 (34.0)	300 (100.0)	

*p<.05,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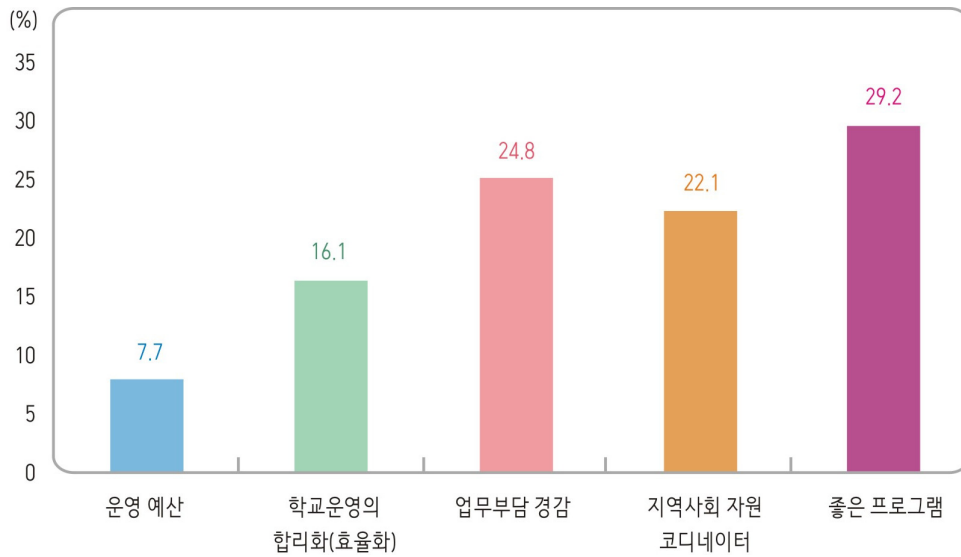
유사한 맥락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외부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인력이나 기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필요한 편이다’ (51.9%)와 ‘매우 필요하다’ (34.6%)에 대부분의 교사가 응답하여, 역시 이 같은 연계 기능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임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도 학교급별로 비슷한 차이가 목도되어, 초등학교에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40.7%로 가장 높고, 중학교도 39.0%로 대동소이한 수준을 나타낸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25%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는 모든 학교급에서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돕는 인력이나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그 수요의 강도에 있어서는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4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외부 지역사회자원 연계인력 또는 기관의 필요성(일반학교)(단위: 명, %)

학교급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 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 하다	전체	χ^2
초등학교	0 (0.0)	3 (3.3)	7 (7.7)	44 (48.4)	37 (40.7)	91 (100.0)	23.62** (d.f.=12)
중학교	0 (0.0)	2 (2.0)	11 (11.0)	48 (48.0)	39 (39.0)	100 (100.0)	
일반계고	2 (2.5)	1 (1.3)	11 (13.8)	46 (57.5)	20 (25.0)	80 (100.0)	
특성화고	0 (0.0)	3 (12.5)	0 (0.0)	15 (62.5)	6 (25.0)	24 (100.0)	
전체	2 (0.7)	9 (3.1)	29 (9.8)	153 (51.9)	102 (34.6)	295 (100.0)	

*p<.05, **p<.01

끝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지를 물었다. 분석 결과, 시범학교에 대한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좋은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29.2%로 수위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업무 부담 경감’ 24.8%,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22.1%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 ‘학교 운영의 합리화(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1%, ‘운영 예산’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7.7%로 파악되었다. 다만 학교급별로는 다소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앞서 살펴본 여타 문항들과는 달리, 이러한 학교급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림 III-19】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일반학교)

표 III-35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필요 요인(일반학교)

(단위: 명, %)

학교급	운영 예산	학교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업무 부담 경감	지역사회 자원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	좋은 프로그램	전체	χ^2
초등학교	10 (10.8)	11 (11.8)	19 (20.4)	27 (29.0)	26 (28.0)	93 (100.0)	17.64 (d.f.=12)
중학교	5 (5.0)	13 (12.9)	26 (25.7)	25 (24.8)	32 (31.7)	101 (100.0)	
일반계고	8 (9.9)	18 (22.2)	21 (25.9)	12 (14.8)	22 (27.2)	81 (100.0)	
특성화고	0 (0.0)	6 (26.1)	8 (34.8)	2 (8.7)	7 (30.4)	23 (100.0)	
전체	23 (7.7)	48 (16.1)	74 (24.8)	66 (22.1)%	87 (29.2)	298 (100.0)	

*p<.05, **p<.01

(2) 학생 대상 조사

다음으로 여기에서는 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들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 ⦿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는 응답이 53.9%,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는 응답이 51.4% 등으로 나타나, 학생들은 체험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학교급이 낮을수록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임하는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이 58.2%(그런 편이다 39.0%+매우 그렇다 19.2%)로 나타나,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전혀 그렇지 않다 1.4%+그렇지 않은 편이다 6.3%) 보다 압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해당 문항이 주관적 평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응답이 우세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체로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열심히 참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응답은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어서, 모든 학교급에서 열심히 참여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동일하지만, ‘매우 그렇다’는 강한 긍정 응답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30%를 상회한 데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10%대의 분포를 보여 차이를 나타냈다. 초·중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30 (1.1)	102 (3.6)	740 (26.5)	1071 (38.3)	852 (30.5)	2795 (30.6)	420.62** (d.f.=12)
중학교	45 (1.4)	212 (6.8)	1192 (38.0)	1188 (37.8)	502 (16.0)	3139 (34.4)	
일반계고	41 (1.7)	196 (8.0)	861 (35.1)	1039 (42.3)	318 (13.0)	2455 (26.9)	
특성화고	10 (1.4)	65 (8.8)	319 (43.1)	263 (35.5)	83 (11.2)	740 (8.1)	
전체	126 (1.4)	575 (6.3)	3112 (34.1)	3561 (39.0)	1755 (19.2)	9129 (100.0)	

*p<.05, **p<.01

②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지는가에 관한 문항의 경우 기다려진다는 응답이 53.2%(그런 편이다 31.4%+매우 그렇다 21.8%)로 나타나, 부정적 반응(전혀 그렇지 않다 3.7%+그렇지 않은 편이다 12.0%)보다 훨씬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이러한 응답패턴은 학교급별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생의 경우 매우 기다려진다는 응답이 41.0%, 기다려지는 편이라는 응답이 29.9%로 나타나 긍정적 반응이 70%를 상회하였다. 그에 비해 중고생의 경우에는 더 낮게 나타나,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65 (2.3)	139 (5.0)	612 (21.9)	835 (29.9)	1145 (41.0)	2796 (30.6)	1055.27** (d.f.=12)
중학교	111 (3.5)	413 (13.2)	1093 (34.8)	1016 (32.4)	507 (16.1)	3140 (34.4)	
일반계고	111 (4.5)	392 (15.9)	870 (35.4)	797 (32.4)	288 (11.7)	2458 (26.9)	
특성화고	54 (7.3)	153 (20.7)	262 (35.4)	216 (29.2)	55 (7.4)	740 (8.1)	
전체	341 (3.7)	1097 (12.0)	2837 (31.1)	2864 (31.4)	1995 (21.8)	9134 (100.0)	

*p<.05. **p<.01

③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체험활동으로 인해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반응의 경우, ‘보통이다’라는 평가가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이 39.1%(그런 편이다 23.7%+매우 그렇다 15.4%)로, 부정적 평가(전혀 그렇지 않다 5.5%+그렇지 않은 편이다 15.4%)보다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반응이 30%를 웃돌아, 10% 미만에 그친 고등학교와 대조를 이루었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79 (2.8)	192 (6.9)	868 (31.2)	807 (29.0)	840 (30.2)	2786 (30.6)	1030.41* * (d.f.=12)
중학교	170 (5.4)	512 (16.3)	1381 (44.0)	747 (23.8)	327 (10.4)	3137 (34.4)	
일반계고	183 (7.5)	536 (21.8)	1050 (42.8)	491 (20.0)	194 (7.9)	2454 (26.9)	
특성화고	68 (9.2)	168 (22.7)	352 (47.6)	112 (15.1)	40 (5.4)	740 (8.1)	
전체	500 (5.5)	1408 (15.4)	3651 (40.0)	2157 (23.7)	1401 (15.4)	9117 (100.0)	

*p<.05, **p<.01

④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험활동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반응이 30.5%(그런 편이다 21.5%+매우 그렇다 9.4%)로, 부정하는 반응 28.5%(전혀 그렇지 않다 7.9%+그렇지 않은 편이다 20.6%)와 대동소이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더 우세한 반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부정하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 예컨대,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부정하는 반응이 약 40%에 달하는 데 비해 긍정하는 반응은 20% 초반에 머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39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19 (4.3)	294 (10.6)	1156 (41.5)	731 (26.3)	484 (17.4)	2784 (30.5)	621.41** (d.f.=12)
중학교	249 (7.9)	723 (23.0)	1325 (42.2)	654 (20.8)	187 (6.0)	3138 (34.4)	
일반계고	273 (11.1)	663 (27.0)	928 (37.8)	449 (18.3)	141 (5.7)	2454 (26.9)	
특성화고	81 (11.0)	196 (26.5)	292 (39.5)	123 (16.6)	47 (6.4)	739 (8.1)	
전체	722 (7.9)	1876 (20.6)	3701 (40.6)	1957 (21.5)	859 (9.4)	9115 (100.0)	

*p<.05, **p<.01

⑤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지는 효과가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통이다’ 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친해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32.7%(그런 편이다 22.3%+매우 그렇다 10.4%), 그 같은 효과가 없었다는 응답이 27.1%(전혀 그렇지 않다 8.4%+그렇지 않다 18.7%)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지만, 학교급이 높을수록 부정적 응답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0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46 (5.2)	317 (11.3)	1053 (37.7)	745 (26.7)	534 (19.1)	2795 (30.6)	553.93** (d.f.=12)
중학교	262 (8.3)	629 (20.0)	1371 (43.7)	629 (20.0)	249 (7.9)	3140 (34.4)	
일반계고	295 (12.0)	562 (22.9)	946 (38.6)	516 (21.0)	134 (5.5)	2453 (26.9)	
특성화고	67 (9.1)	194 (26.3)	300 (40.7)	141 (19.1)	36 (4.9)	738 (8.1)	
전체	770 (8.4)	1702 (18.7)	3670 (40.2)	2031 (22.3)	953 (10.4)	9126 (100.0)	

* $p < .05$, ** $p < .01$

⑥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한편,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는지와 관련하여, 긍정하는 의견이 부정하는 의견보다 훨씬 더 높게 파악되었다. 앞서 선생님과 친분이 두터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 많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낮을수록 친구들과의 친분 강화 효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chi^2=752.88$, $p < .01$).

표 III-41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84 (3.0)	149 (5.3)	661 (23.7)	927 (33.2)	969 (34.7)	2790 (30.6)	752.88** (d.f.=12)
중학교	115 (3.7)	294 (9.4)	1182 (37.6)	1123 (35.8)	427 (13.6)	3141 (34.4)	
일반계고	127 (5.2)	254 (10.3)	895 (36.4)	898 (36.5)	283 (11.5)	2457 (26.9)	
특성화고	50 (6.8)	99 (13.4)	298 (40.3)	241 (32.6)	52 (7.0)	740 (8.1)	
전체	376 (4.1)	796 (8.7)	3036 (33.3)	3189 (34.9)	1731 (19.0)	9128 (100.0)	

*p<.05, **p<.01

⑦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의견이 51.4%(그런 편이다 34.5%+매우 그렇다 16.9%)로 과반을 차지하였으며, 부정하는 의견은 14.8%로 훨씬 적게 나타나, 학생들은 대체로 체험활동이 일반적인 교과수업과 차별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은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여,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 평가가 눈에 띄게 많고,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chi^2=900.42$, $p<.01$).

표 III-42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54 (1.9)	126 (4.5)	716 (25.7)	1001 (35.9)	888 (31.9)	2785 (30.6)	900.42** (d.f.=12)
중학교	132 (4.2)	316 (10.1)	1199 (38.4)	1095 (35.1)	378 (12.1)	3120 (34.3)	
일반계고	158 (6.4)	396 (16.2)	864 (35.3)	830 (33.9)	202 (8.2)	2450 (26.9)	
특성화고	55 (7.4)	106 (14.3)	296 (40.0)	216 (29.2)	67 (9.1)	740 (8.1)	
전체	399 (4.4)	944 (10.4)	3075 (33.8)	3142 (34.5)	1535 (16.9)	9095 (100.0)	

*p<.05, **p<.01

⑧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최근 들어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데는 단순히 교과공부에만 몰두하는 것에 비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것이 인성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일조하고 있다. 이에 여기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체험활동을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고 생각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중간적 혹은 유보적 평가가 46.0%로 거의 절반에 달해, 학생들 스스로 체감하는 효과가 아직은 그다지 뚜렷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긍정하는 의견이 29.4%, 부정하는 의견이 24.6%로 긍정적 의견이 약 5%p 가량 더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가 44.7%, 부정적 평가가 12.9%로 양자 간에 큰 차이를 보였다. 그에 비해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오히려 부정적 평가가 더 많아 대조를 이루었다.

표 III-43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01 (3.6)	260 (9.3)	1179 (42.4)	846 (30.4)	397 (14.3)	2783 (30.6)	602.97** (d.f.=12)
중학교	218 (6.9)	641 (20.4)	1516 (48.3)	544 (17.3)	218 (6.9)	3137 (34.4)	
일반계고	238 (9.7)	543 (22.2)	1141 (46.6)	428 (17.5)	100 (4.1)	2450 (26.9)	
특성화고	70 (9.5)	165 (22.4)	353 (47.8)	116 (15.7)	34 (4.6)	738 (8.1)	
전체	627 (6.9)	1609 (17.7)	4189 (46.0)	1934 (21.2)	749 (8.2)	9108 (100.0)	

*p<.05, **p<.01

⑨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증진되었는지에 관한 문항에서는 전체적으로 보통이라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다. 그렇지만 긍정적 평가가 31.6%, 부정적 평가가 25.8%로 나타나, 현저한 차이는 아니지만 미미하나마 긍정적 평가가 더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급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초등학생의 경우, 체험활동을 통해 매우 자신감이 생겼다는 강한 긍정적 평가가 23.5%에 달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4~5% 수준에 그쳐 큰 격차를 보여주었다. 역으로 부정적 평가의 경우, 초등학생은 14.7%에 그친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30% 중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살펴본 여타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체험활동에 대해 낮은 학교급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19 (4.3)	291 (10.4)	950 (34.0)	774 (27.7)	657 (23.5)	2791 (30.6)	956.71** (d.f.=12)
중학교	235 (7.5)	633 (20.2)	1503 (47.9)	554 (17.6)	214 (6.8)	3139 (34.4)	
일반계고	261 (10.6)	555 (22.6)	1082 (44.1)	431 (17.6)	124 (5.1)	2453 (26.9)	
특성화고	90 (12.2)	175 (23.7)	341 (46.1)	102 (13.8)	31 (4.2)	739 (8.1)	
전체	705 (7.7)	1654 (18.1)	3876 (42.5)	1861 (20.4)	1026 (11.2)	9122 (100.0)	

*p<.05, **p<.01

⑩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더 많은 체험활동을 경험해보고 싶은지와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매우 그렇다’ (32.2%)와 ‘그런 편이다’ (30.1%)에 대부분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그리하여 더 많은 체험활동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긍정적 반응이 전체 응답자의 62.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은 12.9%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는 학교 현장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비교적 강한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이러한 반응은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교의 경우 ‘매우 그렇다’ 는 응답이 52.7%로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중고등학생은 20% 안팎에 머물렀으며, 특히 특성화 고등학생은 17.7%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5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64 (2.3)	100 (3.6)	464 (16.7)	687 (24.7)	1468 (52.7)	2783 (30.5)	884.35** (d.f.=12)
중학교	148 (4.7)	350 (11.2)	889 (28.4)	981 (31.3)	767 (24.5)	3135 (34.4)	
일반계고	133 (5.4)	217 (8.8)	676 (27.5)	858 (34.9)	571 (23.3)	2455 (26.9)	
특성화고	59 (8.0)	112 (15.2)	222 (30.0)	215 (29.1)	131 (17.7)	739 (8.1)	
전체	404 (4.4)	779 (8.5)	2251 (24.7)	2741 (30.1)	2937 (32.2)	9112 (100.0)	

*p<.05, **p<.01

⑪ 다시 해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체험활동 가운데 다시 해보고 싶은 활동이 있는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54.2%(그런 편이다 29.4%+매우 그렇다 24.8%)로 과반을 차지한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은 16.0%(전혀 그렇지 않다 5.7%+그렇지 않은 편이다 10.3%)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이 일회성으로 그치거나 혹은 맛보기 수준에 머물기보다는, 학생들이 관심이나 흥미를 느끼는 분야에 대해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학교급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어서,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는 의견이 43.5%에 달한 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10%대의 응답 비율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84 (3.0)	116 (4.2)	565 (20.3)	805 (29.0)	1208 (43.5)	2778 (30.5)	937.22** (d.f.=12)
중학교	190 (6.1)	386 (12.3)	1044 (33.3)	934 (29.8)	578 (18.5)	3132 (34.4)	
일반계고	160 (6.5)	331 (13.5)	813 (33.1)	766 (31.2)	384 (15.6)	2454 (27.0)	
특성화고	83 (11.2)	107 (14.5)	284 (38.5)	175 (23.7)	89 (12.1)	738 (8.1)	
전체	517 (5.7)	940 (10.3)	2706 (29.7)	2680 (29.4)	2259 (24.8)	9102 (100.0)	

*p<.05, **p<.01

⑫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고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많았다. 긍정적인 평가가 31.7%(그런 편이다 21.4%+매우 그렇다 10.3%), 부정적인 평가가 24.5%(전혀 그렇지 않다 7.6%+그렇지 않은 편이다 16.9%)로 나타나,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높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그렇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학교급별로는 여타 문항들과 마찬가지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응답비율이 더 높고, 학교급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응답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차이가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렇지만 다른 문항들에 비해 학교급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표 III-47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38 (4.9)	309 (11.1)	1134 (40.6)	757 (27.1)	453 (16.2)	2791 (30.6)	348.81** (d.f.=12)
중학교	238 (7.6)	588 (18.7)	1444 (46.0)	610 (19.4)	257 (8.2)	3137 (34.4)	
일반계고	226 (9.2)	492 (20.1)	1078 (44.0)	472 (19.3)	183 (7.5)	2451 (26.9)	
특성화고	87 (11.8)	154 (21.0)	331 (45.0)	115 (15.6)	48 (6.5)	735 (8.1)	
전체	689 (7.6)	1543 (16.9)	3987 (43.7)	1954 (21.4)	941 (10.3)	9114 (100.0)	

*p<.05, **p<.01

⑬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체험활동 시간이 더 증가하기를 희망하는지에 관해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1.0%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그런 편이다 28.5%+매우 그렇다 32.5%). 반면, 그렇지 않다는 반응은 14.3%(전혀 그렇지 않다 5.1%+그렇지 않은 편이다 9.2%)로 약 1/4 수준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학교급별로는 초·중고를 막론하고 모든 학교급의 학생들이 체험활동이 증가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하여 초등학생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강한 수요가 51.1%로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해, 중·고등학교에서는 20%대의 응답비율을 보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8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73 (2.6)	125 (4.5)	460 (16.5)	703 (25.3)	1423 (51.1)	2784 (30.6)	733.92** (d.f.=12)
중학교	168 (5.4)	350 (11.2)	872 (27.9)	925 (29.5)	816 (26.1)	3131 (34.4)	
일반계고	161 (6.6)	259 (10.5)	684 (27.8)	778 (31.7)	575 (23.4)	2457 (27.0)	
특성화고	63 (8.5)	106 (14.3)	232 (31.4)	188 (25.4)	150 (20.3)	739 (8.1)	
전체	465 (5.1)	840 (9.2)	2248 (24.7)	2594 (28.5)	2964 (32.5)	9111 (100.0)	

*p<.05, **p<.01

⑭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지를 조사한 결과, 보통이라는 미온적 반응이 40.1%로 다수를 이루었으며, 그렇다는 긍정적 반응은 33.8%(그런 편이다 19.8%+매우 그렇다 14.0%),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은 26.1%(전혀 그렇지 않다 8.0%+그렇지 않은 편이다 18.0%)로 파악되었다. 학교급별로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부정적인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중학교 이상의 학생부터는 부정적인 대답이 긍정적인 대답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49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단위: 명, %)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36 (4.9)	258 (9.3)	995 (35.7)	665 (23.9)	733 (26.3)	2787 (30.6)	755.70 (d.f.=12)
중학교	274 (8.7)	617 (19.7)	1362 (43.4)	579 (18.5)	305 (9.7)	3137 (34.4)	
일반계고	253 (10.3)	589 (24.0)	967 (39.5)	457 (18.7)	184 (7.5)	2450 (26.9)	
특성화고	79 (10.7)	179 (24.3)	326 (44.2)	101 (13.7)	52 (7.1)	737 (8.1)	
전체	742 (8.1)	1643 (18.0)	3650 (40.1)	1802 (19.8)	1274 (14.0)	9111 (100.0)	

*p<.05, **p<.01

⑮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고자 던진 마지막 질문은 체험활동에 몰입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38.6%가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여, 제시된 5개의 선택지 가운데 단일 응답으로는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적 의견(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이 37.3%, 부정적 의견(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이 24.0%(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로 나타나, 전반적으로는 긍정적 의견이 13%p 가량 더 우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를 학교급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급에서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우세했지만,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긍정적 응답이 30.3%, 부정적 응답이 30.4%로 거의 동일한 비중을 나타내 다소 대비를 이루었다.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50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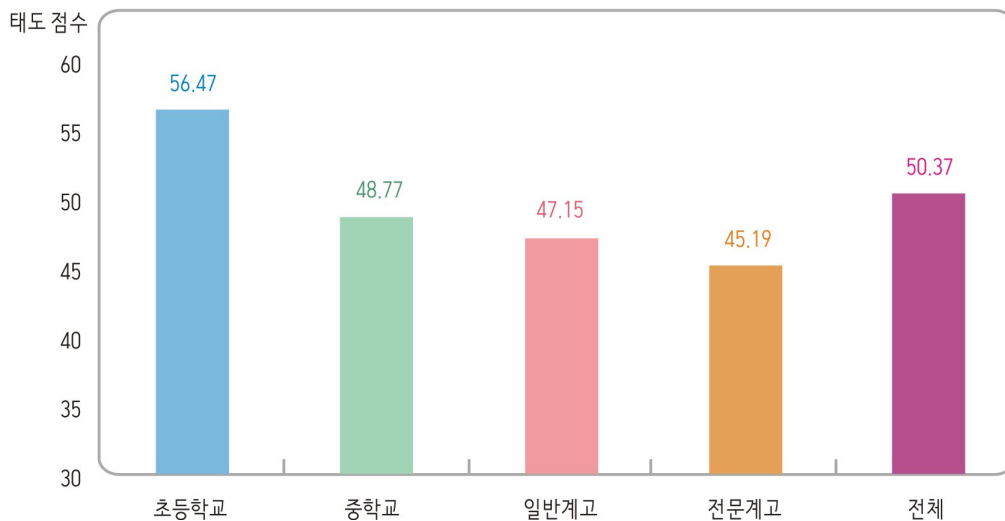
학교급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초등학교	169 (6.1)	260 (9.3)	901 (32.3)	717 (25.7)	746 (26.7)	2793 (30.6)	661.48** (d.f.=12)
중학교	246 (7.8)	523 (16.7)	1337 (42.6)	689 (21.9)	345 (11.0)	3140 (34.4)	
일반계고	255 (10.4)	490 (20.0)	966 (39.3)	546 (22.2)	199 (8.1)	2456 (26.9)	
특성화고	109 (14.7)	145 (19.6)	320 (43.2)	119 (16.1)	47 (6.4)	740 (8.1)	
전체	779 (8.5)	1418 (15.5)	3524 (38.6)	2071 (22.7)	1337 (14.6)	9129 (100.0)	

*p<.05, **p<.01

⑩ 종합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견지하고 있는 태도를 좀 더 종합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앞서 개별적으로 살펴본 15개 문항을 합산하여 하나의 지수를 산출한 뒤, 학교급별·지역별 비교를 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지수는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점을 부여한 뒤,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15~75점의 분포를 가질 수 있다. 이들 15개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의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15개 문항에 대한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0.95로 산출되어, 지수 구성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결과가 <표 III-51>과 <표 III-52>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III-51>에 학교급별로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개별 문항을 통해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학교급이 높을수록 긍정적 태도 지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모두 40점대 점수를 보이는 데 비해, 초등학교만 50점대 후반 점수를 나타낸 점이 눈길을 끈다. 이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들이 체험활동에 대해 눈에 띄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III-20】 학교급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

표 III-51 학교급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학교	N	평균	표준편차	F(df1,df2)
초등학교	2700	56.47	11.20	393.82** (3,8918)
중학교	3081	48.77	11.41	
일반계고	2415	47.15	11.49	
특성화고	726	45.19	11.52	
전체	8922	50.37	12.10	

*p<.05, **p<.01

〈표 III-52〉에는 이 같은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를 학교급과 더불어 지역별로도 함께 비교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학교급 내에서 지역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대도시에서 가장 높은 태도점수를 보인 반면, 초등학교를 제외한 여타 학교급에서는 읍면지역에서 체험활동에 대해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이 눈에 띈다.

표 III-52 학교급별/지역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학교	지역	N	평균	표준편차	F(df1,df2)
초등학교	대도시	1160	57.52	11.22	9.36** (2,2697)
	중소도시	1071	55.52	11.11	
	읍면	469	56.04	11.13	
	전체	2700	56.47	11.20	
중학교	대도시	1352	49.41	11.27	11.64** (2,3078)
	중소도시	1367	47.72	11.62	
	읍면	362	50.38	10.76	
	전체	3081	48.77	11.41	
일반계고	대도시	1129	46.95	11.33	3.65* (2,2412)
	중소도시	1072	46.96	11.35	
	읍면	215	49.17	12.77	
	전체	2415	47.15	11.49	
특성화고	대도시	237	43.68	12.09	7.08** (2,723)
	중소도시	295	44.74	12.10	
	읍면	194	47.73	9.36	
	전체	726	45.19	11.52	

*p<.05, **p<.01

나.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효과

앞서 다양한 문항들을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면, 여기에서는 좀 더 심층적인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체험활동이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보도록 하겠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고려하여, 다층모형(multilevel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① 데이터

창의적 체험활동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사용된 데이터는 본 연구를 위해 전국의 300개 초·중·고등학교 체험활동 담당 교사 및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통합조사 데이터이다. 본래 회수된 응답자수는 초등학생 2,733명, 중학생 2,818명, 고등학생 3,628명(일반계고 2,291명, 특성화고 1,337명)이었으나,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 투입되는 주요

변인들에 성실하게 응답한 응답자로 분석대상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초등학교 1,451명, 중학생 2,102명, 고등학교 3,220명이 최종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② 변수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몰입(flow)수준, 그리고 무동기 수준을 체험활동의 성과를 살펴보기 위한 준거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은 로젠버그(Rosenberg)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10개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¹⁰⁾ 따라서 자아존중감 척도는 최소값 10~최대값 50의 범위를 갖게 된다. 몰입수준은 이창호 외(2002)가 개발한 「청소년 플로우 척도」를 사용하였다([부록] 참조). 총 65개 문항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몰입에 관한 척도는 최소값 65~최대값 325의 범위를 갖게 되며, 변수값이 클수록 몰입 정도가 큼을 의미한다. 무동기 변인은 김아영(2010)이 개발한 학습 무동기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무동기를 측정하는 6개 문항에 대해 각각 6점 척도(①=절대 아니다, ②=아니다, ③=약간 아니다, ④=약간 그렇다, ⑤=그렇다, ⑥=정말 그렇다)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¹¹⁾ 따라서 무동기 변인은 최소값 6~최대값 36의 분포를 가지며, 변수값이 클수록 무동기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아존중감, 몰입, 무동기에 대한 분석에서 설명변인으로 투입되는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대해서도 별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 몰입, 무동기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10)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로젠버그(Rosenberg)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3번째, 5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문항은 변수값이 클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11) 무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구체적인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더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데 학교의 어떤 노력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변인은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15개 문항들을 합산하여 구성하였다.¹²⁾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따라서 최소값 15~최대값 75의 분포를 갖는다. 이들 문항은 변수값이 클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하였음을 의미한다.

● 독립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는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으로 나누어 투입되었다. 개인수준에서는 먼저 성별,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성적 등 응답자의 기본배경변인 및 특성을 포착하는 변인들이 투입되었다. 여기에서 성별은 여학생을 준거집단으로 남학생에게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인으로 투입되었다. 가족구조는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로 분류된 것을 토대로 양부모가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한부모가정·조손가정·기타 등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학생의 가정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못산다(=1)’부터 ‘매우 잘산다(=7)’까지 단계별로 조사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변수값이 클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모 학력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최종 학력에 대해 각각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석·박사)’로 나누어 조사된 것을 활용하여, 각각 0, 6, 9, 12, 14, 16, 19의 값을 부여한 교육연한으로 바꾸어 분석에 투입하였다. 여기에서 부 또는 모의 학력이 모두 조사된 경우에는 평균값을 내어 사용하였으며, 둘 중 하나만 조사된 경우에는 그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학업성적은 2012학년도 1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학급에서 대략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매우 못하는 수준(=1)’부터 ‘매우 잘하는 수준(=5)’까지 5단계로 조사된 것을 그대로 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변수값이 증가할수록 학업성취수준도 우수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 등 응답자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12)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다시 해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내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해 동기(motivation)를 통제변수의 일환으로 투입하였다. 동기는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되었다. 내적 동기는 총 5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¹³⁾ 따라서 최소값 5~최대값 25의 범위를 갖게 된다. 다음으로 외적 동기는 총 6개 문항에 대해 역시 5점 척도로 측정된 것을 합산하여 척도를 구성하였다.¹⁴⁾ 외적 동기는 최소값 6~최대값 30의 분포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학교수준 변인들로는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수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수준, 체험활동을 위한 외부자원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 학교의 소재지 규모 등이 투입되었다. 단,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계열 변인이 추가적으로 투입되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역사회자원 네트워크 수준은 앞서 실태조사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상호연계협력 기관의 수 및 협력의 강도를 함께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한 지수(index)를 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수준은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는 문항에 대해 체험활동 담당 교사가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체험활동을 위해 외부자원의 도움을 받는지 여부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데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 는 데 대해 5점 척도로 응답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교의 소재지 규모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나누어 조사된 것을 활용하여, 대도시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중소도시 및 읍면지역에 각각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서 추가된 계열 변인의 경우, 일반계고를 준거집단으로 하여 특성화고에 1의 값을 부여한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아래 〈표 III-53〉에는 상술한 변인들 가운데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 검정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며, 〈표 III-54〉에는 분석에 사용된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치가 학교급별로 나누어 제시되어 있다.

13) 내적 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14) 외적 동기를 구성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용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므로 공부한다.

표 III-53 다항목 척도로 구성된 변인의 신뢰도 검증 결과

요인		자아 존중감	몰입 수준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신뢰도 (Cronbach's α)	초	0.808	0.925	0.906	0.813	0.858	0.930
	중	0.840	0.925	0.919	0.815	0.878	0.940
	고	0.846	0.914	0.913	0.832	0.873	0.938

표 III-54 투입변인의 기술통계치

변인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n	M (SD)	n	M (SD)	n	M (SD)
개인수준						
성별(남학생)	1,451	0.51(0.50)	2,102	0.55(0.50)	3,220	0.49(0.50)
가족구조	1,451	0.08(0.28)	2,102	0.09(0.29)	3,220	0.13(0.33)
가정의 경제적 수준	1,451	4.97(1.10)	2,102	4.35(1.05)	3,220	3.98(1.04)
부모 학력	1,451	14.35(2.53)	2,102	13.96(2.42)	3,220	13.19(2.30)
학업 성적	1,451	3.49(0.88)	2,102	3.01(1.02)	3,220	2.89(1.01)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451	55.88(13.44)	2,102	45.69(10.84)	3,220	43.53(10.87)
내적 동기	1,451	21.70(7.60)	2,102	16.76(6.85)	3,220	16.70(6.56)
외적 동기	1,451	12.48(5.27)	2,102	14.65(5.40)	3,220	13.12(5.09)
무동기	1,451	11.35(6.00)	2,102	17.53(7.48)	3,220	19.59(7.36)
몰입수준	1,451	221.40(31.11)	2,102	206.25(26.83)	3,220	204.00(23.90)
자아존중감	1,451	38.03(6.50)	2,102	35.03(6.48)	3,220	34.54(6.31)
학교수준						
네트워크 지수	102	12.19(9.54)	83	10.60(9.54)	114	11.96(10.07)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02	4.50(0.59)	83	4.01(0.77)	114	3.92(0.89)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102	3.11(1.11)	83	3.12(1.17)	114	2.97(1.05)
지역(중소도시)	102	0.43(0.50)	83	0.43(0.50)	114	0.41(0.49)
지역(읍면지역)	102	0.20(0.40)	83	0.12(0.33)	114	0.14(0.35)
계열(특성화고)		—		—	114	0.42(0.50)

③ 분석 방법

● 분석 모형

본 연구에서는 1단계에서 16개 시·도별로 층화(stratification)하고, 2단계에서는 시·도내에서 학교를 선정한 뒤, 선정된 학교에서 학급 및 학생을 추출하는 층화집락추출법(stratified cluster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데이터는 위계적인 특성을 띠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분석의 단위를 고려한 추정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자료의 위계적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다층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Raudenbush and Bryk, 2002).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생-학교의 2수준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내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구성된 자아존중감과 몰입수준이 연속변수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다층모형 분석 방법 가운데 위계적 선형모형(HLM: Hierarchical linear model) 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층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다.

$$\diamond \text{ 1수준 모형 : } Y_{ij} = \beta_{0j} + \beta_{1j}X_{1ij} + \beta_{2j}X_{2ij} + \cdots + \beta_{qj}X_{qij} + r_{ij} \quad (\beta_{qj}, q = 0, \cdots, N)$$

$$\diamond \text{ 2수준 모형 : } \beta_{0j} = \gamma_{00} + \gamma_{01}W_{1j} + \gamma_{02}W_{2j} + \cdots + \gamma_{0sq}W_{sqj} + u_{0j}$$

$$\beta_{1j} = \gamma_{10}$$

$$\cdots$$

$$\beta_{qj} = \gamma_{q0} \quad (Ws, s=1, \cdots, Sq)$$

여기에서 1수준 모형의 y_{ij} 는 j번째 학교에 있는 i번째 학생의 자아존중감(또는 몰입수준)을 뜻하고, β_{0j} 는 절편값을 의미하며, $\beta_{1j} \cdots \beta_{qj}$ 는 개인수준 독립변수들의 효과를 뜻한다. γ_{ij} 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서 평균 0과 분산 σ^2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한다. 2수준 모형에서는 각 학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또는 몰입수준)에 대해 학교수준 변인들을 투입하여 설명하게 된다. 2수준 식에서 β_{0j} 는 학교마다 변하는 무선효과(random effect)로 설정되었고, 각 학생수준 변인들의 효과는 고정효과(fixed effect)로 설정되었다. γ_{00} 는 전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또는 몰입수준)의 총평균을 의미하며, $\gamma_{01} \cdots \gamma_{0sq}$ 는 각 학교변수들의 효과를 뜻한다. u_{0j} 는 평균 0과 2수준 분산 τ_{00} 의 정규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며, 1수준과 2수준에 투입되는 변수들 가운데 더미변수를 제외한 변인들은 전체 평균을 중심으로 중심점을 교정(grand-mean centering)하였다. 이상의 분석에는 HLM 6.08프로그램이 사용되었다.

● 모형의 구성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되었다. 먼저 모델 1은 다층모형 분석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무런 독립변수도 투입하지 않은 무조건부 모형(unconditional model)으로 구성되었다. 이 같은 무조건부 모형을 통해 각 수준별 분산을 확인하게 된다. Model 2는 성별,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부모학력, 학업성취수준 등 개인배경변인만을 투입하여 구성하였고, 모델 3은 여기에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모델 2와 모델 3을 이처럼 분리하여 구성한 까닭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과 여타 통제변인들을 처음부터 모두 함께 투입할 경우,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모델 4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종속변수와 모두 관련성을 가질만한 내적 특성(외적 동기, 내적 동기, 무동기 등) 변인을 추가하였다. 이들 변인을 추가한 이유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공변량을 가질 개연성이 있는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 변인이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지 보다 엄밀하게 확인해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델 5에는 학교수준 변인들이 추가되었다. <표 III-55>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의 구성 단계를 제시하였다.

표 III-55 분석모형의 구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무조건부 모형	개인수준 통제변인	→→→	→→→	→→→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	→→→
			학생의 심리적 특성	→→→
				학교수준 변인

④ 분석 결과

A. 자아존중감

- ◎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에서 여타 통제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 경험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아래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주요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모델 3의 결과를 살펴보면, 개인수준에서 성별,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 성적 등 제반 변인들이 통제된 상황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긍정적 태도를 가진 학생일수록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자아존중감 간에는 교란변수(confounding variable)가 존재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 체험활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여 보다 좋은 경험을 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또 이러한 특성을 지닌 학생들이 자아존중감도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종속변수뿐만 아니라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모두 깊은 상관을 가질 만한 내적 특성 변수를 추가로 통제하였다. 이러한 내적 특성 변수로 사용된 것이 동기 변수(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들이다. 적극적·긍정적 특성을 지닌 학생들은 내적 동기가 강하고 외적 동기와 무동기가 약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들 변인이 추가되면서 모델 4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의 효과 추정치의 크기는 상당 부분 감소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는 것과 초·중·고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델 5에서는 여기에 학교수준 변인들이 추가되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자 외부 인력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학교에 속한 학생들의 평균 자아존중감이 그렇지 않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평균 자아존중감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b=0.398$, $p < .01$).

표 III-56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38.050***	.214	38.695***	.267	38.555***	.280	38.306***	.216	38.163***	.258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1.089**	.334	-.858**	.314	-.336	.279	-.341	.276
가족구조			-1.233†	.650	-.985	.621	-1.149*	.575	-1.164*	.572
가정의 경제적 수준			1.039***	.158	.843***	.148	.638***	.138	.659***	.140
부모 학력			.108	.070	.057	.068	-.051	.053	-.048	.056
학업 성적			2.298***	.205	1.975***	.193	.795***	.189	.785***	.189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42**	.027	.028*	.014	.029*	.014
내적 동기							-.016	.025	-.013	.025
외적 동기							-.128***	.025	-.126***	.024
무동기							-.188***	.031	-.185***	.030
몰입수준							.087***	.006	.087***	0.006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08	.014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353	.241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398**	0.124
지역(중소도시)									.484†	0.288
지역(읍면지역)									-.319	.449
분산										
개인간 분산(σ^2)	40.547		34.127		30.965		24.010		24.020	
학교간 분산(τ_{00})	1.738		1.100		1.141		0.489		0.274	
전체	42.285		35.227		32.106		24.499		24.294	
집단내 상관(ICC)	0.041		0.031		0.036		0.020		0.011	
누적설명분산 (R^2)										
개인수준			0.158		0.236		0.408		0.408	
학교수준			0.367		0.343		0.719		0.842	
전체			0.167		0.241		0.421		0.425	

† p<.10, *p<.05, **p<.01, ***p<.001

〈표 Ⅲ-57〉에는 중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도 초등학교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여타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학교에서 제공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 성별,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성적,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몰입수준 등 제반 변인들을 충분히 통제한 상황에서도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과 동기 및 몰입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수가 .205~.502에 이를 만큼 매우 높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처럼 다중공선성의 소지가 큰 변인들을 함께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의 효과가 검증될 만큼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교수준에서는 학교가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할수록, 교사들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또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위해 외부인력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은 경우에 학생들의 평균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다만, 이들 변인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변인의 효과는 유의수준의 경계에 놓여 있어,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비교적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에 대한 분석결과가 〈표 Ⅲ-58〉에 정리되어 있다. 초·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들이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양상은 개인의 기본배경변인과 내적 특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p<.01$ 수준에서 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초등학교 모형에서는 학교수준에서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를 위해 외부 인력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학생 모형에서는 유의수준의 경계에 있었던 데 비해, 고등학생 모형에서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점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표 III-57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중학생)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35.023***	.180	34.815***	.239	34.901***	.211	34.996***	.171	35.143***	.216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321	.268	.204	.250	.053	.206	.019	.200
가족구조			.378	.478	.089	.432	-.066	.395	-.126	.399
가정의 경제적 수준			.685***	.162	.573***	.156	.374*	.150	.373*	.149
부모 학력			.108 †	.055	.097 †	.052	.025	.049	.028	.049
학업 성적			1.680***	.145	1.465***	.136	.809***	.137	.798***	.137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54***	.015	.047**	.016	.046**	.016
내적 동기							-.062**	.023	-.061**	.023
외적 동기							-.114***	.026	-.116***	.026
무동기							-.127***	.021	-.128***	.020
몰입수준							.099***	.007	.098***	.007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17	.014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10	.169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184	.115
지역(중소도시)									-.155	.260
지역(읍면지역)									-.390	.382
분산										
개인간 분산(σ^2)	40.912		36.738		34.336		27.187		27.187	
학교간 분산(τ_{00})	1.101		0.626		0.338		0.278(n.s.)		.228(n.s.)	
전체	42.013		37.364		34.674		27.465		27.415	
집단내 상관(ICC)	0.026		0.017		0.010		0.010		0.008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102		0.161		0.335		0.335	
학교수준			0.431		0.693		0.748		0.793	
전체			0.111		0.175		0.346		0.347	

n.s.: non-significant, † p<.10, *p<.05, **p<.01, ***p<.001

표 III-58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모델 V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34.506***	.142	34.337***	.167	34.439***	.166	34.660***	.151	34.814***	.224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527*	.225	.354	.220	-.072	.200	-.076	.197
가족구조			-.590†	.345	-.659*	.322	-.709*	.294	-.705*	.299
가정의 경제적 수준			1.106***	.112	1.032***	.114	.870***	.108	.875***	.107
부모 학력			.009	.047	.009	.047	.001	.041	-.002	.043
학업 성적			1.344***	.112	1.207***	.105	.480***	.094	.474***	.094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30***	.011	.031**	.011	.031**	.011
내적 동기							-.045*	.018	-.046*	.018
외적 동기							-.118***	.019	-.121***	.020
무동기							-.113***	.016	-.112***	.016
몰입수준							.118***	.005	.118***	.005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06	.010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20	.122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120	.119
지역(중소도시)									-.167	.237
지역(읍면지역)									-.413	.295
계열(특성화고)									-.077	.231
분산										
개인간 분산(σ^2)	38.945		35.186		33.333		25.780		25.782	
학교간 분산(τ_{00})	0.914		0.699		0.629		0.339		0.351	
전체	39.859		35.885		33.962		26.119		26.133	
집단내 상관(ICC)	0.023		0.019		0.019		0.013		0.013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100		0.148		0.345		0.344	
학교수준			0.235		0.312		0.629		0.616	
전체			0.100		0.148		0.345		0.344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B. 몰입수준

- ◎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에서 여타 통제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일수록 더 높은 몰입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초·중·고 모든 학교급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표 III-59〉, 〈표 III-60〉, 〈표 III-61〉에는 몰입수준을 준거변인으로 삼아,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험활동과 몰입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체험활동 관련 변수를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에 대한 분석 결과, 개인수준에서 기본배경변인의 효과를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몰입하는 성향도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델 3 참조). 또한 여기에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 자아존중감 등 몰입 성향과 관련이 있을 법한 내적 특성 변인을 추가로 통제한 이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는 몰입에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모델 4 참조). 이 같은 결과는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초등학교생들의 몰입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한편 학교수준에서 투입된 변인들은 지역 변인을 제외하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 수준은 유의수준의 경계에 놓여 있었는데, 이는 교사들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평균 몰입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상은 중학생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관찰된다. 그리하여 중학생도 성별, 가족구조,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성적 등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을 통한 긍정적 경험이 몰입에 강한 정적(positive)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델 3참조, $b=1.082$, $p<.001$). 내적 동기, 외적 동기, 무동기, 자아존중감 등 내적 특성 변인이 추가되면서 그 효과의 크기가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최종 모형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모델 4 및 모델 5 참조). 다만 학교수준에서 투입된 네트워크 지수,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네트워킹을 위한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등은 중학생의 몰입수준을 제고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가 〈표 III-60〉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I-59 체험활동이 몰입수준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 (전체평균)	221.201***	1.193	224.024***	1.334	223.098***	1.336	221.419***	.894	222.568***	1.136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5.622***	1.514	-4.197**	1.338	-.929	1.029	-.873	1.032
가족구조			-.485	2.705	1.173	2.484	2.089	2.284	2.069	2.287
가정의 경제적 수준			3.276***	.827	1.972**	.735	.135	.662	.128	.665
부모 학력			1.215**	.343	.883**	.292	.475*	.235	.412*	.235
학업 성적			12.320***	1.032	9.997***	.883	3.602***	.663	3.587***	.669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056***	.129	.512***	.109	.508***	.108
내적 동기							1.411***	.126	1.413***	.126
외적 동기							-.203	.129	-.207	.128
무동기							.187	.175	.195	.175
자아존중감							14.237***	1.022	14.184***	1.049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35	.068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685	1.082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093	.655
지역 (중소도시)									-.611	1.482
지역 (읍면지역)									-4.869*	1.931
분산										
개인간 분산(σ^2)	887.225		728.846		586.030		414.282		414.279	
학교간 분산(τ_{00})	80.410		64.380		63.001		28.217		27.187	
전체	967.635		793.226		649.031		442.499		441.466	
집단내 상관(CC)	0.083		0.081		0.097		0.064		0.062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179		0.339		0.533		0.533	
학교수준			0.199		0.217		0.649		0.662	
전체			0.180		0.329		0.543		0.544	

† p<.10, *p<.05, **p<.01, ***p<.001

표 III-60

n.s.: non-significant, † $p<.10$, * $p<.05$, ** $p<.01$, *** $p<.001$

표 III-61 체험활동이 몰입수준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203.889***	.608	201.338***	.698	202.082***	.594	201.790***	.520	202.077***	.720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4.770***	.973	3.561***	.794	4.154***	.671	4.394***	.635
가족구조			1.590	1.473	1.061	1.358	1.718	1.207	1.473	1.180
가정의 경제적 수준			1.908***	.446	1.439**	.433	-.320	.363	-.276	.365
부모 학력			.090	.182	.103	.166	-.014	.151	.017	.153
학업 성적			5.118***	.462	4.227***	.405	.817*	.374	.761*	.377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825***	.044	.471***	.040	.466***	.040
내적 동기							1.007***	.062	1.022***	.063
외적 동기							-.220**	.081	-.224**	.082
무동기							.073	.048	.070	.049
자아존중감							1.482***	.073	1.477***	.073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53	.038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041*	.460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186	.395
지역(중소도시)									-1.533†	.786
지역(읍면지역)									-1.643	1.523
계열(특성화고)									1.319	.810
분산										
개인간 분산(σ^2)	549.042		513.223		441.340		323.127		323.038	
학교간 분산(τ_{00})	22.467		18.933		11.868		5.545		4.804	
전체	571.509		532.156		453.208		328.672		327.842	
집단내 상관(ICC)	0.039		0.036		0.026		0.017		0.015	
누적설명분산 (R^2)										
개인수준			0.065		0.196		0.411		0.412	
학교수준			0.157		0.472		0.753		0.786	
전체			0.069		0.207		0.425		0.426	

† p<.10,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표 III-61>에 고등학생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것처럼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여타 변인들이 모두 통제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은 고등학생의 몰입수준을 제고하는 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수준에서도 유의미한 변인이 포착되었는데, 교사들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평균 몰입수준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모델 5 참조, $b=1.041$, $p<.05$). 또한 네트워크 지수 변인도 정적(positive)인 계수를 보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의 경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가 체험활동을 위해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교사들이 체험활동에 열의를 지닌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내적 발달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큼을 시사한다. 이 같은 모형은 몰입에 대한 개인수준 분산의 41.2%, 학교수준 분산의 78.6%, 충분산의 42.6%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 무동기 수준

- ◎ 개인수준 및 학교수준에서 여타 통제 변인들을 모두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한 학생일수록 무동기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에서는 직접효과가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자아존중감이나 몰입과 같은 심리적 변인을 매개하여 주로 간접효과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동기 상황에 처하는 것은 창의성, 인성을 비롯해 청소년들의 제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데 획일화된 교육과 인지적 발달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인해 우리 청소년들은 무동기 상황을 벗어나 내적 동기를 가질만한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다. 이 같은 조건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무동기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동기형성의 기회가 마련되고, 이처럼 형성된 동기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경험들이 지속된다면, 청소년들의 성장·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험활동과 ‘무동기’의 관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체험활동 관련 경험이 청소년들의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학교급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가 아래 <표 III-62>, <표 III-63>, <표 III-64>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III-62>에 제시된 초등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가족구조,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 학력, 학업 성적 등 기본 특성들을 통제한 후에도,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한 학생일수록 무동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델 3 참조, $b = -.093$, $p < .001$). 모델 4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자아존중감이나 몰입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통제된 후에도 지속되는지 확인해보고자, 자아존중감과 몰입 변인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이전 단계에 비해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의 추정치의 크기는 다소 줄어들었지만($-.093 \rightarrow -.035$), 여전히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무동기와 몰입은 무척 긴밀한 관계에 있다. 이처럼 공변량이 큰 변인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에 대한 경험 변인의 유의성이 검증된 것은, 그 만큼 체험활동에 대한 경험이 무동기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델 5에서는 학교수준 변인이 추가되었지만, 학교수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III-63>에는 중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무동기에 대한 체험활동 관련 변인의 효과가 부정(negative)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요 기본 배경변인을 통제된 후에도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하고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일수록 무동기는 낮게 나타남을 의미한다(모델 3 참조, $b = -.097$, $p < .001$). 그런데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는 달리 모델 4, 모델 5에서 자아존중감과 몰입수준이 추가되면서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인의 유의성이 소실된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경우에는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자아존중감 및 몰입 변인을 매개하여 무동기에 이른바 ‘간접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앞선 분석에서 살펴본 것처럼 체험활동 경험이 자아존중감과 몰입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무동기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모델 5에서 학교수준 변수들이 추가되어도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표 III-64>에 제시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 및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제반 기본 특성들이 통제된 후에도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학생일수록 무동기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모델 3 참조, $b = -.107$, $p < .001$).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처럼 무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들이 추가되어도 유의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모델 4 및 모델 5 참조).

앞서 살펴본 중학생의 경우, 체험활동 관련 경험이 자아존중감이나 몰입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의해 완전 매개되는 것으로 드러난 반면,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은 추정치의 크기가 다소 줄어드는데 그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체험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이 초·중·고 학생들의 무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준다.

표 III-62 체험활동이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초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11.299***	.209	10.897***	.252	10.979***	.246	11.158***	.232	11.367***	.299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713*	.318	.571 †	.307	.260	.299	.264	.300
가족구조			.570	.560	.432	.570	.204	.617	.201	.621
가정의 경제적 수준			-.314*	.153	-.181	.153	.070	.158	.070	.160
부모 학력			-.135*	.071	-.104	.073	-.071	.070	-.077	.069
학업 성적			-1.464***	.151	-1.255***	.146	-.529**	.159	-.528**	.160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093***	.022	-.035*	.017	-.035*	.016
자아존중감							-.255***	.032	-.254***	.032
몰입수준							-.021**	.008	-.021**	.008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17	.018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092	.327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015	.165
지역(중소도시)									-.204	.419
지역(읍면지역)									-.647	.488
분산										
개인간 분산(σ^2)	34.020		31.918		30.679		27.974		27.977	
학교간 분산(τ_{00})	2.032		1.793		1.981		1.395		1.481	
전체	36.052		33.711		32.660		29.369		29.458	
집단내 상관(ICC)	0.056		0.053		0.061		0.047		0.050	
누적설명분산 (R^2)										
개인수준			0.062		0.098		0.178		0.178	
학교수준			0.118		0.025		0.313		0.271	
전체			0.065		0.094		0.185		0.183	

† p<.10, *p<.05, **p<.01, ***p<.001

표 III-63 체험활동이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중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17.468***	.259	17.510***	.344	17.484***	.329	17.410***	.304	17.264***	.353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253	.376	-.214	.366	-.089	.341	-.096	.340
가족구조			1.014†	.576	1.178*	.588	1.239*	.559	1.216*	.556
가정의 경제적 수준			-.126	.205	-.059	.205	.148	.195	.151	.196
부모 학력			.022	.070	.033	.068	.084	.068	.086	.069
학업 성적			-1.984***	.176	-1.850***	.176	-1.326***	.173	-1.326***	.174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097***	.019	-.016	.019	-.015	.019
자아존중감							-.220***	.032	-.221***	.031
몰입수준							-.044***	.010	-.044***	.010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08	.022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223	.271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210	.204
지역(중소도시)									.538	.492
지역(읍면지역)									-.748	.664
분산										
개인간 분산(σ^2)	52.458		48.130		47.280		43.659		43.665	
학교간 분산(τ_{00})	3.525		3.286		2.881		2.640		2.657	
전체	55.983		51.416		50.161		46.299		46.322	
집단내 상관(ICC)	0.063		0.064		0.057		0.057		0.057	
누적설명분산 (R^2)										
개인수준			0.083		0.099		0.168		0.168	
학교수준			0.068		0.183		0.251		0.246	
전체			0.082		0.104		0.173		0.173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64 체험활동이 무동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고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b	se	b	se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19.639***	.232	19.582***	.295	19.485***	.271	19.409***	.264	19.303***	.333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029	.389	.159	.360	.331	.357	.353	.361
가족구조			.386	.412	.498	.403	.398	.403	.326	.408
가정의 경제적 수준			-.107	.156	-.052	.158	.186	.158	.206	.157
부모 학력			-.049	.061	-.057	.059	-.051	.057	-.036	.058
학업 성적			-2.213***	.135	-2.092***	.129	-1.764***	.130	-1.781***	.131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107***	.013	-.063***	.014	-.063***	.014
자아존중감							-.197***	.023	-.197***	.023
몰입수준							-.021**	.006	-.021**	.006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06	.018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209	.357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015	.233
지역(중소도시)									-.543	.416
지역(읍면지역)									.058	.539
계열(특성화고)									.834*	.402
분산										
개인간 분산(σ^2)	49.771		44.817		43.814		41.905		41.901	
학교간 분산(τ_{00})	4.378		3.913		3.174		3.063		3.042	
전체	54.149		48.730		46.988		44.968		44.943	
집단내 상관(ICC)	0.081		0.080		0.068		0.068		0.068	
누적설명분산 (R^2)										
개인수준			0.100		0.120		0.158		0.158	
학교수준			0.106		0.275		0.300		0.305	
전체			0.100		0.132		0.170		0.170	

† p<.10, *p<.05, **p<.01, ***p<.001

D.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교가 지역사회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할수록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눈에 띄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는 일관되게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은 높아지고 무동기 수준은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어떠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지, 또 학교는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표 III-65>, <표 III-66>, <표 III-67>에 제시하였다.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은 흐름을 따라 구성되었다. 먼저 모델 1에서 기초모형을 통해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학교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 모델 2에서는 학교수준 변인의 효과를 확인하고, 모델 3에서 개인수준 변인을 추가한다. 이처럼 분석모형을 구성한 이유는 여기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은 단순히 개인수준과 학교수준에서 어떠한 변인이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어떠한 특성이 차이를 야기하는가’를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수준 변인을 먼저 투입하여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본 후, 개인수준 변인이 추가되어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를 차례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먼저 모델 1에 제시된 기초모형에서 집단 내 상관(ICC)값이 43.7%로 대단히 높게 도출된 점이 눈에 띈다. 이 같은 결과는 초등학생 개개인이 지니는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는 약 44%가 학교수준 변인에 의해 결정되며, 56%가 개인수준 변인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경우, ICC가 8~9% 수준을 유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대해 학교 간 차이가 무척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꿔 말하면, 학교의 특성에 따라 초등학생들이 느끼는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나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큼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델 2와 모델 3에서 분석된 결과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네트워크 지수나 체험활동에

대한 해당 학교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수준, 외부 인력이나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등 관련 변인들의 효과가 확인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학교수준 변수 중에서는 지역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가 덜 긍정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밖에 개인수준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좋고 부모의 학업 성적이 좋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나 기대 수준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65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55.887***	.919	58.266***	.861	58.700	.848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1.062*	.517
가족구조					-1.743	1.118
가정의 경제적 수준					1.098***	.252
부모 학력					.174	.116
학업 성적					2.107***	.323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19	.074	-.014	.070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481	1.205	1.105	1.182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460	.652	.448	.633
지역(중소도시)			-4.855*	2.090	-4.565*	2.007
지역(읍면지역)			-1.418	1.391	-.918	1.331
분산						
개인간 분산(σ^2)	101.795		101.789		95.843	
학교간 분산(τ_{00})	79.126		76.839		71.894	
전체	180.921		178.628		167.737	
집단내 상관(ICC)	0.437		0.430		0.429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0001		0.058	
학교수준			0.029		0.091	
전체			0.013		0.073	

† p<.10, *p<.05, **p<.01, ***p<.001

중고등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는 좀 더 주목할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중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가 제시된 〈표 III-66〉에서 학교수준 및 개인수준 변인이 모두 투입된 모델 3을 중심으로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수준에서 네트워크 지수가 클수록, 또 외부 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답한 학교일수록 학교 평균 학생들이 응답한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학교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때,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갖게 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양상은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감지된다. 〈표 III-67〉에 제시된 고등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도, 네트워크 지수가 높게 나타난 학교일수록 학교 평균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가 더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모델 3 참조, $b=.103$, $p<.01$). 또한 해당학교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체험활동 운영에 참여할수록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에 비해 외부 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학생에 대한 분석 결과와 다소 대조를 이루었다.

이상의 결과는 초·중·고 학교급별로 변인의 유의성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가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연계할수록 학생들은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됨을 보여준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서 학교 간 분산이 유의한 것으로 판명된 바, 학교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6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중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45.776***	.402	46.110***	.597	45.442***	.670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464	.532
가족구조					1.785*	.862
가정의 경제적 수준					.733*	.281
부모 학력					.148	.111
학업 성적					1.341***	.262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72 †	.038	.062 †	.037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135	.491	-.112	.482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515	.353	.576 †	.341
지역(중소도시)			-1.009	.819	-.607	.799
지역(읍면지역)			1.075	1.085	1.695	1.087
분산						
개인간 분산(σ^2)	108.188		108.183		105.061	
학교간 분산(τ_{00})	9.234		8.459		8.054	
전체	117.422		116.642		113.115	
집단내 상관(ICC)	0.079		0.073		0.071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0001		0.029	
학교수준			0.084		0.128	
전체			0.007		0.03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표 III-67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고등학생)

	모델 1		모델 2		모델 3	
	b	se	b	se	b	se
절편(전체평균)	43.392***	.364	43.767***	.533	42.986***	.592
개인 수준						
성별(남학생)					1.450**	.532
가족구조					.879	.610
가정의 경제적 수준					.494	.249
부모 학력					-.064	.094
학업 성적					1.185	.205
학교 수준						
네트워크 지수			.096**	.035	.103**	.035
교사의 적극적 참여수준			.999	.378	1.049**	.376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 수혜 여부			-.858*	.370	-.815*	.390
지역(중소도시)			.334	.726	.261	.723
지역(읍면지역)			1.184	1.262	1.235	1.273
계열(특성화고)			-1.676*	.724	-1.774	.756
분산						
개인간 분산(σ^2)	107.101		107.096		105.172	
학교간 분산(τ_{00})	11.263		9.904		9.944	
전체	118.364		117.000		115.116	
집단내 상관(ICC)	0.095		0.085		0.086	
누적설명분산(R^2)						
개인수준			0.0001		0.018	
학교수준			0.121		0.117	
전체			0.012		0.027	

† $p < .10$, * $p < .05$, ** $p < .01$, *** $p < .001$

3.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시범사업 실태 조사 결과 요약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기관 및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코디기관과 학교 간에 외형적·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연계 관계가 구축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하여 두 기관 간에 업무협의회를 갖거나 체험활동 관련 연간 계획을 함께 구성하는 시스템은 마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코디기관과 학교 간의 연구모임처럼,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수 있는 자발적인 연계 시스템은 아직까지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코디기관과 시범학교 모두 담당자들이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모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디기관이 경우, 해당 사업을 1명 또는 2명이 담당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에 달했으며, 다른 사업보다 더 힘들고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주종을 이루었다. 시범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체험활동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중이 적지 않았으며, 특히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이러한 경향이 나타났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모형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증가하거나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다수의 응답자들이 긍정하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시범학교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90%를 웃도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요자들이 실제 참여 경험을 토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전국 수준 실태 조사 결과 요약

전국 수준에서 이루어진 실태 조사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300개 초·중·고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되거나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과 통합하여 운영되기보다는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재량활동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일선 학교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다소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해 줄 외부 자원의 도움에 대한 수요도 광범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학교와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주는 청소년 체험활동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는 응답이 82.7%로 나타나,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였다. 한편 교사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학생들은 체험활동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 같은 태도에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설문에서 학교급이 낮을수록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생들이 여타 학교급 학생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한편 다층모형 분석을 통해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 무동기와 같은 내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학교급에서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들이일수록 자아존중감과 몰입수준은 증가하고, 역으로 무동기 수준은 낮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기본배경변인은 물론 내적동기, 외적동기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통제한 후에도 강하게 유지되어, 체험활동 관련 경험 및 태도와 청소년의 발달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다만, 학교수준 변인의 효과는 기대만큼 뚜렷하지는 않았는데,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교사들이 체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외부 자원의 도움을 받는 경우, 해당 학교 학생들의 평균 자아존중감이나 몰입 수준이 증가할 소지가 감지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그렇다면 이 같은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에 학교 간 차이가 있는지, 또 학교 간 차이가 있다면 학교의 어떠한 특성이 이러한 차이를 야기하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학교급별로 다소 차이가 있긴 했지만,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의 네트워크 지수가 클수록 학교 평균 체험활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 점수도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가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좀 더 충분히 활용하고 이들 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를 유지할 때 학생들이 체감하는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시사점

(1)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 경감 대책 마련

일선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대해 갖는 부담을 경감시켜 줄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시범기관 및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전국 수준 실태조사 결과는 일관되게 실무자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일선 현장에 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못한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수의 담당자나 교사들이 체험활동 운영에 필요한 기획-자원 확보-실행을 모두 전담하려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코디네이터 기관이나 인력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교사 한 두 명이 기획-운영의 모든 업무를 전담하기보다는 코디네이터 기관이나 인력을 매개로 긴밀히 연계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체험활동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업무 부담도 경감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운영모형과 우수사례를 학교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체험활동 운영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본 설문조사 결과 확인된 코디네이터 인력이나 기관에 대한 현장의 높은 수요도 이 같은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학교 현장의 체험활동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을 통해 ‘창의체험지원센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효용성은 기대 만큼 크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803명의 응답자 가운데 본인의 지역에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2%에 불과했으며, 70%가 창의체험활동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2.8.27.). 본 연구에서 전국에서 대표성 있게 표집된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육지원청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4%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의 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과 같은 연계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장에서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사회연계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학교 밖 지역사회의

코디네이터 또는 현장 교사들)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자료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단,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이 자료가 단순한 정책홍보자료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실제로 체험활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

현장 교사들이 체험활동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요구를 지니고 있어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실제로 운용 중인 우수사례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학교 현장에 제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정리(整地)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지역사회연계가 보다 효율적·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2) 높은 학교급에서의 체험활동 내실화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

시범학교 조사, 전국 수준 체험활동 담당 교사 대상 조사, 그리고 학생 대상 조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이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느끼는 부담이나 어려움은 증가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감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아직까지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처럼 교과교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거나 입시를 목전에 둔 학교급에서는 체험활동을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체험활동이 현장에 정착되려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배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다른 교급에 비해 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 평가가 크게 우세했다. 초등학교가 담임제로 운영되는 등 중·고등학교와 교육시스템이 크게 다른 점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활동운영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소수의 ‘담당’ 교사가 체험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데서 비롯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체험활동을 내실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과 관련하여, 체험활동 관련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체험활동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인에 대해 시범학교 담당자 및 일반 학교 교사 모두 ‘좋은 프로그램’을 1순위 요인으로 거론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급을 막론하고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흥미와 만족도를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수요를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창의적 체험활동이 기존의 특별활동, 계발활동,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응답이 시범학교의 경우 61%, 일반학교의 경우 78%로 다수를 이루었다. 따라서 추후 현장에 체험활동을 확산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는 무조건적으로 외연을 넓히는 데만 집중하기보다는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데도 좀 더 정책적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3) 청소년들의 만족도 제고 방안 모색: 진로활동과의 연계 및 청소년들의 주도적 참여 강화
심층 분석 결과,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 학생들이일수록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에서 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유관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검증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단지 체험활동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는 체험활동과 진로를 연계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체로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체험활동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30.5%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다소 회의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초등학생에게서 43.7%로 높게 나타났을 뿐, 진로 결정이 보다 본격화되는 시기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계고등학생 24%, 특성화고등학생 23%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시 해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

킨 활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이 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소위 ‘이벤트성’ 또는 일회적인 행사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추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때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로계발과 연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결정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체험활동과 진로계발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체험활동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돕는 데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즐거움’, ‘자기만족’, ‘자아발견’ 과 같은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전은설·임영식, 200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추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연계체제를 구축할 때는 청소년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청소년 체험활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으로서도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들이 이미 마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객체가 아니라,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기획-구성-운영하는 제반 단계에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법에 대해 많은 이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제4장 사례조사에서 소개할 것처럼 이와 관련한 성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널리 소개함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동할 필요가 있다.

(4) 지역사회연계를 위한 기초 다지기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모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기본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모임을 강화하거나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일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간 계획 수립, 업무협의회 개최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연구모임 운영처럼 자발적인 연계·협력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연계·협력 관계를 유지·강화·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수 있는 연계·협력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험활동 운영에 참여하는 담당자들 간의 연구모임이 잘 운영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도 무척 중요하다. 지역사회연계 모형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려면 이 모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일단 ‘성공’의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연계를 강화했더니 운영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 있는 변화가 체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공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위치하든 학교 밖에 위치하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구체적인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들의 역량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사례들이 관찰되는 바, 이러한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 IV 장

지역사회연계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조사결과

1. 사례조사의 개요
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제 IV 장¹⁵⁾ 지역사회연계 청소년 체험활동 사례조사결과

1. 사례조사의 개요

1) 사례조사의 목적

본 연구가 사례조사를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그림 II-1>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을 위한 장기모형’ (제2장, p.13)이 실현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하는가, 그 실현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이다. 달리 말하면,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을 밝히고, 2011년 1차년도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된 모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

2) 사례조사의 방법 및 대상

사례조사는 국내사례와 일본사례를 조사하였다. 국외 사례조사 대상으로서 일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은 1998년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도입된 이래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크게 강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청소년 직업체험활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아울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연계를 통한 「커뮤니티 스쿨」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유사한 교육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일본의 사례들은 문제점이나 실현가능성을 발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사한 정책을 우리나라보다 앞서 시행하면서 많은 우수 사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헌자료를 통해서만 살펴볼 경우에는 외국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현지방문(2012년 6월)을 통해서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15) 4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혜순(송실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집필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 연계방안연구」(김현철 외, 2010)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 I」(이기봉 외, 2011)에 소개된 일본 요코하마, 효고현 및 케센누마시 사례,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 사례와 두 연구에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도 활용하였다.

국내사례조사는 청소년기관사례와 학교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청소년기관 사례는 2012년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추진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에 참여한 코디네이터 기관(16개 시도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44개소) 사례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모범적인 청소년기관사례를 조사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국의 89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설치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중 인천 및 강원지역 센터의 사례도 조사하였다. 학교사례는 지역 교육지원청의 소개를 받거나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창의인성모델 학교사례 중 모범사례를 찾아 조사하였다. 학교사례 중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청담중학교에 대해서는 면접조사와 참여관찰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청담중학교가 생산한 각종 문서도 분석하였다. 기타 학교에 대한 사례조사는 사례발표세미나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례조사의 대상과 방법을 정리하면 <표 IV-1>과 같다. 그렇지만, 표로 일일이 정리할 수 없는 많은 면접의 장면들이 있었다. 세미나, 워크숍, 자문회의 등을 통해서 수시로 면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표 IV-1 사례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국가별	조사대상	조사방법(조사기간)	비 고
한국	시범사업참여 코디네이터기관 (44개 기관)	면접조사, 내용분석, 사례발표세미나 (2011년 3월~2012년 12월)	
	시범사업 미참여 청소년기관 (7개 기관)	면접조사, 내용분석, 사례발표세미나 (2012년 6월~10월)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5개 기관)	세미나(2012년 10월)	
	초·중·고등학교 (초 3개교, 중 4개교, 고 4개교)	면접조사, 내용분석, 사례발표세미나 (2012년 5월~10월)	단, 청담중학교에 대해서는 면접조사, 참여관찰, 내용분 석 병행
일본	동경도 및 동경도교육청 (와쿠 와쿠 워크 담당자)	내용분석, 면접조사(2012년 12월)	
	문부과학성 국립교육정책연구소 (캐리어교육 담당자)	내용분석, 면접조사(2012년 12월)	
	동경 소재 중학교 2개교 조에츠시 소재 초·중 각 1개교	내용분석, 면접조사(2012년 6월)	
	조에츠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등)	내용분석, 면접조사(2012년 6월)	
	케센누마시 교육위원회 (교육장, 부교육장)	내용분석, 면접조사(2010년 8월)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과 청소년활동정책 연계방안연 구」(김현철 외, 2010)의 일환 으로 추진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 (종합적인 학습시간 담당자)	내용분석, 면접조사(2010년 8월)	"
	효고현 교육위원회 (트라이 아르 워크 담당자)	내용분석, 면접조사(2010년 8월)	"
아일 랜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 관련 전문가	내용분석, 면접조사(2011년 6월)	1차년도 연구 일환으로 추 진

3) 사례조사결과 분석방법

사례조사결과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2012년도 시범사업운영을 통해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시범사업 참여 코디네이터기관을 포함한 청소년기관 사례, 학교사례, 일본사례 등을 유형화 한 다음,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2. 지역사회연계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사례 조사결과

1) 시범사업의 운영평가

2011년과 2012년 2년간의 연구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평가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사례조사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시범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시범사업운영에 대한 평가는 시범사업 결과보고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와 시범사업평가보고서(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b) 그리고 컨설팅과정에서 이루어진 면접조사결과자료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가. 시범사업의 성과

2011년 시범사업은 2개 지역 2개 코디네이터 기관, 6개 시범학교가 참여하는 규모로 진행되었지만, 2012년 시범사업은 전국 16시도 44개 코디네이터 기관, 100개 시범학교가 참여하는 규모로 확장되었다. 양적으로도 팽창했지만, 질적으로도 개선되었다. 시범사업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청소년 기관에 대한 학교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
- ② 학교의 변화를 꾀하려는 학교사례들이 발견되었다.
- ③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위상이 높아졌다.
- ④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⑤ 프로그램 제공자에게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청소년 기관의 기능이 변해가고 있다.
- ⑥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였다.
- ⑦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이용률이 높아졌다.
- ⑧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었다.
- ⑨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기능이 강화되었다.

① 청소년 기관에 대한 학교의 인식 변화

그간 많은 청소년기관의 전문가들이 학교와의 연계가 어렵다는 점을 토로해 왔다. 그래서 학교에 접근하려 해도 ‘문전박대를 받는다’, ‘세일즈맨 보듯이 한다’ 는 입장들이 많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범사업은 학교가 청소년기관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시범학교 교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의 운영은 큰 성과는 없었다 하더라도 교사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이러한 모임은 더 개선되어야 하지만,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되었다. 교사들의 참여는 많지는 않았지만, 공동 워크숍 등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도 들을 수 있었다(서울S고등학교 면접조사). 단순히 생각하면 학교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이유에서건 학교가 청소년기관과 연계되는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청소년기관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는 변화가 있었다. 물론 학교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기관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차이는 컸다. 처음부터 학교와 밀접하게 연계해 오던 청소년기관도 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청소년기관에 대한 신뢰가 더욱 커진 경우들이 많았다. 학교와 연계하기 어려워했던 청소년기관들 중에는 시범사업을 계기로 학교로부터 신뢰를 얻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기관들도 있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크게 홍보되지 않다가 인지도가 높아진 사례들도 있다. 한마디로 청소년기관에 대한 학교의 인식이 변화되는 성과를 얻었다.

② 학교의 변화를 꾀하려는 학교 자체의 노력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시범학교 중 나름대로의 변화를 꾀하려는 학교사례도 발견되었으며, 가시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학교들이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와 선호도가 개선된 점이다. 시범사업을 통해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 사례들이 있으며, 지역사회로부터의 인식이 개선된 경우도 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주고, 그로 인한 교육적 효과를 거두게 되면서 더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하게 되었다.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원이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코디네이터 기관을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경험한 학교에서 나타나는 변화였다. 뒤에서 기술할 시범사업의 문제점 중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지원만 받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는 문제점이 있는데, 학교 자체의 변화를 선택하려는 경우와 양날의 칼과 같은 관계이다. 코디네이터 기관의 존재는 분명 학교로서는 좋은 조건이 되지만, 학교의 의지가 없을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 많은 부담이 코디네이터 기관으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계량적인 수치로 정확히 말하기는 힘들지만, 3장의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학교의 요구는 높아졌지만, 그것이 반드시 학교 자체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었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 같은 문제는 시범사업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도기적인 현상일 수 있다. 다만, 코디네이터 기관의 기능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성과는 달라진다. 시범사업이 특정한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코디네이터 기관은 학교의 변화를 유인하는 데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보였다.

③ 청소년기관의 위상 변화

시범사업에 참여한 청소년기관은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시범학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제3장 참조)에서 알 수 있듯이 시범학교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많은 코디네이터 기관들이 강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는 했지만,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진 것만은 분명하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는 분명하게 감지되었다. 시범사업지침을 통해서 코디네이터 기관에게 시범학교와 학교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하였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코디네이터 기관과 공동으로 학교연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실제로 많은 기관들이 그런 요구를 받거나 공동으로 학교연간계획을 수립하였다. 학교연간계획 수립 참여는 청소년기관이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는 색다른 경험이다. 그 만큼 학교가 체험활동에 관한 한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기관은 학교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함으로써 학교교육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도 전문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청소년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다. 학교와의 관계에서만 청소년기관의 위상이 높아진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자원의 계발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위상이 높아졌다.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또 홍보가 될만한 사업성과들도 많아졌다. 학교가 예산을 투입하여 청소년기관과 공동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사례도 생겼다. 이로 인하여 청소년기관의 수익이 증가하였다. 울주군 청소년수련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 p.39).

소수의 코디네이터 기관에 한정되지만,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와의 연계가 활발해진 기관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시서구청청소년수련관의 사례이다. 학교 뿐만 아니라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도 청소년기관에 대한 인지도와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나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함으로써 다양한 네트워크가 가능해지고, 그 만큼 역할의 범위도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연수에 강의인력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시범사업에 강조하고 있는 연구모임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는 청소년지도자 뿐만아니라 교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범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제3장에서 언급한대로 1/3의 코디네이터 기관은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3 정도의 코디네이터 기관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1/3 정도의 코디네이터 기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b).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충실하지 못한 기관은 기관의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연계 가능한 주변의 지역사회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기관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적어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④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에서는 이른바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을 코디네이터 기관에 요구하고 있다. 특화 프로그램이란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계획에 맞추거나 학교급이나 학년별로 맞춘 청소년기관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을 말한다. 이러한 특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프로그램 개발의 수단이다. 청소년기관의 고유한 역할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에 충실하되,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도 적합한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학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다. 제3장의 설문조사결과에서처럼 학교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프로그램이었다. 청소년기관에게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서의 기능을 부여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러한 학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따라서 청소년기관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된다.

실제로 시범사업에서 학교가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한 것은 이러한 특화 프로그램들이다. 양질의 프로그램은 학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특화 프로그램은 청소년기관의 대표 브랜드이며, 학교의 높은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⑤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로 청소년기관의 기능변화

청소년기관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시범사업의 가장 큰 의의는 청소년기관이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닌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또는 네트워크로서 기관의 정체성

을 바꾸는 것이었다. 특화 프로그램은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내에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기관들은 많이 있다. 박물관, 도서관 등 다양한 공공 문화시설 및 기관이 있고, 민간단체와 기관도 많고, 사교육 기관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있지만, 정작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운영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는 없다. 궁극적으로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사업이라면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또는 네트워크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이를 통해서 청소년기관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존재감을 키울 수도 있다.

몇몇 청소년기관은 이러한 기능을 중심으로 기관의 새로운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고, 기능을 재편하기도 했다. 프로그램 운영 중심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무게 중심을 옮긴 것이다. 많은 청소년기관들이 여전히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더 익숙하지만 변화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고 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을 뿐이다. 지역사회 내의 유관 기관들이 네트워킹됨으로써 학교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변화를 가져온 사례도 있다. 이러한 역할의 변신은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⑥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 강화

시범사업의 목적이자 청소년기관의 역할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강화이다. 점진적인 변화이기는 하지만,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도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지만, 코디네이터 연수, 시범사업 워크숍 등의 기회는 코디네이터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였다. 일부 기관에 한정된 것이지만, 각종 연구모임의 운영도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청소년기관들 중에는 자체적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코디네이터들의 역량이 강화되었다. 시범사업 운영자체가 역량강화의 수단이 된 셈이다.

⑦ 청소년기관의 청소년이용률 제고

청소년기관의 낮은 청소년이용률은 청소년기관이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고민거리이다.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서 청소년이용률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자료가 수집되지는 않았지만,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기관의 이용률이 높아진 것은 전반적인 경향으로 보인다. 학교와의 연계는 당연히 주종의 청소년이용률을 높여준다. 시범사업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관이 홍보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기관이용률이

높아졌으며, 시범사업을 계기로 주말의 청소년이용률도 높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 것도 시범사업의 중요한 성과 중의 하나이다.

⑧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시범사업의 장기적인 목적이기도 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은 아직은 지역사회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준은 아니다. 청소년기관과 학교가 연계되고 몇몇 기관들이 연계되기 시작한 정도이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변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촉매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 어떤 형태든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⑨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기능과 컨설팅 기능이 강화되었다.

2011년 시범사업은 두 개 지역에서 실시되었으나, 2012년 시범사업은 16개 시도로 확장되었다. 시범사업이 16개 시도로 확장되면서 달라진 것 중의 하나가 컨설팅단의 운영이었다. 컨설팅단은 중앙 컨설팅 위원과 지역 컨설팅 위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지역 컨설팅 위원으로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전문인력이 참여하였다. 지역 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컨설팅에 참여함으로써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향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3년 사업에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예산(센터당 3백만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보다 긴밀한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여성가족부, 2012.12). 2012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3회에 걸쳐 해당지역 시범사업기관에 컨설팅 업무를 시행하였다. 그간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정책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원업무 중심의 전달체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대상이 없어서 성과가 미미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화되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컨트롤 하고,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각 지역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의 전달체계 모형이 구체화된 것이다.

나. 시범사업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다. 단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있다. 문제점들을 요약해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전향적인 변화가 미흡하다.
- ② 학교에 강사를 파견해 주는 형식의 사업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변화를 유인하지 못했다.
-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보다는 학교지원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 ④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과중하였다.
- ⑤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 ⑥ 시범사업 예산의존도가 높고, 안정적인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①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변화 미흡

시범사업에 참여한 코디네이터 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무게중심을 두는 변화는 극히 일부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변화를 시도하거나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관은 많이 늘어났지만, 전향적인 변화가 있는 기관의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더라도 기존의 사업수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향적인 변화가 어려운 기관들이 많다.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어려움도 적지 않다.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지원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시범사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더 어려운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다. 제3장의 설문조사결과가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 학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을 학교지원사업에 더 두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학교지원에 더 많이 집중함으로써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과중되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소홀하게 되었다.

② 학교지원중심 사업운영으로 인한 학교의 변화 유인 미흡

대부분의 코디네이터 기관이 학교에 강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와의 연계는 활발해졌지만, 전반적으로 학교가 스스로 다양한 시도하도록 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연계 방식은 학교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시범사업이 종료되어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 코디네이터 기관의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학교가 다양한 시도를 하는 데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시범사업

예산이 종료되더라도 학교는 학교내 예산을 투입하거나 학생들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연계하고자 할 가능성은 있다. 몇몇 시범사업운영사례로부터 이 같은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일방적인 지원방식의 사업운영방식은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중요하다. 청소년기관, 학교, 지역사회, 청소년이 함께 성장해 가는 모델로 가지 않으면, 예산지원이 중단될 때,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③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미흡, 학교지원 중심 사업운영

시범사업에서는 학교와 가칭 창의적 체험활동협의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시범사업기관의 1/3정도는 창의적 체험활동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학교와의 연구모임을 운영하는 기관은 1/3에 미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더 충실해가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학교와의 소통을 어려워하거나 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지 못하는 기관이 많으며,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한 비중도 높지 않다. 학교가 일방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학교와 소통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학교에 강사를 파견하거나 차량이나 시설 등 물적 자원을 제공할 경우, 상호 간에 연락체계가 미숙하여 혼선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학교에 대한 직접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비중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④ 코디네이터 업무의 과중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한 경험부족, 학교지원중심 사업운영은 결국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과중시켰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지금까지 청소년기관이 주로 해왔던 프로그램 운영사업과는 다른 차원의 업무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사업 자체가 코디네이터에게는 업무부담이 되지만, 무엇보다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별개의 업무로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업무부담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사회의 각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코디네이터가 일임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기관간의 관계에는 반드시 기관장의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2012년 시범사업운영매뉴얼에서 코디네이터의 역할보다는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다(이기봉 · 김현철 · 안선영 · 최창욱 · 전명기 · 이진원 · 김주희, 2011a). 2011년 시범사업에서도 코디네이터의 업무과중이 시범사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다(이기봉 외, 2011). 2012년도 사업운영매뉴얼은 이 점을 의식하여 기관차원에서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여성가족부, 2012).

⑤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 부족

시범사업의 성패는 코디네이터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연수의 기회는 2011년 1차례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없었다. 시범사업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간워크숍이나 성과발표회 등이 역량강화를 위한 대체 프로그램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기관별로는 자체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코디네이터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개발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각종 연구모임이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상의 역할을 했지만, 2011년에 시범사업이 출범하면서 연수교육과정과 운영매뉴얼이 개발된 바 있지만(안선영·최창욱, 2011), 공식적인 교육과정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⑥ 예산 의존성 및 불안정적 예산 구조

2011년 두 개 지역을 대상으로 두 개의 코디네이터 기관과 6개의 시범학교로 운영된 시범사업은 본 연구의 연구예산과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매칭 예산으로 운영되었고, 2012년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확보하여 16개 시도에서 44개 코디네이터 기관과 100개의 시범학교로 확장되어 운영되었다. 2013년도에는 예산의 확충없이 2012년과 동일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어 42개의 코디네이터 기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전체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증액이 없기 때문에 2년 연속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관 당 할당되는 예산규모의 증액도 없다. 예산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학교에 일방적으로 자원을 지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기관의 자생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무조건 많은 예산의 투입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기관이 지속적으로 선정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산이 크게 확충되지 않는 이상 한 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관의 시범사업에 예산에 대한 의존도 높기 때문에, 향후 지속 가능성을 예견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시범사업예산은 시범사업예산 이외의 다른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의 청소년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데 활용되길 기대한 바 있다. 따라서 문제는 안정적이지 못한 예산보다는 시범사업에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코디네이터 기관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인지도와 존재감을 높이고, 그로부터 다양한 재원확보의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 시범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여러 가지 많은 과제를 남겨 놓고 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변화를 보이는 확실한 사례를 찾는 것이고 장기적인 발전모형의 실현가능성을 찾는 것이 시범사업의 목적이자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성공적이다. 시범사업을 총량적으로 보자면, 아직 너무 많은 과제들이 남아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는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도 시범사업기관은 대부분 유입되어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모범사례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의 코디네이터 기관은 적어도 학교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었고, 학교와 연계하는 방법에 더 익숙해졌다.

가장 큰 관건은 사업의 중심을 학교지원사업에서 네트워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학교지원방식으로는 연계할 수 있는 학교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학교도 자생력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점진적이지만 코디네이터 기관들의 역량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센터의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시범사업의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평가된다.

한 마디로 시범사업을 통해 청소년기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은 셈이다. 그 어느 때보다 진로체험활동이 강조되고,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려는 시점이어서 시범사업의 장기적인 모형에서 목표로 하는 전환학년제나 진로체험주간 등의 사업이 정책적으로는 앞당겨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사회자원을 코디네이팅하는 코디네이터의 존재가 더욱 중요해져 시범사업의 의의도 더욱 높아졌다.

2)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

지역사회 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유형의 사례들로 분류되었다.

- ① 학교중심모형(학교장 리더십 모형) 사례
- ② 청소년기관 주도 학교지원중심 지역사회연계 모형 사례
- ③ 청소년기관-학교 상호협력형 네트워크 모형 사례
- ④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사례
- ⑤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 모형 사례

(1) 학교중심모형(학교장 리더십 모형) 사례

성공적인 학교사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은 학교장의 역할이다. 학교의 전권을 학교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와 철학이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결국은 학교장의 철학과 리더십이 대부분의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많은 것들이 학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성공적인 학교사례는 이와 같은 ‘학교장 리더십 모형’이며, 학교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중심모형’이다.

학교장의 리더십이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례도 드물게 있지만, 학교에서는 학교장의 리더십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가능하다. 학교중심모형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의 인사이동으로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학교사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다. 교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학교의 현실이다. 그렇지만, 사례조사를 통해서 몇 가지 지속가능성의 조건들을 발견하였다.

청담중학교는 2010년부터 체험활동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물론 학교장의 철학에 따른 것이다. 체험활동은 격주로 금요일 오후 반일제로 활발히 운영되었다. 2011년 새교장이 부임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되었다. 이렇게 지속성을 갖게 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역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학교장의 역할이다. 새로 부임한 학교장의 철학도 전임교장의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교사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는 기대감이 더 우세하였다.

일본 동경의 스와다이 중학교 사례도 비슷한 경우이다. 학교장은 학교커리큘럼을 체험활동 중심으로 하는 전격적인 변화를 시도하였으며, 매우 활발하게 체험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스와다이 중학교 교장의 전임 학교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이다. 스와다이 교장은 “제가 전에 있던 이 학교 인근의 학교에서도 먼저 이와 같은 시도를 했는데, 내가 떠나온 이후에도 그 학교는 여전히 잘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학교보다도 더 잘 하고 있다. 설사 내가 이 학교를 떠난다고 해도 계속해서 잘 되거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2012년 6월 면접조사). 스와다이 중학교 교장의 전임 학교인 아라카와구립 제3중학교에 대한 방문면접조사 결과 다양한 체험활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2012년 12월 면접조사).

청담중학교와 스와다이중학교, 아라카와구립 제3중학교의 사례도 결국은 교장의 철학과 리더십이 주효했지만, 학교장의 철학과 리더십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일단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 다양한 교육효과들이 나타나고,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사주체들이 그러한 변화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되며, 이러한 기대감이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학교문화로 정착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학교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관계없이 학교문화로 정착되면서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교사들의 동의와 합의도 중요하며, 학부모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한다.

학교장의 의지와 리더십 이외에 학교에서의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열정적인 교사

다양한 체험활동을 기획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이 역할은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부장 교사가 맡게 되는데, 결국 코디네이터 역할을 교사가 맡은 모형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업무가 뒤따르게 된다. 따라서 교사의 업무과중 해소를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그렇지만, 어느 학교라도 열정적인 교사들은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열정을 이끌어내는 것은 학교조직의 분위기와 좋은 나쁜든 많은 부분 학교장의 리더십에 달려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킨 학교의 사례를 보면, 그곳에 반드시 열정적인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으며, 이때 교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나. 창의적인 조직

열정적인 교사들이 소진되지 않고 학교변화를 위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조직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시작은 학교장의 철학과 리더십에서 출발하더라도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교조직 또는 조직문화가 변해야 한다. 우선 학교장의 철학은 물론 학교의 경영방침, 교육방침에 대해서 교사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교사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결국은 학교조직이 얼마나 유연한가가 학교조직의 창의성에 영향을 미친다. J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장의 권한이 교사들의 권한보다 상대적으로 약한데, 이러한 조직의 특성이 창의적인 조직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높인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J초등학교 교사면접조사결과).

학교를 창의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교사들의 공감대 형성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S중학교는 수업계획수립, 부서 운영 중점 과제 선정 등 학사 전반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지를 다지기 위한 1박 2일의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은 반드시 창의적 체험활동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자리이지만, 교사들이 학사전반에 대해 교육받고 논의하는 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일조한다(참고: 소진형, 2012). 이와 같은 워크숍을 통해서 학교장과 교사, 교사와 교사 간의 소통을 증진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청담중학교에서도 감정코칭, 즐거운 학급운영 등에 관한 연수를 운영한다든가, 새학년 시작 전에 교사전체를 대상으로 상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청담중학교 교사면접조사결과).

② 합리적인 업무분장과 업무매뉴얼

청담중학교 사례는 교사들의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다. 청담중학교에서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첫 단계에서는 무엇보다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가져올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여줄 방법을 찾는 게 급선무였다. 교사들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와 효율적인 창의적 체험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공감했지만, 업무가 증가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청담중학교, 2012; 청담중학교 교사면접조사결과). 청담중학교는 먼저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사 개인당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하는 변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교사 1인당 연간 5~6건 정도의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 업무경감효과를 가져왔다(청담중학교, 2012.1.30). 그 전에는 업무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았기 때문에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할 경우, 업무가 몰리는 교사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교사의 담임화’¹⁶⁾도 추진되었다. ‘전교사의 담임화’는 밀도 있는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방편이기도 하지만, 교사들의 업무를 균등화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교장, 교감, 보건교사, 교무복지부장, 창의연구부장을 제외한 32명의 교사 중 28명의 교사가 담임을 맡음으로써 업무를 균등화했다(청담중학교, 2012.1.30). 아울러 담임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담임업무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임업무매뉴얼은 학기 초부터 학년말까지 담임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고 학급별로 특색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주로 학급단위로

16) 전교사의 담임화를 위해 먼저 학급편성을 이원화하였다. 인가학급, 즉 수업학급은 20개 학급이지만, 담임학급으로 28개 학급으로 편성하였다(1학년: 6학급 → 8학급, 2학년: 7학급 → 10학급, 3학년: 7학급 → 10학급). 이렇게 해서 인가학급 운영 시 교사 1인당 지도학생수가 학급당 38명이던 것이 담임학급당 25명으로 줄었다. 전교사 담임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들어 밀도 있는 학습생활지도가 가능하게 되었고, 학급운영에 따르는 담임교사의 업무도 경감되었다(청담중학교, 2012).

편성되기 때문에 담임학급 편성을 통한 학급당 지도학생수의 경감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였다. 이러한 변화는 구성원들 간에 상호 격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데도 일조하였다(청담중학교 교사면접결과).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노력 없이 창의적 체험활동만 활성화하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교사들의 공감과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③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조에츠시(上越市)는 조에츠시 나뭇대로의 교육과정, 이른바 ‘조에츠 커리큘럼’을 운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조에츠 커리큘럼’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커리큘럼의 유연한 운영방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2012년 6월 일본면접조사결과).

카스가초등학교(春日小学校)의 교무실 앞 복도에는 학교연간계획서가 게시되어 있다. 교사들은 복도에 게시되어 있는 연간계획표 위에 수시로 포스트 잇을 이용하여 의견을 적어 놓는다. 이런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간계획을 유연하게 운영한다. S중학교의 사례처럼 연초에 워크숍을 개최하여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간계획의 유연한 운영은 수시로 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해준다.

시범사업 사례를 보면, 코디네이터 기관이 학교연간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것은 학교연간계획이 일단 수립되면, 좀처럼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청소년기관이 학교와 공동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연간계획의 공동수립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설사 학교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더라도 학교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도들을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입장에서든 변하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며, 학교조직이 소통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조에츠 커리큘럼’의 사례는 학교가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

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과적·합리적 운영기술

학교가 학교장의 리더십에 창의적인 조직으로 변할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실천들이 가능해 지겠지만,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노하우도 필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어떻게 편성하고 운영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자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도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사례에서 발견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및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표 IV-2 2012년 2학년 창의적 체험활동 반별 시간표

체험종류 날짜	서울숲 (무료)	영화제작1 (무료)	한국거래소 (무료)	(봉사)역삼 청소년수련원	스포츠댄스	(봉사) 면생리대제작
3/29(목)	1	2	3	4	5	6
4/26(목)	6	1	2(1시간수업)	3	4	5
5/3(목)	5	6	1	2	3	4
5/31(목)	4	5	6	1	2	3
6/21(목)	3	4	5	6	1	2
7/17(화)	2	3	4	5	6	1
체험종류 날짜	롯데월드 스케이트	영화제작2 (무료)	제과제빵	별자리여행	(봉사)수서청 소년수련관	청소년 미디어센터
7/19(목)	1	2	3	4	5	6
9/13(목)	2	3	4	5	6	1
10/11(목)	3	4	5	6	1	2
10/31(수)	4	5	6	1	2	3
11/22(목)	5	6	1	2	3	4
12/7(금)	6	1	2	3	4	5
12/18(화)	2학년 남자 전체 - 수영, 스노클링(무료)			2학년 여자 전체 - 진로 in 수서청소년수련관		
12/20(목)	아쿠아리움					
12/24(월)	총 평 가					

* 자료: 청담중학교(2012.1.30).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계획서.

* ()는 학생 자부담액임.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급별 순환식 프로그램 배치

〈표 IV-2〉는 2012년 청담중학교 2학년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계획표이다. 청담중학교는 학급단위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매회 마다 프로그램을 순환식으로 운영한다. 2010년에는 계발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격주로 금요일 오후 4~7교시에 운영하였으며, 계발활동 및 창의적 재량활동 통합프로그램 실시로 실시하지 못한 격주 금요일 교과수업은 토요일에 실시하였다. 2012년부터는 주5일 수업제의 전면도입으로 매월 목요일에 전일제 또는 반일제(오후 4~7교시)로 운영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급 단위로 실시하며, 각 학급이 학급 수만큼의 프로그램에 순차적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라서는 학년별로, 또는 몇 개 학급 단위로 통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학급단위로 체험활동에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지도가 용이하다.

둘째, 학급단위로 체험활동 자원을 섭외하기 때문에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이 더 많아

진다. 전교생이 함께 참여하거나 복수의 학급이 참여할 경우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지역사회자원은 그 만큼 줄어들게 된다.

셋째,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청담중학교는 프로그램 운영 후 교사가 평가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② 사전-사후활동 및 기록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체험활동의 경험 그 자체 만큼이나 체험활동의 사전활동이나 사후활동이 중요하다. 사전활동이나 사후활동이 없으면, 체험활동의 효과는 반감된다.

청담중학교의 사례를 보자. 청담중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사후활동으로 체험활동 실시 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체 제작한 체험보고서 양식에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체험활동 내용, 활동사진과 함께 체험과 연관된 진로탐색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한다. 진로탐색과제는 예를 들어, 강사의 직업을 미리 조사하거나 체험활동 시간에 강사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체험보고서는 개인파일로 정리되며, 1년 과정을 마치면 학교장 직인을 찍어 주어 각자가 체험활동자료를 진학준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12년에는 「PESS 노트」¹⁷⁾를 개발하여 2학년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PESS 노트」는 모든 체험활동 기록지들을 통합한 종합활동보고서 양식이다. 여름 중에는 학생들이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홍보하는 리플렛이나 UCC 동영상을 제작하는 대회를 개최한다. 여기서 우수한 작품을 홍보물로 활용한다. 연말에는 창의적 체험활동 보고서에 대해서 우수상 시상(최우수, 우수, 장려)을 한다. 모든 학생들이 성의있게 「PESS 노트」를 작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기록활동은 체험활동 이상으로 중요하다.

프로그램 실시 후에는 반드시 학년별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이때 프로그램 진행 시 발견된 유의할 점이나 문제점을 다음 차수의 동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급의 체험활동에 피드백하여 업무담당자와 체험기관 담당자가 협의를 통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2012년도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2학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1, 2학년은 창의적 체험활동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적용되지 않은 3학년은 교무업무시스템의 학생생활 중 창의적 재량활동과 계발활동에 나누어 기록한다(청담중학교, 2012.1.30.).

17) PESS는 신체활동영역(Physical Dimension), 감성활동영역(Emotional Dimension), 학습활동영역(Study Dimension), 봉사활동영역(Service Dimension)의 이니셜을 딴 용어로 2012년부터 청담중학교가 창의인성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의 목표이다. PESS는 이 네 영역별로 체험활동을 기록하는 노트이다.

③ 체험활동의 체계적 목표설정과 통합적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이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네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네 영역으로 나누어 운영할 필요는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지침」에서 영역의 구분과 관계없이 융합적인 활동으로 편성하거나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네 가지 영역을 거의 절대시 하는 경향이 있다. 네 가지 활동영역은 내용적으로는 중복도 심하다. 2011년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동아리-봉사-진로가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트라이앵글 모형’ (이기봉 외, 2011, p.21)의 활동과 같이 융합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어떤 방식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목표를 설정하든 학교 나름대로의 목표를 체계화하여 체험활동을 편성하는 것이 체험활동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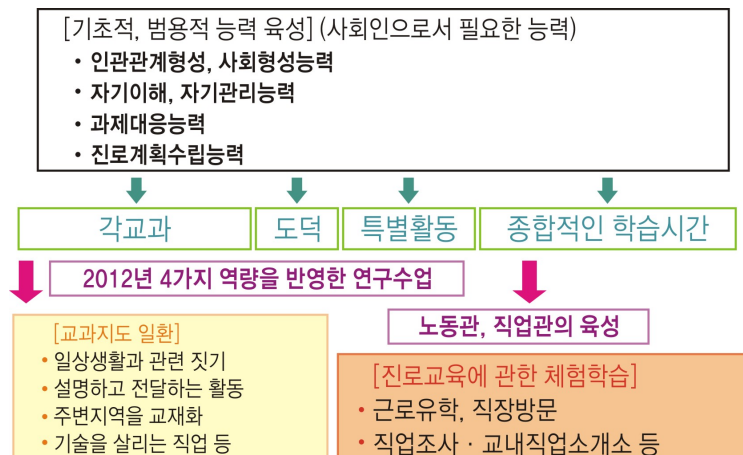
최근 학교교육과정 목표를 신체활동영역(Physical Dimension), 감성활동영역(Emotional Dimension), 학습활동영역(Study Dimension), 봉사활동영역(Service Dimension)의 네 영역으로 나누는 학교가 종종 있다. 청담중학교도 이 네 영역을 교육과정 목표로 설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을 배치하고 있다(표 IV-3). 이러한 목표설정 아래 학년에 맞는 ‘체험학습모형’을 만들어 다양하게 운영하기도 한다.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려고 해도 적절한 지역사회원이 연계되기 힘들며, 최소 운영단위가 학급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난점이 많다. 그래서 학생들의 요구조사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편성하기 보다는 창의인성교육의 목표 아래 하위목표를 두고(PESS), 연계 가능한 지역사회자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편성된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청담중학교는 전체 프로그램의 목표를 진로탐색에 두고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3학년의 경우 진로, 경제, 국제이해라는 세 가지 주제로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구체적인 진로탐색이 가능하도록 편성하였다. 이렇게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설정한 후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것은 각각의 체험활동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청담중학교에서는 담임교사는 각 체험 프로그램 별 활동내용을 기록할 때에도 진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청담중학교, 2012.1.30.).

표 IV-3 2012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활동영역

구분 학년	Physical Dimension	Emotional Dimension	Study Dimension	Service Dimension
1학년	스케이트 체험 생태숲 걷기 체험 찾아가는 수련교육 수영, 다이빙, 스노클링	전통예절교육 이미지 컨설팅 미소공연관람 장애발생 예방교육	별자리여행 진로체험	현충원묘역봉사 EM 환경교육
2학년	스케이트 체험 스포츠댄스 체험 생태숲 걷기 체험 다이빙, 스노클링	영화제작 아쿠아리움견학	한국거래소 제과제빵 별자리여행 진로체험 5컷만화, 뉴스제작 미디어체험	역삼청소년수련관 봉사체험 면생리대 만들기 수서청소년수련관 봉사체험
3학년		뮤지컬 관람 연극 관람	진로교육 4회 청소년금융교육 4회 세계문화이해교육4회	음성 사랑의 꽃동네 연수원

* 자료 : 청담중학교(2012.1.30).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계획서.

일본 동경의 스와다이중학교의 경우에도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를 진로교육으로 설정하고, 기타 교육과정 요소들을 모두 진로교육의 목표달성을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다(그림 IV-1). 일본의 경우에도 한국처럼 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종합적인 학습시간」이 도입되고, 또 최근에는 진로체험 활동이 강조되고 있다. 스와다이 중학교는 「종합적인 학습시간」과 교과 그리고 진로체험활동 등 학교내 모든 교육활동을 진로교육이라는 목표 하에 통합적으로 연계 운영하고 있다.



* 자료 : 諏訪台中学校(2012). 諏訪台中学校のキャリア教育.

【그림 IV-1】 스와다이중학교의 통합교육 목표설정

라. 체험활동의 효과 요인

① 교육적 효과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지속될 수 있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아마도 체험활동이 가져다주는 교육적 효과일 것이다. 체험활동의 활성화는 학교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더라도 불가피하게 업무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체험활동의 교육적 효과마저 없다면, 지속되기 어렵지만, 어떤 요인에 의해서건 일단 활성화되면,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체험활동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는 학교들은 한국의 학교든 일본의 학교든 모두 체험활동이 가져다 준 효과에 대해 확신한다. 2010년에 추진한 「초·중·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 정책의 연계방안연구」(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에서 추진한 한 시범학교(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은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고, 교사는 생활지도에 큰 도움을 받았다. 청담중학교의 경우에는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밝아졌다는 것이 교사들의 전반적인 평이다. 청담중학교의 경우, 주변의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는데,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른 학교보다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교사들은 말한다(청담중학교 교사면접조사결과). 본 연구의 2011년 1차년도 연구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상중학교는 청담중학교 모델을 벤치마킹하였고, 주변의 학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던 신상중학교 역시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다른 학교보다 오히려 선호도가 높아졌다(참고:이기봉·김현철·윤혜순·송민경, 2011). 그밖의 모든 사례조사대상 학교들은 체험활동이 학생들의 긍정적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2012년 학교대상 면접조사결과). 일본 효고현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학생 1주일 직장체험 프로그램인 「トライ やる ウィーク」 프로그램의 10년간 운영평가보고서는 효고현 지역출신 중학생들이 여러 정의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하고 있다(「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 2008). 일본의 조에츠시 여러 학교 교사들도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활성화가 청소년들의 긍정적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2012년 일본교사면접조사결과). 조에츠시 카스가 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 문제만 일으키던 한 문제학생이 5일간의 직장체험프로그램 이후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던 일을 회고한다(2012년 6월 일본면접조사결과).

구체적으로 청담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결과를 통해서 보면, 학생들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요.”(청담중학교2학년 남학생), “앞으로도 시험기간과 학원, 공부 스케줄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할 것 같다. 서울 숲으로의 체험학습은 이런 나의 생활 중의 따스한 휴식이었던 것 같다.”(청담

중학교2학년 여학생)라고 소감을 털어놓는다. 이와 같이 생활상의 변화가 가장 돋보이는 변화이다. 교사도 스트레스가 줄어든 즐거운 학교가 됐다는 점을 가장 큰 효과로 생각한다(청담중학교 교사면접결과). 학교 기물파손이나 학교폭력 등과 같은 폭력적 상황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여기 와서 아이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지 모르겠지만 별로 행복하지 않구나...기물도 너무나 파손되어 있고...자기들의 스트레스를 그런 식으로 풀더라구요...작년에 생활지도 부장을 했었는데, 자신 있게 말 할 수 있는 건 기물 파손이 없어진 겁니다...폭대위(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할 때 보면 중심학교였는데 1지구 9개 학교가 모였을 때 행복한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청담중학교 여교사).

또한 “각 나라에는 다른 문화가 존재하고 그 특색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토고는 우리가 정말 못사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그 문화만큼은 다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멋진 문화인 것 같다” (청담중학교 3학년 여학생)거나, “자전거를 배우면서 생각해보니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를 자주 활용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내 생각에 대한민국 시민들이 자전거를 잘 활용하려면 정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나 이용시설을 잘 확보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담중학교 2학년 여학생)거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장애인들을 무척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특정 장애인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도와줄 때는 먼저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청담중학교 1학년 여학생)는 등 교과서 밖의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거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관찰되었다. 물론 사회성 발달에도 긍정적이다.

제가 사립을 나와서 대계 아이들을 많이 몰랐었는데 이걸 하면서 많은 아이들을 알게 되어서 친해졌고, 제 생활에도 친구를 많이 사귀니깐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제가 더 밝아진 것 같고...친구들을 많이 사귀니깐 되게 행복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청담중학교 1학년 남학생).

이제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 생겨서 공감대가 있어 가지고 애들끼리 말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친해진 것 같아요(청담중학교 2학년 여학생).

그 밖에도 자신의 취미활동의 영역을 넓혀가기도 하며, 학교에서 행하는 체험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청소년수련관에서 봉사활동을 경험하면서 청소년수련관 봉사동아리에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활동을 이어가는 등 자기주도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며(청담중학교 3학년 여학생),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도 준다(청담중학교 3학년 여학생; 청담중학교 3학년 남학생).

물론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활동 가는 날을 굉장히 기다리면서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이 날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도 한반에 1~2명 정도 썩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담임선생님으로서 담임교사가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담중학교 여교사)라든가, “물론 프로그램은 재미있지만 재미없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학교에서 임의로 정해 주니까 하고 싶은 것을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청담중학교 3학년 남학생) 등 학생들의 불만사례도 있고,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조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어요” (청담중학교 3학년 여학생) 등 개선사항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불만이나 몇몇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체험활동은 지적인 영역에서 정의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② 교사들의 변화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학생들처럼 교사들도 교직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찾기도 한다.

처음 2008년도에 왔는데 아이들 지도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청담중에서)5년째거든요. ‘이제 교사 그만두어야겠다’, ‘이제 소통이 안 되나 보다’ 는 생각까지 했어요...요즘은 청담중학교에서 교사하는 것이 즐겁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힘을 얻었어요(청담중학교 여교사).

평상시에 알 수 없었던 학생들의 특성들을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그래서 생활지도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것이 교사들의 전반적인 평가이다. “아무래도 학교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또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합니다” (청담중학교 여교사). “톡톡 튀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다양한 표현을 하게 되면 선생님들도 몰랐던 면을 알 수 있고...용기를 주고 더 잘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청담중학교 여교사)

교사들간에 협조적이고 적극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중요한 변화이다. 학급담임끼리 아이디어 공유와 협조가 이루어지고, 시행착오를 줄여가며 보다 발전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해보니깐 훨씬 좋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요. 매번 활동에 대한 잘된 점, 잘못된 점. 한 번 하고 나면 ‘아, 이걸 이렇게 개선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을 것 같다.’ 저희가 반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반하고 나서 다음 반에 또 똑같은 프로그램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깐 그런 정보를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통해서...양식에 적어서 수정해주세요...정보 공유를 하게 돼서...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죠(청담중학교 여교사).

물론 교사들의 경우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업무부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많다.

선생님들의 업무가 너무 과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기대하시는 것도 많고 물론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업무가 너무 많아서...아이들한테는 좋은데요,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어요(청담중학교 여교사).

오전에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오후에 창체 활동을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업무가 그대로 밀려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언젠가의 날에는 결국 그 밀린 업무를 학교에서 퇴근 시간 이후까지 다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청담중학교 여교사).

또한 “항상 선생님 입장에서는 긴장하고 있어야 해요. 애들이 좀 풀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주시시키고,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청담중학교 여교사) 학생의 안전문제도 교사들에게는 부담으로 느껴진다.

교사들에게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물었다. 교사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외부자원 들어오면 너무 좋죠...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죠. 저희 학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다하게 되면 이런 센터 생기게 되지 않을까...코디네이터가 있다면 너무 좋죠(청담중학교 여교사).

이런 창의적 체험활동이 사실은 돈을 받든, 안 받든 외부단체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참석하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응해주셔서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드리죠...선생님이 하시기에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만약에 지역사회에 코디네이터분이 있으셔서 여러 학교를 담당해주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청담중학교 여교사).

③ 학부모들의 반응

체험활동을 활발히 운영하는 학교의 교사들은 모두 학부모들이 체험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말한다. 동경 스와다이 중학교는 학교선택제도입 이후 정원의 절반 정도밖에 채우지 못하다가 체험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원을 모두 채우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2012년 6월 일본접조사결과). 그 밖의 모든 학교사례를 통해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학부모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담중학교의 경우를 보자. 처음에는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지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다. “처음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 의견이 반반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믿어주신다” (청담중학교 여교사)고 말한다. 학생들도 “학부모의 반응이나 만족도는 들어보면 역시 거의 좋아들 하세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청담중학교 3학년 여학생)라든가, “저희 부모님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학교에서 해주니까 다행이라고 좋아 하세요” (청담중학교 3학년 여학생)라고 부모의 긍정적인 태도를 전한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반응에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스펙을 쌓는 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입학사정관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는데(청담중학교 여교사), 청담동이 지역적으로 특수하다보니 학부모들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관심도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지만,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즐거워하게 되었다는 점이 학부모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긍정적 평가와 지지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문화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요인이다. 학부모들의 이러한 기대는 설사 학교장이 바뀐다고 해도 학교가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을 강화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 지역사회 네트워크 요인

지금까지 살펴본 지속가능성의 요인들이 학교 내적인 요인이라며, 지역사회연계는 학교 외적인 요인이다. 지역사회연계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학교가 단순히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차원의 연계모형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연계 모형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자원은 단순히 자원일 뿐이어서 학교가 어떻게 변하든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표 IV-4 청담중학교의 지역사회자원 활용현황(2012년)

	1학년		2학년		3학년	
순번	체험내용	장소 및 체험담당기관	체험내용	장소 및 체험담당기관	체험내용	장소 및 체험담당기관
1	이미지컨설팅	김호진 컬러컨설팅	영화제작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진로교육4회	강남 청소년수련관
2	전통예절교육	운현궁	스포츠댄스 체험	강남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금융교육4회	강남 청소년수련관
3	스케이트 체험	잠실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체험	잠실롯데월드 아이스링크	세계문화 이해교육	강남 청소년수련관
4	꿈틀 청소년활동 인증프로그램	성동구청소년 수련관	경제교육	한국거래소	대학탐방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숙명여 대, 이화여대
5	생태숲 걷기운동체험	서울숲	생태숲 걷기운동체험	서울숲		
6	별자리여행	광진구청소년 수련관	별자리여행	광진구 청소년수련관		
7	미소공연	정동극장	대안생리대 만들기 (봉사활동)	강남 청소년수련관		
8	EM환경교육	강남 청소년수련관	아쿠아리움	코엑스		
9	수영, 다이빙, 스노클링	잠실 학생수영장	수영, 다이빙, 스노클링	잠실 학생수영장		
10	찾아가는 수련교육 (명랑운동회)	서울특별시 학생교육원	수서청소년수 련관 (봉사활동)	수서 청소년수련관		
11	장애발생 예방교육	국립재활원	제과제빵	강남 청소년수련관		
12	국립현충원 나라사랑 체험학습	국립현충원	다이빙 · 스노클링 체험	잠실 학생수영장		
13	연극관람	미정	5컷만화, 뉴스제작 미디어 교육	청소년 미디어센터		
14	진로교육	수서 청소년수련관	진로교육	수서 청소년수련관		

* 자료: 청담중학교(2012.1.30).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계획서.

다른 하나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보다 ‘강한 연계’의 형태를 띠는 경우이다. <그림 II-1>의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에서의 장기모형에 해당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 모형이다. 이런 모형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와의 연계 속에서 지역사회로부터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지에 따라 쉽게 학교문화가 변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아직까지는 전자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청담중학교의 경우에는 <표 IV-4>와 같이 2012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였다. 우리나라 지역사회연계 방식은 이와 같이 ‘학교중심형’의 지역사회연계 방식이 많다. 엄밀히 말해 지역사회자원 활용 모형이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은 아니다. 이른바 ‘느슨한 연계(weak tie)’이다. 여러 지역사회 자원들이 활용되고 있다. 네 곳의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어 있고, 특히, 3학년의 진로, 경제, 국제이해 교육은 모두 강남청소년수련관이 맡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 청소년수련관은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만 한다.

이와 같은 ‘학교중심 지역사회자원활용 모형’에서는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표 IV-5>는 청담중학교가 연계된 지역사회자원의 특징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 중의 일부이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표 IV-5>에 제시된 서울숲에서의 생태숲 걷기 운동은 매년 운영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는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표 IV-5 체험자원 선정과정 및 체험자원의 특징(예시)

순번	체험내용	장소	비용	교통편	준비물 및 참고사항	운영 가능 여부 및 선정 시 유의할 점
1	생태숲 걷기 운동 체험	서울숲	교통비 2,000원	1. 410 〇〇초등학교 버스정류장에서 타기 2. 6개 정류장 이동 후 서울숲 버스정류장에서 내리기 3. 서울숲 방향으로 532m 걷기(약 8분소요)	학생 준비물 필수사항 디지털카메라 필기도구 담임선생님이 유의할 사항 학생들과 정확한 집합장소를 정할 것	* 운영 가능함. * 서울숲에서는 학교 또는 시민과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기적으로 같은 요일에만 운영하고 있어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었음 ☞ 좀 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다양한 체험활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음. 특히 다른 기관들에서 운영하는 문학체험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상황 이어서 문학체험프로그램과 연결 가능함

※ 자료: 청담중학교(2012.1.30),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계획서.

‘학교중심 지역사회자원활용 모형’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지역사회와 더욱 밀접한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일본 케센누마시와 같은 유기적 네트워크 모형으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모형은 단위학교가 구축하기 어려운 모형이지만, 케센누마시에서도 처음에는 ‘학교중심 지역사회자원활용 모형’으로 출발했다. 케센누마시의 경우, 처음은 하나의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다. 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이 연계되다 지역전체의 네트워크 모형으로 발전되어 갔다(참고: 김현철·이기봉, 2011; 2010년 8월 일본면접조사결과). 케센누마시는 횡적으로는 지역의 여러 기관이 연계되고, 종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연계하여 지역전체의 통합운영계획을 수립하는 ‘커뮤니티 스쿨 모형’으로 이행하였다.

바. 예산의 확보

모든 것이 가능해도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된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지속성을 갖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이다. 모든 자원을 교육기부를 통해서만 활용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 창의적 체험활동에 배정하지 않았을 뿐 학교에는 나름대로 갖가지 예산이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에 예산을 배정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의 확보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S중학교교사면접조사결과). 청담중학교의 경우에는 1인당 9만원 정도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의 자부담을 일정 부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실 예산의 문제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학교의 청소년기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면, 학교의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청소년기관과 연계하려는 욕구가 강해진다. 실제로 학교로부터의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예산이 코디네이터 기관에 투입된 사례가 시범사업운영사례에서 보고되기도 하였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 p.39).

사. 종합

창의적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장의 리더십에 더하여 코디네이터 역할을 담당할 열정적 교사, 창의적인 조직문화형성, 효과적·효율적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법,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예산의 확보 등의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이 교장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교장의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한국과 일본의 몇몇 사례들은 학교중심의 교장리더십모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체험활동의 효과가 가능성의 원천이 된다. 체험활동이 활성화된 학교사례들은 체험활동의 활성화가 학생들의 인성과 사회성발달과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직무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이 체험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체험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이 지속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교장의 리더십과 제반의 요건들이 갖춰진다고 해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위한 교사들이 노력이 필요한데, 교과전문가인 교사들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전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경우 청소년의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사가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는 경우와 지역의 NPO센터가 맡는 경우가 있다. 교사가 코디네이터를 맡을 경우에는 그 역할이 지극히 제한된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社会教育実践センター, 2003).

(2) 청소년기관 주도 학교지원 중심 지역사회연계 모형 사례

‘학교장 리더십 모형’은 ‘학교중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자원과 얼마나 연계하느냐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대부분의 학교사례는 ‘학교중심모형’이다. 2011년과 2012년 시범사업은 ‘학교중심 모형’이 아닌 ‘지역사회연계 모형’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전제, 다시말해 코디네이터 역할을 교사가 아닌 지역사회기관(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청소년기관)이 하는 모형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추진되었다.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학교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지역사회연계모형’이라기보다는 ‘지역사회자원활용모형’이다. 적지 않은 시범사업기관이 ‘지역사회자원활용모형’에 더 가깝지만, 지향하는 모형은 ‘지역사회연계모형’이었다. 지역사회의 종적, 횡적 네트워크에 의해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케센누마시의 경우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김현철·이기봉, 2011; 김현철 외, 2010; 이기봉 외, 2011)에 가깝지만, 케센누마시의 경우도 처음에는 ‘학교중심 지역사회자원활용 모형’에서 시작해서 점차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으로 발전해 갔다.

지역사회연계모형은 시범사업과 같이 학교 밖에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역할을 하는 코디네이터기관이 있는 모형이다. 이러한 모형은 국내에는 시범사업 이외에는 없는 모형이다. 즉,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시범사업」 운영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코디네이터기관은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전도 새롭게 만들어야

하고, 목표도 달라져야 한다. 즉, 기관 중심의 프로그램 제공자로서의 기능에서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관 중 몇몇 기관들은 이러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11년 본 연구차원에서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시범사업은 청소년기관이 코디네이터 기관이 되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학교지원중심 네트워크 모형’이었다. ‘학교지원중심 네트워크 모형’은 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한시적인 모형이다. ‘학교지원중심 네트워크 모형’은 다시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지원중심 모형’으로 나뉜다. 어떤 모형이든 코디네이터가 학교 밖의 청소년기관에 있는 모형이다.

첫째,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은 청소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중심으로 지원하거나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더라도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더라도 단순히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 중심이 되는 모형이다. 많은 시범사업기관들은 초기모형인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 ‘청소년기관 자원중심 지원모형’에서는 학교는 수동적으로 대응한다. 시범사업의 시범학교들도 대부분 수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 때문에 코디네이터기관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둘째,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지원중심 모형’은 최대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학교가 보다 넓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있도록 지원하는 모형이다. 시범사업기관 중 일부 기관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지원중심 모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적어도 청소년기관에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학교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도 높아진다. 학교로서는 더 많고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모형 역시 학교의 자생력을 키워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떤 모형이든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의 업무량은 늘어난다. 물론 이것은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을 부가적인 업무로 보는 데서 오는 문제이기도 하다.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식은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담팀을 둘 정도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라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은 기관의 비전에 반영되고,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청소년기관-학교 상호협력형 네트워크 모형 사례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청소년기관과 학교와의 관계이다. 지금까지

청소년기관은 학교와의 연계를 어려워했지만,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학교와의 장벽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학교가 너무 코디네이터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이 문제가 되었다. 청소년기관은 지원하고 학교는 지원받기만 하는 ‘청소년기관 주도 학교지원중심 모형’은 학교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기관에도 좋지 않다. 시범사업이 궁극적으로 기대하는 관계는 상호협력적인 관계이다.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통해서 코디네이터 기관도 학교도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관과 학교 간의 MOU체결은 관계의 시작일 뿐이다. 학교연간계획 뿐 아니라 학생요구조사도 청소년기관과 학교가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상호간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간다. 코디네이터 기관이 일방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기관은 학교장이나 교사를 청소년기관의 운영위원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청소년기관장이나 코디네이터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의 공식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등 상호간의 공식적인 교류도 상호협력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디네이터와 교사들이 함께 프로그램 개발 등 상호협력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연구하는 모임을 운영하는 것이다. 청소년기관과 교사 간의 연구모임 운영은 상호교류의 차원을 넘어 두 기관의 역량을 증진시키는 동력이 된다. 시범사업 사례에서 연구모임은 코디네이터의 역량강화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되며, 교사들이 프로그램 개발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도 가능하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 교사들과의 연구모임을 통해 교과 연계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도 있다(김일주, 2012).

청소년지도자와 교사들간의 상호협력 관계는 지역사회의 더 다양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단위학교 교사들과의 연구모임을 넘어 공식, 비공식 교원조직과의 연계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체험활동의 운영 경험을 교사들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교사들은 교과전문성을 바탕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부분적인 시도에 그쳤지만,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기관은 교사들과의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기관의 전문성이 학교나 교사들의 전문성과 상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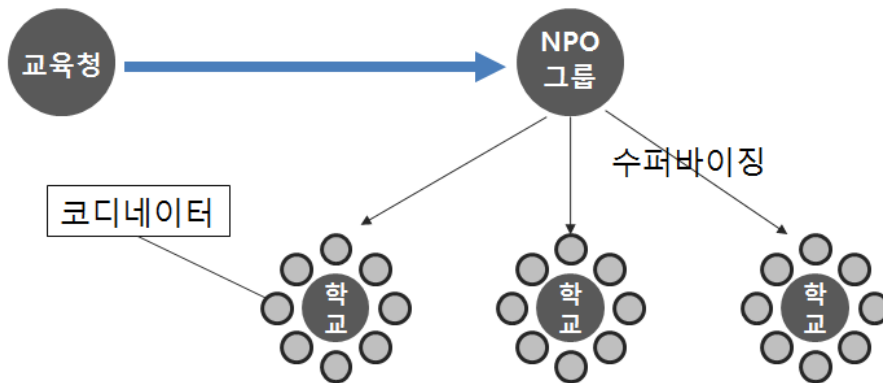
시범사업은 청소년기관과 학교 양자 간의 네트워크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 네트워크를 확장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작되었다. 이런 유형의 모형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에서 강조 되는 것은 단순히 지역사회협의회와 같은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조직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으로 가는 통로역할을 할 뿐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의 지역사회협의회 구축노력은 대부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렀지만,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으며, 드물지만 원래부터 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놓은 지역도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례도 있고, 기존의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시범사업의 구상이 반영이 된 사례도 있다. 네트워크가 일단 구축이 되고, 활용되기 시작하면, 점점 네트워크의 범위와 강도가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이 학교에 더 많고 다양한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코디네이터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이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지면, 한 기관의 코디네이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른다. 한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코디네이터가 있을 수 있으며, 코디네이터로 불리든 아니든 코디네이터는 다양해질 수 있으며, 또 다양해져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은 다양한 코디네이터들과 연계해야 한다. 또한 부단히 코디네이터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청소년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양성사업을 추진했다(国立教育政策研究所社会教育実践センター, 2003).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디네이터는 두 가지이다. 코디네이터 교사와 지역사회 NPO 단체의 코디네이터이다. 교과 전문가인 교사가 코디네이터를 맡는 것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학교 내의 누군가는 반드시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학교의 지역사회전문가나 진로진학상담교사가 그 역할을 맡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담임교사나 기타 교과담당교사가 부분적으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코디네이터 교사의 역량을 계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을 교사들과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거나 수퍼바이징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범사업기관이 대부분이 취하는 방식인 시범사업기관의 코디네이터가 모든 것을 맡는 것은 상호협력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나 지역사회 연계모형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는 기관 단위의 코디네

이터로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의 다양한 코디네이터 그룹을 육성하고, 조직하고, 슈퍼바이징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코디네이터 교사 뿐아니라 다양한 직업적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모집하여 역량을 계발시켜,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로 활용하거나 학교 또는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청소년기관의 코디네이터가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지역사회에서의 활동범위와 영향력의 범위가 커지고 보다 보편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가능성은 미미하나마 일부 시범사업기관 사례에서 발견된다. 적어도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서 지역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전향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나 가능한 것이기는 하다. 이러한 슈퍼바이저로서의 코디네이터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좋은 사례를 일본 조에츠시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 자료 : 2012년 6월 일본방문면접조사 및 참여관찰결과를 토대로 작성

【그림 IV-2】 조에츠시의 코디네이터와 슈퍼바이저 운영체계

학교마다 많게는 십여명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를 두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코디네이터기관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력에 대해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그림 IV-2). NPO 그룹은 학교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에 대한 교육연수를 실시하거나 평상시에는 슈퍼바이저로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인력이 양성되고 관리되고, 점점 많은 지역사회 자원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시범사업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커뮤니티 스쿨(지역사회학교)모형’의 실현이 가능하게 된다.

(5)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모형 사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형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 모형’ 이지만, 여기에 청소년의 참여가 가미된 모형으로 운영된다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것을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모형’ 이라 부르고자 한다. 사례조사를 통해서 많지는 않지만 이와 같은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기관들 중에 몇몇 중요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드물지만 학교사례도 있었다.

‘청소년 참여형 지역사회연계모형’ 은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대체로 동아리활동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급단위나 학교단위에서 할 수도 있지만, 참여활동은 학급 등 임의적으로 배치된 집단별로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관심이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집단, 즉 동아리와 같은 집단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활동은 트라이앵글 모형 활동의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이나 진로활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발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활동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동기부여가 쉽게 일어나고, 몰입 경험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둘째, 이 모형에서는 교사나 지도자가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보다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사나 지도자의 업무부담이 줄어든다. 지도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다.

공릉청소년문화센터가 운영한 청소년사회참여대회인 ‘시작된 변화’ 가 좋은 사례가 된다. ‘시작된 변화’ 는 청소년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참여 프로그램이다. ‘시작된 변화’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찾고, 활동계획을 직접 세워서 실천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마을의 문제를 발견하고 활동기획서를 직접 작성한 후 활동이 끝난 후에는 대중 앞에서 보고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 이후 사후활동도 있다. 2011년에는 공릉동 폐선부지에 위치한 음침한 지하 굴다리 벽에 벽화(함께 그린 그림길)를 그린 청소년들, 친구들의 지나친 컴퓨터 게임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조사하고 대책 마련을 호소한 중1학생들, 어린이 놀이터의 낙서를 지우고, 어린이들이 자주 찾아와 놀 수 있도록 노력한 청소년들, 마을의 문화행사를 직접 기획하고 진행한 청소년, 다문화 가정 친구들과 마을 문화유산을 찾아 함께 나들이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행사, 영어책 읽어주기 활동을 한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사서가 되어 도서관 운영에 참여한 청소년 등 총 10여 그룹의 청소년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도 높지만, 스스로 지역사회의 변화도 크다. 동아리 M&V는 한성과학고등학교에서 배운 과학실험 교육을 초등생 후배들에게 전수하여, 과학과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이공계 기피현상을 극복하자고 모인 자원봉사 그룹이다. 과학실험 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M&V 과학수업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올해는 신청자가 몰려서 수업 규모를 크게 늘려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공릉동 지역의 자전거 도로 문제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한 학생은 “처음에는 나와 같이 어린 학생이 우리 동네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시작된 변화에 참여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리둥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우리 동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도 하고, 나의 힘으로 우리 동네의 문제점을 찾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즐거웠어요.” 라고 말한다. 주민 100명을 모아 ‘공릉동 함께 그린 그림길 작업’ 을 이끌었던 한 여고생은 “이 활동이 나에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라고 말한다. 이들이 함께 그린 그림길은 공릉동의 명물이 되었다(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2010년 전라북도에서는 청소년들이 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청소년들의 희망의제를 제안하는 「전북청소년희망의제 구축을 통한 청소년참여 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희망을 도교육감 후보들에게 제안하였다. 교육감 후보에 정책 제안을 위한 전북 청소년대표단을 구축한 후, 연대회의는 전북지역의 청소년관련 31개 기관단체의 연대체를 구성하여 교육감 후보에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의 구성 및 의제 초안 작업을 하였다. 그 다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YMCA, 수련시설운영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대표, 고교 학생회연합회 등 다양한 청소년대표자들을 구축하였다. 또한 초안으로 작성된 청소년희망의제를 기초로 청소년대표자들과 토론하였다. 청소년들이 제안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전북지역 청소년희망의제 작업 후 교육감 후보에게 전달하여 답신도 받고,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메니페스토 대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감 선거 이후 청소년희망의제 및 공약 검증 작업과 도교육감과 희망의제 및 공약 검증을 위한 간담회까지 개최하였다(정건희, 2012).

이러한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청소년들이 보다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사회가 변해야 하지만, 청소년들의 체험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 V 장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모형

1. 모형개발의 절차
2. 모형의 분석
3.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의
제시

지역사회연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모형

1. 모형개발의 절차

2011년과 2012년에 2년 연속과제로 추진된 본 연구에서는 〈그림 V-1〉의 절차에 따라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먼저 2011년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 분석과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면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먼저 가설적 수준에서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개발하였다.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토대로 2011년도 시범사업운영모형을 개발하여 대도시 지역 두 곳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2011년 시범사업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시범사업 모형을 수정하였으며, 2012년에 여성가족부는 수정된 모형을 기반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44개 코디네이터 기관 및 100개 시범학교로 대상을 확대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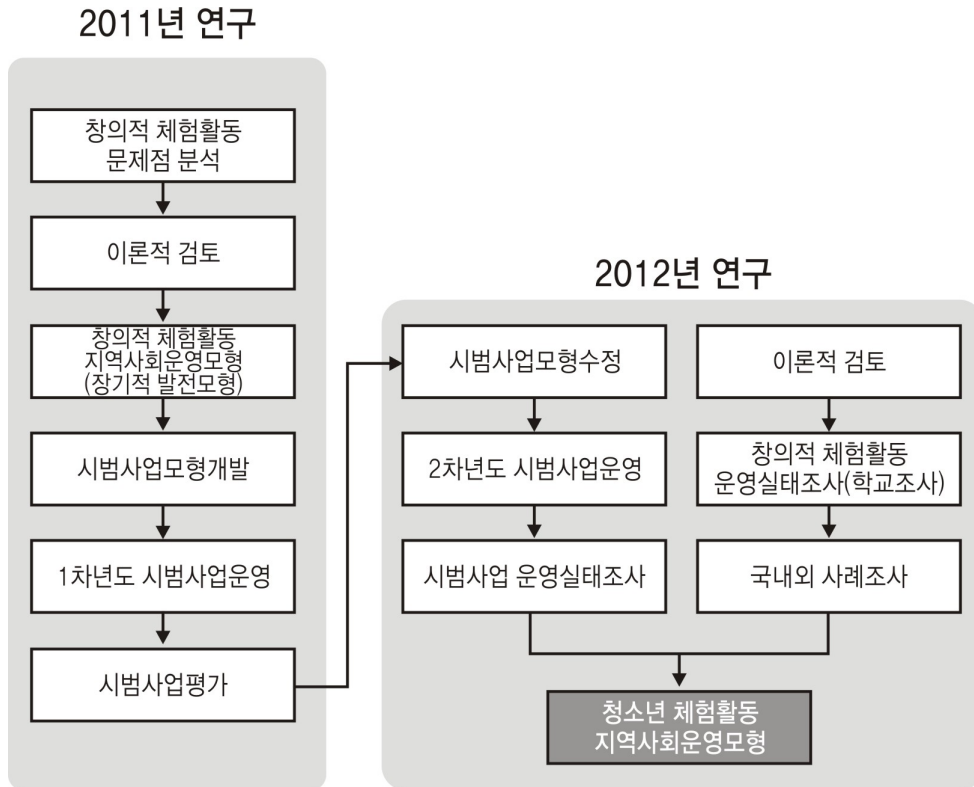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시범사업의 추진단과 컨설팅단에 참여하여 시범사업 전반을 모니터링하였다. 2012년 8월에 개최된 시범사업담당자 워크숍을 통해서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도출하고, 지역사회연계를 통해 지역의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모형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011년에 개발된 장기적 발전모형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으로 명명하였지만, 2012년에는 학교교육을 둘러싼 정책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바가 ‘창의적 체험활동’의

18) 5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19) 2011년 시범사업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2012년 시범사업은 여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운영하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운영진은 시범사업 추진단 및 컨설팅단에 참여하였다.

활성화가 아니라 ‘청소년 체험활동’이라는 점에서 2012년에 제시한 장기발전모형은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으로 명명하였다. 2012년 시범사업의 명칭도 2011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 개발사업」에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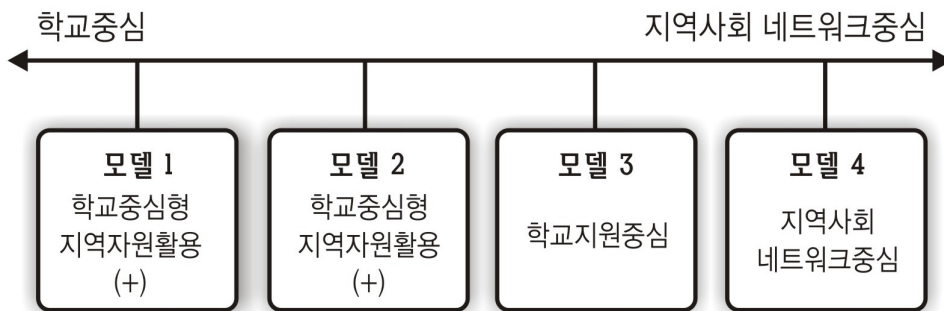
【그림 V-1】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의 개발절차

2. 모형의 분석

[그림 V-1]의 절차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모형은 크게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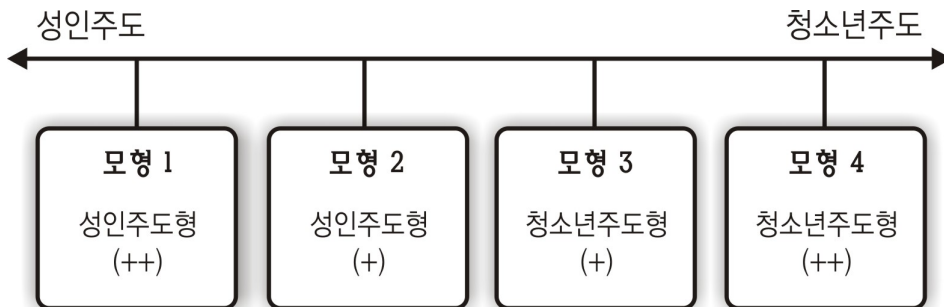
첫째,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연계정도에 따른 구분이다. 체험활동 운영이 학교중심인지 지역사회기관 중심인지에 따른 구분이다.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세분 모형을 구안해보면, 모형1은

지역사회자원을 최소로 활용하면서 학교 내부의 인력·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는 모형이 된다. 그리고 모형2는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만 자원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학교내부 인력이 맡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모형3은 지역사회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지만 주로 학교에 외부자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만 운영하는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모형4는 복수의 지역사회기관과 학교가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모형이 될 수 있다. [그림 V-2]는 상술한 내용을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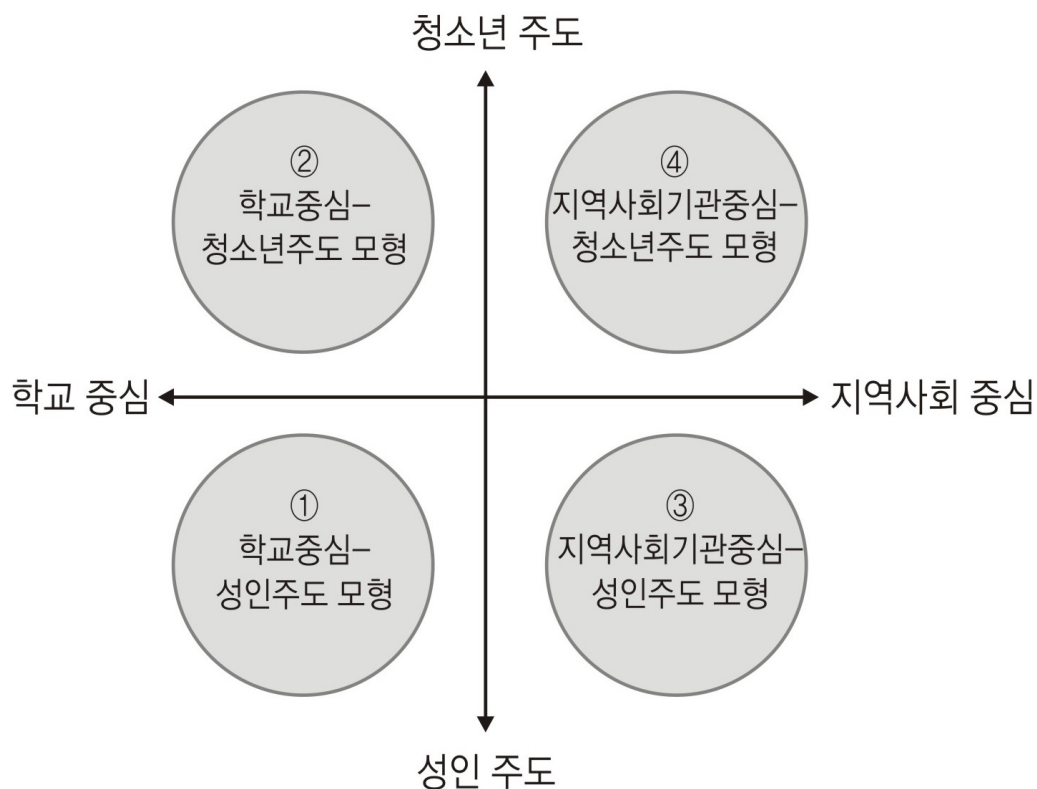
【그림 V-2】 지역사회 네트워크 연계정도에 따른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둘째, 청소년들이 체험활동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하느냐를 기준으로 모형을 나눌 수 있다. 이 구분은 델가도와 스테이플스(Delgado & Staples, 2008, p.69)가 제시한 <그림 II-7>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스펙트럼’을 단순화한 것이다. 여기에서 모형1과 모형2는 성인주도형 체험활동이며, 모형1이 모형2보다 성인주도성이 강한 모형이다. 그리고 모형3과 모형4는 청소년주도형 체험활동이며, 모형4가 모형3보다 청소년의 주도성이 강하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V-3]과 같다.



【그림 V-3】 청소년의 참여정도에 따른 체험활동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이론적 배경, 설문조사결과, 국내외 사례조사결과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출된 [그림 V-2]와 [그림 V-3]을 조합하면 모두 16개의 모형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16개로 모형을 세분화할 경우, 모형 간 차이가 모호해지며, 그로 인해 설명력이 약해질 수 있다. 또한 간명성(parsimony)이 떨어져 모형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펙트럼의 변량을 단순화하여, 지역사회연계정도를 기준으로 고(高)-저(低)를 나누고, 역시 청소년 주도성을 기준으로 고(高)-저(低)를 나누어 다음과 같이 2×2의 매트릭스를 통해 총 4개의 모형을 도출하였다. [그림 V-4]에 이러한 모형이 제시되어 있으며, 그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매트릭스

1) 모형① : 학교중심-성인주도 모형

이 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되, 학교가 중심이 되어 자원을 연계하고 운영하며 교사들이 주도하는 모형이다. 일선 학교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모형이며, 학교가 주도하는 만큼 지역사회자원의 활용정도가 낮은 경우가 많다. 이 모형을 적용해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교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형①을 적용해서 주로 학교내부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교사의 부담이 적지만, 지역사회자원을 많이 활용하는 경우에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며,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거나 지역사회의 자원이 많지 않은 경우라도 프로그램의 질만 좋다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교사들이 주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교사들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청소년주도가 아닌 성인주도성이 강할수록 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이 모형에서는 학교장의 의지, 교사의 열정과 같은 요인이 잘 조화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같은 모형은 성인주도형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주도형 프로그램 운영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인주도형의 프로그램은 그 만큼 완성도가 높을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교사나 강사 등의 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또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지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게 된다.

2) 모형② : 학교중심-청소년주도 모형

모형②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활용을 학교가 주도하지만, 교사가 아닌 청소년이 주체가 되는 모형이다.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에 대한 동기가 강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은 학교규모가 커질 경우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청소년들의 주도성이 높아지게 되면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욕구도 높아질 개연성이 큰데, 지역사회자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더라도 그것을 청소년들이 주도하여 운영하게 되면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또한 학교가 주도하는 모형이라도, 청소년들의 참여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계 빈도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모형②의 관건은 교사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신장시키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할 코디네이터의 필요성은 증가한다. 지역사회의 코디네이터가 없다면, 불가피하게 교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3) 모형③ : 지역사회기관중심-성인주도 모형

이 모형은 지역사회자원을 학교에 연계해 주는 역할을 지역사회기관이 맡는 모형이다. 시범사업의 초기모형이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모형이다. 또한 프로그램은 성인주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투입되면 프로그램의 효과는 향상되겠지만, 청소년 주도형 프로그램에 미치지지는 못한다. 청소년의 주도성이 낮은 프로그램은 반드시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칫 프로그램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게다가 이러한 모형은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업무담당자의 업무가 과중해지며, 소진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교사들은 업무를 덜 수 있어서 좋지만, 이러한 모형은 지속성을 갖기 힘들다. 학교 역시 수동적으로 대응하기 쉬우며, 이런 경우는 시범사업이 끝나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고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계방식으로 학교가 변화를 추구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지역사회기관중심이라도 학교와는 상호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결국, 학교의 변화의지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지역사회기관이 학교에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만 하는 방식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지 않는 이상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한다. 학교지원형이 아닌 지역사회 네트워크형으로 사업의 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만일 지역사회기관이 이 같은 변화를 시도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도 똑같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의 방법을 통해서 유도할 필요가 있다.

4) 모형④ : 지역사회기관중심-청소년주도 모형

모형④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효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청소년 체험활동에 전문성을 갖춘 지역사회기관이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담당하기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주도로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효과도 보다 제고될 가능성이 크며, 교사나 지도자의 업무도 그만큼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

주도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유연한 지도가 가능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청소년들 스스로 지역사회 변화에 참여하게 되어 교육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가 강하게 연계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모형④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청소년 기관들이 추구해오지 못했던 두 가지 역할, 즉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청소년 주도형의 프로그램 운영을 원칙으로 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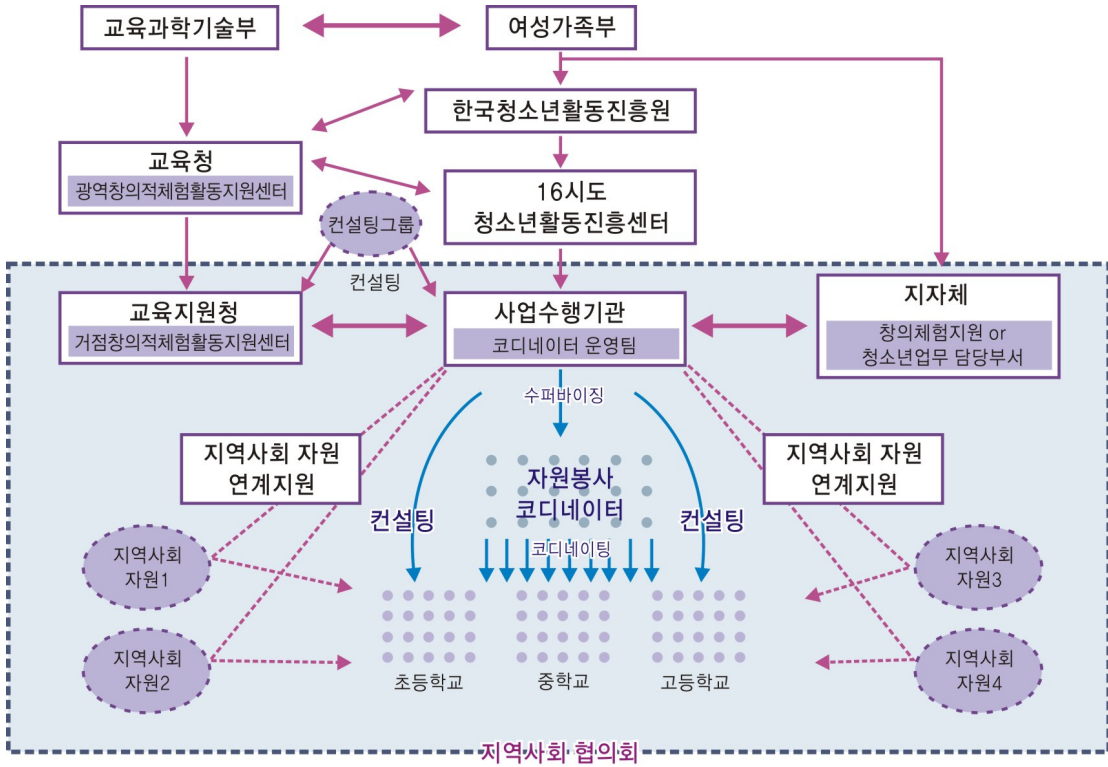
3.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의 제시

결과적으로 학교중심이나 지역사회기관(청소년기관) 중심이냐의 문제보다는 성인주도나 청소년주도냐의 기준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만,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모형은 앞으로 지역사회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모형이며, 모형3과 같은 학교중심-청소년주도형의 운영모형도 활성화되면 결국 모형4와 같이 수렴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 그렇게 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물론 모형1과 모형2와 같은 학교중심형의 체험활동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는 것도 바람직한 변화이지만, 학교만의 자원으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모형4가 가장 바람직한 모형이며, 장기적인 발전모형인 <그림 Ⅱ-1>에도 부합한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2013년도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모델 사업」은 모형4를 바탕으로 하여 수정된 사업모형(그림 V-5)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그림 V-5>의 사업모형에서는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더욱 긴밀한 협력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2010년 여성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간에 체결된 MOU를 근거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력을 강화하는 모형이다. 특히,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강조함으로써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 간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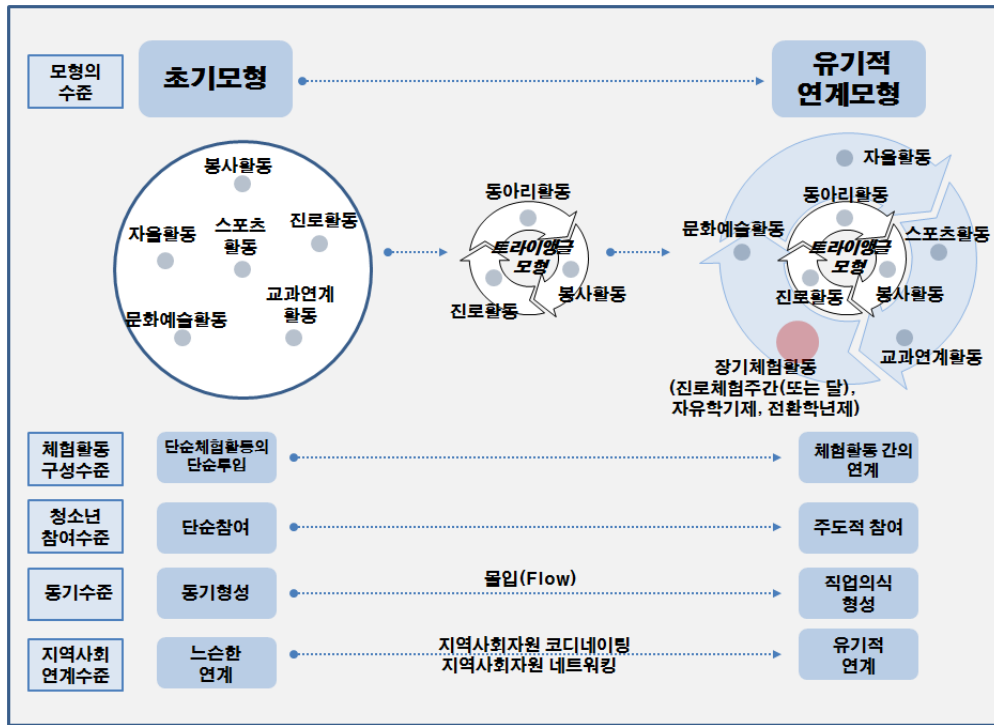
또 한 가지 변화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16개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지역의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디네이터 기관은 외부의 컨설팅과 네트워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코디네이터 기관의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변화를 주었다. 코디네이터 기관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의 양성을 통해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를 확충하고, 코디네이터 기관은 슈퍼바이저로서 보다 광범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모형이다. 또한 코디네이터 기관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얻어 해당 지역 교사들에 대한 컨설팅과 연수에 전문인력으로 활동하는 방식으로 협력하는 모형이다.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학교 모두 청소년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모형이다(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그림 V-5】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모형

4.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 모형



【그림 V-6】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모형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연구에서 김현철이 제안한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 장기적 발전모형(그림 II-1)을 수정하여 제시하면, <그림 V-6>과 같다. 2011년도 시범사업모형이 <그림 V-6>의 초기모형이었다면, 2012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3년도에 추진될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델 사업」은 초기모형에서 어느 정도 유기적인 연계모형으로 개선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그림 V-6>의 과정을 거쳐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그 가능성은 연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장기적인 발전모형을 ‘모형의 수준’, ‘체험활동의 구성수준’, ‘청소년의 참여수준’, ‘동기수준’, ‘지역사회연계수준’에 따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체험활동 초기모형에서 점차 유기적인 연계모형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다.

둘째, 초기모형에서는 체험활동이 단순 체험활동의 형식으로 운영되지만, 점차 ‘트라이앵글모형’과 같이 연계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연계된 ‘체험활동’이 활성화되고, 장기적 체험활동, 예를 들면, 진로체험주간이나 달, 자유학기제, 전환학년제(transition year)과

같은 체험활동도 도입될 것이다.

셋째, 초기모형에서 유기적 연계모형으로 발전해 갈수록 체험활동은 성인주도의 체험활동보다는 청소년 주도의 체험활동이 많아질 것이다.

넷째,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서 동기가 형성이 되면, 동아리활동 등 자기목적적인 체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몰입의 과정을 거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을 키워가거나 직업의식을 형성해 가는 경험의 빈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섯째, 초기모형에서 유기적 연계모형으로 발전해 갈수록 지역사회는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것이며, 이때 지역사회자원 및 기관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또는 네트워크들의 역할이 활성화될 것이다.

제 VI 장



정 책 제 언

1. 정책제언의 도출과정
2. 정책제언

제 VI 장²⁰⁾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의 도출과정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지역사회연계라고 보았다. 이에 2011년 연구에서는 가설적인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을 개발하였다.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기관이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타당하다면 그 운영 방법을 찾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12년에 확대·운영된 시범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보다 타당한 모형을 개발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발된 모형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제언은 시범사업의 운영결과를 비롯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체험활동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국내외 사례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하였다.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및 지역의 교육지원청이 참여한 협의회, 아울러 여성가족부 산하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기관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간의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도 활용되었다.

2. 정책제언

- 1)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코디네이터 기관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의 협력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연계 코디네이터 기관과 교육과학기술부의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의 기능은 어떤 면에서는 중복되지만, 두 기관은 상호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관계에

20) 6장은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황여정(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집필함.

있다. 사실 이 두 기관의 성격은 조금 차이가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관내 모든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면,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기관은 선별적인 학교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좋은 사례를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분도 있다.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의 고민은 사업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범사업의 코디네이터 기관은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에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반면, 코디네이터 기관은 학교로부터 원활한 협조를 받기 위해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실질적으로는 교육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2011년 연구에서는 두 기관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지 못했으나, 2012년 연구를 통해 일부지역의 코디네이터기관과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간의 협의회를 매개로 협력방안이 논의되었고, 협력의 가능성도 확인했다. 어차피 두 기관의 주요 역할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에 있기 때문에 두 기관간의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 따라서 2012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두 기관간의 협력관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8월에 실시한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에 응한 803명의 응답자 가운데 본인의 지역에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62%에 불과했으며, 70%가 ‘창의적체험활동지원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2012.8.27.). 본 연구에서 전국에서 대표성 있게 표집된 3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교육지원청과 어떠한 형태로든 교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4%에 불과했다. 결국 조사 대상 학교 가운데 약 절반 가량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과 같은 연계·협력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활동정책 전달체계 재정비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2012년 시범사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지만 2013년에는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지역사회의 각 청소년기관이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사업을 지원하고 컨설팅해야 한다. 아울러

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2012년처럼 시범사업 컨설팅에 참여하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통해서 청소년활동 정책의 전달체계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교사들이 체험활동을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요구를 지니고 있어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청소년기관 및 학교들이 지역사회와 ‘네트워킹’ 하고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 하는 방식으로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3) 지역사회 네트워크 역량 및 코디네이터 역량 강화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연계 모형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려면, 기본 토대를 탄탄하게 다지는 작업이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모임을 강화하거나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그 일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연간 계획 수립, 업무협의회 개최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는 연계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있지만, 연구모임 운영처럼 자발적인 연계·협력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연계·협력 관계를 유지·강화·발전시키고 이를 토대로 양질의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소프트웨어를 강화할 수 있는 연계협력 방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체험활동 운영에 참여하는 담당자들 간의 연구모임이 잘 운영된다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코디네이터의 역량 강화도 무척 중요하다. 지역사회연계 모형이 성공적으로 확산되려면 이 모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일단 ‘성공’의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학교 입장에서도 ‘지역사회연계를 강화했더니 운영하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가 제고되고,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의미 있는 변화가 체감되어야 한다. 이러한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 위치하든 학교 밖에 위치하든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 따라서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도 역점을 두어야 한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 발굴한 구체적인 우수 사례의 경우에는 코디네이터들의 역량 개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 사례들이 관찰되었다.

시범사업은 궁극적으로 청소년 기관의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사업의 핵심적인 케치프레이즈는 ‘청소년기관의 프로그램 제공자에서 지역사회 코디네이터로의 전환’ 이다. 코디네이터는 학교 내든 학교 밖이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양질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반드시 중요하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많은 자원이 개발되고 연계되어야 한다. 이것은 코디네이터의 능력에 좌우된다. 학교가 아무리 다양한 시도를 하려고 해도 코디네이터의 존재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 코디네이터의 기능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이루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청소년 기관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제공만으로는 지역사회의 수요를 소화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그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청소년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해 온 청소년 기관은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인력을 갖추고 있다.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아직 그 성격과 내용이 명확히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향후 청소년기관은 코디네이터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여성가족부도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교육과정이 개발이 되면,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 및 연수에 반영하고, 2013년부터 시행되는 청소년지도사 보수교육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4)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책

2011년 연구에서도 밝힌 바처럼(이기봉 외, 2011), 시범사업기관의 코디네이터들은 업무과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2012년 시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연구에서는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을 위해 코디네이터 전담팀의 운영을 제안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기관이 전담팀을 운영할 만한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기관에 따라서는 인력을 보강한다든지 업무를 경감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운영한 경험과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한 기관장의 배려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기관차원에서 지역사회연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결국은 코디네이터의 업무경감책이 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활동정책 차원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기관평가지표에서 지역사회연계 사업실적을 보다 강조하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된다.

다른 한 가지 방편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밝혔듯이,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자기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을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지도방법에 청소년지도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사 양성과정과 보수교육에서 자기주도적 청소년 참여활동 지도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인 방법이 된다.

5) 예산의 확보

예산의 확보는 청소년기관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된다. 2012년 여성가족부는 16개 시도에서 총 1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하였다. 2013년은 2012년과 같은 수준으로 확보될 전망이다. 현재와 같이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기관들이 목적사업보다는 수익사업에 더 치중해야 하는 구조 하에서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게 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에서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은 불가피하다.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감안하면, 향후 예산의 확보는 사업의 지속을 위해 큰 장애가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서의 교육기부나 재능기부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완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확보된다면, 코디네이터 기관이나 코디네이터 운영 예산만 확보하면 되지만,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코디네이터 기관의 중요성이 인식되기만 하면,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학교로부터 신뢰를 얻어 수익을 올린 사례도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참여 학생들의 자부담도 양질의 체험활동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한 선택이다. 청담중학교의 사례를 보면(김현철·최창욱·민경석, 2010 참조), 1인당 연간 9만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운영되었는데, 최소한 연간 1인당 5~6만원 정도의 자부담과 교육기부 등의 자원이 활용된다면 보다 다양한 체험활동의 제공이 가능하다. 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과 연동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바우처 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간, 부처내 사업간 또는 부처-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6) 농어촌 지역 네트워크 지원방안 마련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연계 운영모형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농어촌의 경우에는

인구가 희소하고 지역사회 자원도 부족해서 난점이 많다. 농어촌의 경우에는 차량이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다(임영미·김미희·조인진, 2012). 따라서 공공 및 민간의 유희차량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대규모시설을 짓는 것보다 차량확보를 통해서 이동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다양한 형태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방식 개발

코디네이터기관은 학교의 요구에 맞춰 자원을 연계하거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급적 학교에서는 이런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통합적인 체험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체험활동이 단속적이지 않고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문제는 통합적이거나 연계된 활동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그 요구에 맞추려고 하다보면,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급단위 운영으로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된다. 학급내의 요구가 동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변화는 각자의 요구에 맞춰 동아리활동이 활성화되고, 동아리활동의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진로활동이 될 수 있는 방식, 즉 체험활동이 ‘트라이앵글’ 처럼 맞물려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하는 방식인 학급단위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통해서도 충족되기 어렵다. ‘트라이앵글 모형’은 기본적으로 동아리활동을 베이스로 한 형태이다. 결국 학급단위 편성이 아니라 요구에 맞춘 편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활동 지도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동아리의 특성에 따라서는 교사의 지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동아리들은 다른 전문 인력의 지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결국은 외부의 인적·물적 자원이 필요하게 된다. 동아리활동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동아리활동 공간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아리활동을 지도하고 또 자기주도적으로 동아리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아리활동 운영매뉴얼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아리활동에 관해서는 내용을 만든 매뉴얼과 같은 실천적 지도서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활동 매뉴얼의 개발이 앞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진로활동과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심층 분석 결과에 따르면, 체험활동을 통해 긍정적 경험을 하고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 학생들일수록 자아존중감이나 몰입수준에서 보다 양호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결과는 다양한 유관 변인들을 통제한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검증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체험활동이 단지 체험활동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는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을 보이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험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하는 데는 체험활동과 진로를 연계하는 것이 무척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체로 체험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체험활동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해서는 30.5%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다소 회의적이거나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초등학생에게서 43.7%로 높게 나타났을 뿐, 진로 결정이 보다 본격화되는 시기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일반계고등학생 24%, 특성화고등학생 23% 수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시 해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의견이 많았다. 상술한 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체험활동 프로그램 가운데 학생들로 하여금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 활동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이 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지는 못하고 소위 ‘이벤트성’ 행사로서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학교급이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추후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할 때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는 프로그램에 대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그것이 진로계발과 연계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진로결정에 관심이 많은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체험활동과 진로계발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면 체험활동에 대한 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8) 높은 학교급에서의 체험활동 내실화 및 만족도 제고 방안 마련의 필요성

시범학교 조사, 전국 수준 체험활동 담당 교사 대상 조사, 그리고 학생 대상 조사에서 모두 일관되게 학교급별로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와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교사들이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느끼는 부담이나

어려움은 증가하고, 학생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긍정적 태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감지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아직까지 학교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 기존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등학교에 비해 중·고등학교처럼 교과교육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거나 입시를 목전에 둔 학교급에서는 체험활동을 기존의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후 체험활동이 현장에 안착되려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배전의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긍정적 평가가 무척 우세했는데, 초등학교는 담임제로 운영되어 중·고등학교와 시스템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같은 학교급별 차이를 고려한 지원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 체험활동이 교육과정과 구분되어 운영되는 별개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가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소수의 ‘담당’ 교사가 체험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데서 비롯되는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여주면서도 체험활동을 내실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9) 체험활동 업무 담당자 대상 연수 강화

상술한 정책 방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실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자들의 인식이 무척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소년 체험활동을 담당하는 주요한 두 기관인 청소년기관 및 학교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재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내실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담당자들이 사례를 소개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들의 정책마인드를 제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청소년 주도형 지역사회 연계 모형이 현장에 안착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되려면 학교의 역할도 무척 중요하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다양한 교원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이 주도하는 지역사회연계 체험활동’의 중요성과 의의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교장·교감 등 관리자 연수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례 조사를 통해 일관되게 드러난 것처럼, 학교에서 내실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데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의 비전과 마인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현장에 보다 광범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인식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제고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때, 단순히 체험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주도’ 하는 체험활동, 그리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자원과 연계’ 하는 체험활동의 중요성과 의의, 효과, 그리고 실행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이 이상적(ideal)인 모형이 아니라, 실제로 일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 외에 청소년 주도형 지역사회 연계 모형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지역사회자원과의 연계가 단순히 주변 자원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 즉 학교가 일방적으로 자원을 받아들이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를 통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관계로 맺어져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교육연수는 일반 교사 대상 연수에서도 광범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창의·인성 교육 컨설턴트나 진로상담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0) 청소년 주도 체험활동의 효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체험활동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그 학부모를 비롯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체험활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형의 의의와 방향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모형이 본래 지향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홍보이다. 체험활동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모들의 인식 개선이 무척 중요하다. 부모들이 체험활동을 단순히 ‘스펙’을 쌓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자녀를 참여시키게 되면, 체험활동을 통해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국민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녀들을 인지적 학습에 매몰시키기보다는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청소년 주도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대국민 홍보를 위한 홍보 방법 또한 전통적인 홍보 수단을 탈피하여, 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의 변화를 고려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기기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단, 이때 단순히 제공되는 수단이 ‘모바일용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실제로 내실 있고 흥미로운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콘텐츠 제공 및 홍보는 교원 연수에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선보, 박의수, 김귀성, 송순재, 정윤경, 김영래, 고미숙 (2008). **인성교육**. 서울: 양서원.
- 강상진, 김아영, 박광배, 반재천, 이규민 (2006). **중학생 적성검사 개발**.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2011). **제1회 노원지역 청소년사회참여 자원봉사활동 시작된 변화 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0.1). **창의인성교육기본방안**.
- 김경애 (2009a). 아동·청소년의 교육복지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요소 및 원리. **한국청소년연구**, 20(3), 85-114.
- 김경애 (2009b). 교육복지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역할의 의미 탐색. **평생교육학연구**, 15(4), 185-215.
- 김기현·김지현·장근영·소경희·김진화·강영배 (2008).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맹영임·장근영·구정화·강영배·조문흠 (2009). **청소년 생애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 II: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안선영, 장상수, 김미란, 최동선 (2011). **아동·청소년의 생활패턴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기현, 장근영, 조광수, 박현준 (2010). **청소년 핵심역량 개발 및 추진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아영 (2010). **학업동기: 이론, 연구와 적용**. 서울: 학지사.
- 김아영 (2008). 한국 청소년의 학업동기 발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111-134.
- 김응춘 (2011). 교육기부로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 다지기. 2011년 제3차 미래교육공동체 포럼 자료집. 1-20.
- 김일주 (2012). 2012학년도 여수YMCA(여수청소년수련관) 학교현장체험학습 및 창의적

- 체험활동 운영계획서(미발행).**
- 김현철, 이기봉 (2011). **일본 케센누마시의 청소년 체험활동 운영 사례집.**
- 김현철, 최창욱, 민경석 (2010).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활동정책의 연계방안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철, 김은정, 민경석 (2007). **청소년기 사회화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II: 부모자녀관계, 교사학생관계,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남궁달화 (2005). **인성교육론.** 서울: 문음사.
- 박병기, 이종욱, 홍승표 (2005). 자기결정성이론이 제안한 학습동기 분류형태의 재구성.
교육심리연구, 19(3), 699-717.
- 손동원 (2005).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송민경, 김주현, 이현주 (2010). 자원봉사단체 간 네트워크 발달단계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01-229.
- 심우엽 (2001). 연령에 따른 학습동기의 변화. **초등교육연구, 14(3), 19-44.**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사업 매뉴얼 · 우수사례집.**
- 이광우, 전제철, 허경철, 홍원표, 김문숙 (2010). **미래 한국인의 핵심 역량 증진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설계 방안 연구: 총괄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I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봉, 김현철, 안선영, 최창욱, 전명기, 이진원, 김주희 (2011). **2011년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자원 연계 시범사업 운영매뉴얼.** 서울: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미숙, 민용성, 조성기, 조덕주, 이낙중, 김현철 (2007). **학교교육 내실화 후속지원 연구(V).**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창호 (2002). **청소년 수월성 촉진 프로그램 기초 연구 -플로우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임선하 (1996). **창의성예의 초대.** 서울: 교보문고.
- 안선영, 최창욱(2011)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연수교육과정 및 운영매뉴얼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영미, 김미희, 조인진 (2012). **농어촌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영월군을**

- 중심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례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발행).
- 정건희.(2011). 청소년자치 및 참여활동의 과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개원1주년 기념 청소년활동 토론회 : “청소년 활동, 다시 길을 묻다” -청소년활동의 과제와 대안**, 53-65.
- 정건희.(2012). 지역청소년참여사례.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례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발행).
- 정운학 (2012). 농어촌 지역 청소년 활동 정책의 문제와 개선 방향.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례 세미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미발행).
- 조영복, 김경원 (2011). 사회적 네트워크의 특성이 직무성과와 협력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18(1), 87-110.
- 주인중, 박동열, 진미석 (2010). **직업기초능력 영역 및 성취기준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진은설, 임영식 (2009). 청소년활동의 참여동기와 활동 집단의 특성 그리고 활동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3(3), 281-303.
- 청담중학교 (2012.1.30).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계획서**.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a).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결과보고 및 ‘13년 사업설명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b). **2012 청소년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델 시범사업 평가보고서(미발행)**.
- 한병철 (2012). **피로사회**. 서울:문학과지성사.
- 貝ノ瀬 (2010). **小中一貫コミュニティ・スクールのつくりかた**. 東京:ポプラ社.
- 文部科学省 (2010). **平成22年度文部科学白書**.
- 中野区沼袋小学校 (2008). **地域連帯で学校を問題ゼロにする**. 東京:学事出版.
- 田村学 (2010). **リニューアル総合的な学習の時間**. 東京:北大路書房.
- 「トライやる・ウィーク」評価検委員会(2008). **地域に学ぶ「トライやる・ウィーク」 - 10年目の評価検委(報告)**.
- 諏訪台中学校 (2012). **諏訪台中学校のキャリア教育**.
- 国立教育政策研究所社会教育実践センター (2003). **学校における体験活動ボランティア活動のコーディネーター研修プログラムの開発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 Armstrong, T. (2000). In Their Own Way: Discovering and Encouraging Your Child's Multiple Intelligences. Penguin Putman Inc.
- Christine, J., & Atkins, D. (2000). Community-based education. *School Community Journal*, 10(1), 121-126.
- Csikszentmihalyi, M. (2003). *Finding Flow*. 이희재 역(2010). **몰입의 즐거움**. 서울: 해냄.
- Csikszentmihalyi, M., Schneider, B. (2001). Conditions for optimal development in adolescence: An experiential approach. *Applies Developmental Science*, 5(3), 122-124.
- Csikszentmihalyi, M. (1999). *Beyond Boredom and Anxiety: Experience Flow in Work and Play*. 이삼출 역(2003). **몰입의 기술**. 서울: 더블어책.
- Delgado, M., & Staples, L. (2008). *Youth-led community organizing: Theory and a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art, R. A. (1997). *Children's participati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volving young citizens in community development and environment care*. London: Earth Publications Ltd.
- Jarrett, R. L. & Sullivan, P. J. & Watkins, N. D. (2005). Developing social capital through participation in organized youth programs: Qualitative insights from three program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1), 41-55.
- Jeffers, G. (2011).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Embracing and resisting a curriculum innovation. *Curriculum Journal*, 22(1), 61-76.
- Jeffers, G. (2010). The role of school leadership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Ireland. *School Leadership & Management*, 30(5), 469-486.
- Jeffers, G. (2002). Transition Year Programme and Educational Disadvantage, *Irish Educational Studies*, 21(2), 47-64.
- Jeffers, G. (2007). *Attitudes to Transition Year: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Maynooth: NUI Maynooth Education Department.
- Peters Richard, O. (1977). *The community based school and community oriented teachers: For student learning in the real world of the 1970's*. Unpublished.

- Pittman, K. (2000). Balancing the equation: communities supporting youth, youth supporting communities, *Community Youth Development Journal*, 1(1), 19-24.
- Sternberg, R. J., Grigorenko, E. L., Singer, J. L. (2004). *Creativity: From potential to realization*. 임웅 역(2009). 창의성 - 그 잠재력의 실현을 위하여. 서울 : 학지사.
- Vallerand, B., & Bissonette,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60(3), 599-620.
- Weisberg R. W. (1999) Creativity and knowledge: A challenge to theories. In R. Sternberg (Ed.), *Handbook of creativity* (pp. 226-2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부 록

1. 설문지 (교사용)
2. 설문지 (학생용)
3. 설문지 (시범학교용)
4. 설문지 (코디네이터기관용)

부록 1 : 설문지

ID -

조사학교 ID									
---------	----------------------	----------------------	----------------------	----------------------	----------------------	----------------------	----------------------	----------------------	----------------------

창의적 체험활동 인식 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선생님 학교의 상황을 파악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현철 박사 (02)2188-8836

수행기관: (주)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문 1. 선생님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 주십시오.

내용	전혀 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학생지도 또는 교육에 활력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 5일 수업제 전면도입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데 외부인력 (또는 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해 주는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전문기관이 있다면, 창의적 체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운영 예산 ② 학교 운영의 합리화(효율화)
- ③ 업무 부담 경감
- ④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 ⑤ 좋은 프로그램

문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인력(코디네이터) 혹은 기관(코디네이터 기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지역사회자원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기관)란 학교가 다양한 지역사회자원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해 주는 인력 또는 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일부지역에서만 지역사회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기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 4. 선생님 학교에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십시오.

내용	예	아니오
1)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한다.	①	②
2)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①	②
3)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①	②

문 5.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ity Resources Map)는 선생님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문 6. 선생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기타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아래 각 기관과 어느 정도나 관계가 이뤄졌는지를 동그라미(O)로 표시해주십시오. 작성 방법은 아래를 참조해 주십시오.

1단계) 먼저 각 기관별과의 네트워크 정도를 1단계~ 3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네트워크가 밀접한 관계이며, 상위단계는 하위단계의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교류가 없으면 맨 오른쪽의 '상호 교류 없음(⑨)'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단순한 공문처리 관련사항은 상호교류사항으로 고려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시>

구분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교류 없음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㉒		③		⑨
	박물관	①		②		③		㉓

2단계) 그 옆 공란에 금년 1학기 동안 이루어진 네트워크 관계 횟수를 기입

<예시>

구분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교류 없음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3	③		⑨
	박물관	①		②		③		⑨

구분	세부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교류 없음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⑨
교육지원청		①		②		③		⑨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③		⑨
	박물관	①		②		③		⑨
	전시관	①		②		③		⑨
	체육시설	①		②		③		⑨
	문화센터, 문화원	①		②		③		⑨
	문화재단	①		②		③		⑨
	상담센터	①		②		③		⑨
	자원봉사 센터	①		②		③		⑨
	고용지원 센터	①		②		③		⑨
	평생학습센터	①		②		③		⑨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③		⑨
청소년 (수련)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생활권 주변)	①		②		③		⑨
	청소년수련원 (자연권에 있는 숙박 중심 시설)	①		②		③		⑨
	청소년문화의 집	①		②		③		⑨
	청소년문화정보센 터·청소년교육문화 센터 등	①		②		③		⑨
사회복지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⑨

구분	세부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교육기관	인근 초·중·고	①		②		③	
	대학 등	①		②		③	
종교기관		①		②		③	
시민단체	NGO/NPO 기관	①		②		③	
기타	내용:	①		②		③	

부록

2012년 5월

<http://www.nypi.re.kr>

담당자: 황인창 차장/열숙회 팀장 (02)3014-0086/0131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	------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고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보통이다’면 ③에, ‘그런 편이다’면 ④에, ‘매우 그렇다’면 ⑤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는 한 번도 지각을 매우 자주 했기 때문에 ‘⑤’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 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⑤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및 인식

(반드시 다음에 나오는 창의적 체험활동 소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질문에 답해주세요.)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 청소년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창의적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말합니다. 2012년에는 초등학교 1~4학년, 중고등학교 1, 2학년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창의적 체험활동은 아래 표에 있는 활동들을 말합니다.

활동내용	설 명
자율활동	상담활동, 학교생활 잘하기활동, 생활습관기르기 활동, 학생회나 학급부서활동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전시회, 발표회, 학예회와 같은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말합니다.
동아리 활동	학습 동아리, 음악·미술·연극 동아리, 스포츠 동아리, 요리·꽃꽂이·로봇 제작 동아리, 스카우트와 같은 여러 가지 단체활동을 말합니다.
봉사활동	자연환경보호, 캠페인,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와 같이 학교나 학교 밖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말합니다.
진로활동	나의 적성이나 특기를 알아 가는 활동,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할지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지 등을 알아보고 생각해보고 체험해 보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합니다.

**문 1. 귀하는 학교에서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또는 체험활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시나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체험활동 시간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체험활동 때문에 학교 생활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⑤
4) 체험활동은 나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5) 체험활동을 통해 선생님과 친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6) 체험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친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7) 체험활동을 통해 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①	②	③	④	⑤
8) 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9)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감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0) 더 많은 체험활동을 하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11) 다시 해 보고 싶은 체험활동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체험활동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다	①	②	③	④	⑤
13) 체험활동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14)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체험활동에 빠져든다	①	②	③	④	⑤

문 2.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내 용	절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1)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공부를 하면 부모님이 상(옹돈, 선물, 칭찬 등)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공부를 하면 선생님이 칭찬을 하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부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벌(야단, 체벌)을 주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시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공부하는 것을 즐기므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어려운 도전들로부터 기쁨을 느끼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지식을 키우는 것이 재미있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생각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모르는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싶어서 공부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가 학교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솔직히 학교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왜 학교에 가는지 모르겠고, 솔직히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인생에서 공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18) 공부는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 아래의 문항들은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내 용	전혀 그렇 지 않다	거의 그렇 지 않다	가끔 그렇 다	대체 로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도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해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4.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각 항목에 동의하는 정도를 표시하세요.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목표를 분명히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목표 달성 정도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업적을 잘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로 쉬운 일을 즐긴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 어떤 일을 하는 도중에는 걱정과 근심도 잊게 된다	①	②	③	④	⑤
6)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과 관계가 없는 딴 생각은 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일을 하다가 생기는 불상사를 거뜬히 대처해 낼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떤 일을 하다가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일의 매 단계를 구분해서 단계 단계 이루어 나간다	①	②	③	④	⑤
11) 어떤 일에 열중할 때 일의 진행 속도와 정도를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하는 일은 대개 내 능력에 부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온 정신을 쏟아 딴 생각할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의 모든 정신 에너지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일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평소에 불의의 사태가 일어날까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7) 일을 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일의 결과보다도 일 그 자체에 의의를 둔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목표가 있고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을 안다	①	②	③	④	⑤
20) 하다보면 끝이 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일의 종류에 따라 내 능력을 적절히 잘 조절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일을 할 때 마음먹은 대로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어떤 일에 몰두하여(빠져들어) 내 자신을 잊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어떤 일에 쉽게 몰입한다(빠져든다)	①	②	③	④	⑤
25) 최선을 다하면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6) 요즈음 나는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7) 해도 해도 또 하고 싶은 활동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8)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할 때 어디에서 다시 시작해야 할지 빨리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는 일을 할 때 이대로 하면 되는 건지 어떤지 확신이 안 설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0)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쉽지도 어렵지도 않다	①	②	③	④	⑤
31) 내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빠져들면) 일이 저절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2) 집중을 하여 일을 하다보면 앞으로의 걱정거리도 사라진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3) 나는 쉽게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4) 내 생활은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5) 나는 짧은 순간에도 아주 의미있는 경험을 하곤 한다	①	②	③	④	⑤
36) 나는 주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7) 나는 나도 모르게 목표 달성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8) 나는 하는 일이 너무 쉬워 재미가 없을 때 난이도를 조금 높여 내 능력에 맞출 줄 안다	①	②	③	④	⑤
39) 내가 하는 일은 마치 흘러가는 물처럼 저절로 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0) 어떤 일에 완전히 빠져들면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1) 대화나 독서 중에 주제와는 상관없는 엉뚱한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①	②	③	④	⑤
42)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기분은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지’하는 생각이다	①	②	③	④	⑤
43) 세상일이 성공하고 안 하고는 기본적으로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①	②	③	④	⑤
44) 시간을 잊고 책이나 음악에 빠져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나에게 있어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은 일치할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6) 나는 목표에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할지를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목표 달성 자체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향해 한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48) 나는 쉬운 일보다는 약간 어려운 일 이 더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49) 일이 잘 되어가면 일이 나를 사로잡 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50) 일이나 놀이에 빠져들면 아무 것도 들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51) 여러 가지 산만한 생각이 들어 어떤 일을 시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52) 나는 모든 상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기분이다	①	②	③	④	⑤
53) 나는 몸과 마음을 잘 통제할 수 있 다	①	②	③	④	⑤
54) 일(공부 등)은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①	②	③	④	⑤
55) 어떤 일(공부 등)을 통해서 얻은 만 족감은 돈보다 가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6) 목표가 있으므로 나는 내 능력을 키 워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7) 일(공부 등)을 할 때 자주 아직 얼마 나 남았느냐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①	②	③	④	⑤
58) 일(공부 등)이 너무 어려워 두려운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59) 일단 시작한 일(공부 등)은 끝을 볼 때까지 방해받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60) 과제 수행에 불필요한 자극들은 내 의식에서 저절로 차단된다	①	②	③	④	⑤
61) 딴 생각이 안 든다면 훨씬 빨리 일 을 마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62) 평소 머리가 복잡하다	①	②	③	④	⑤
63) 엉뚱한 생각이 자주 들어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항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4) 어떤 일(공부 등)에 몰입하여(빠져 들어) 나 자신을 망각할 때(잊어버 릴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65) 나는 일(공부 등)을 할 때 지겹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배경 질문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1. 아래에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  표시합니다.

① 할아버지/외할아버지

② 할머니/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형제 또는 자매

⑥ 친척

⑦ 기타()

⑧ 없음

배문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
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②번)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학위)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배문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4. 학생의 학업 성적(2012년 1학기)이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5. 학생의 가정 형편(경제 수준)이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수준		-----> 잘산다		매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배문6.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어디입니까?

()시/도 ()시/군/구 ()읍/면/동

※ 사는 곳이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이라면 (서울)㉠/도 (서초)시/군/㉡ (우면)읍/면/㉢으로 표기함

※ 사는 곳이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동이라면 (충청남)시/㉣ (아산)시/군/구 (배방)읍/면/㉤으로 표기함

☆ 빠진 문항이 없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학교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의 중간점검을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시범사업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선생님의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현철 박사 (02)2188-8836

황여정 박사 (02)2188-8882

1. 선생님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과 관련하여 선생님들의 생각을 묻겠습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 주십시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학교 선생님들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이 학생지도 또는 교육에 활력소가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은 교육과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주 5일 수업제 전면도입이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골라주십시오.)

- ① 운영 예산 ② 학교 운영의 합리화 (효율화) ③ 업무 부담 경감
④ 지역사회 자원 코디네이터 또는 코디네이터 기관 ⑤ 좋은 프로그램

3. 창의적 체험활동의 원활한 활성화를 위해 외부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하는 인력(코디네이터) 혹은 기관(코디네이터 기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한 편이다
⑤ 매우 필요하다

※ 지역사회자원 코디네이터(코디네이터 기관)란 선생님께서 속한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수련관 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의미합니다.

4. 선생님 학교에서는 다음 중 어떤 형태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계십니까?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내용	예	아니오
1) 매월 1~2일 반일제 또는 전일제로 운영한다.	①	②
2) 학년에 관계없이 2009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①	②
3) 기존의 특별활동·계발활동·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①	②

5. 창의체험자원지도(CRM: Creativity Resources Map)는 선생님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십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기타 체험활동을 운영하기 위해 아래 각 기관과 어느 정도나 관계가 이뤄졌는지를 작성 방법을 참조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단계) 먼저 각 기관별과의 네트워크 정도를 1단계~ 3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네트워크가 밀접한 관계이며, 상위단계는 하위단계의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교류가 없으면 맨 오른쪽의 '상호 교류 없음(⑨)'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단순한 공문처리 관련사항은 상호교류사항으로 고려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시>

구분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③	

2단계) 그 옆 공란에 금년 1학기 동안 이루어진 네트워크 관계 횟수를 기입

<예시>

구분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3	③	
	박물관	①		②		③	

구분	세부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교류 없음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⑨	
교육지원청		①		②		③		⑨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③		⑨	
	박물관	①		②		③		⑨	
	전시관	①		②		③		⑨	
	체육시설	①		②		③		⑨	
	문화센터, 문화원	①		②		③		⑨	
	문화재단	①		②		③		⑨	
	상담센터	①		②		③		⑨	
	자원봉사 센터	①		②		③		⑨	
	고용지원 센터	①		②		③		⑨	
	평생학습센터	①		②		③		⑨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③		⑨	
청소년 (수련)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생활권 주변)	①		②		③		⑨	
	청소년수련원 (자연권에 있는 숙박 중심 시설)	①		②		③		⑨	
	청소년문화의 집	①		②		③		⑨	
	청소년문화정보센 터·청소년교육문화 센터 등	①		②		③		⑨	
사회복지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⑨	

기업 및 상업시설	기업, 직업체험기관 (키자니아 등)	①		②		③		⑨
	상공회의소 등	①		②		③		⑨
교육기관	인근 초·중·고	①		②		③		⑨
	대학 등	①		②		③		⑨
종교기관		①		②		③		⑨
시민단체	NGO/NPO 기관	①		②		③		⑨
기타	내용: _____	①		②		③		⑨

7. 선생님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언제부터 연계·협력 관계를 구축하셨습니까?

- 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처음으로 연계·협력하게 되었다
- ② 시범사업 이전에도 자체적으로 연계·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8. 선생님께서는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아래 각 문항별로 답해주시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코디네이터 기관의 담당자	①	②	③	④
2) 코디네이터의 전문적 역량	①	②	③	④
3)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강사	①	②	③	④
4) 코디네이터 기관이 연계 또는 지원해 준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4-1) 만족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명을 구체적으로 기입해주시시오.

(_____)

9. 코디기관의 시설을 이용한 적이 있으시다면, 코디기관 시설에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이용해본적없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와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연계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고르거나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2012년 창의적 체험활동 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2) 선생님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향후 창의적 체험활동을 위한 연간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3) 선생님 학교에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기관과 어떤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편이다	잘 이루어지는 편이다	매우 긴밀하다
창의적 체험활동 관련 사항	①	②	③	④	⑤
기타사항	①	②	③	④	⑤
기타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	-	-	-	-	-

4) 선생님 학교에서는 지난 1학기에 코디네이터 기관과 업무협의회를 몇 회 개최하셨습니까? 총 _____회

5) 선생님께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의 업무협의회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6) 선생님 학교에서는 코디네이터 기관과 연구모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운영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않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7) 연구모임의 운영방식과 연구모임이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끼친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운영방식)

(성 과)

11. 선생님께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지원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2. 다음은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여쭙어보는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고르거나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본 시범사업처럼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2) 코디네이터 기관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지역사회 기관이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3) 학교 내에 전문 코디네이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선생님께서는 본 사업을 계기로 학교 내 체험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14. 선생님께서는 본 시범사업처럼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때, 학교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주도해야 한다
- ② 학교는 지역사회 기관이나 자원들과 동등한 수준에서 연계에 참여해야 한다
- ③ 여타 지역사회 기관이나 자원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학교는 그 일부로 참여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15. 본 시범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은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내부)

(코디기관)

(기타 교육(지원)청, 부처, 시범사업운영본부 등)

16. 본 시범사업의 개선을 위해 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청에 대한 요구, 시범사업 개선 사항, 코디네이터 기관에 대한 요구 등)

17. 이번 워크샵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만족
①	②	③	④

18. 향후 워크샵 운영 개선을 위해 조언해 주십시오.

19.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 | |
|------------------------------|------------|
| ① 초등학교 | ② 중학교 |
| ③ 일반계 고등학교 | ④ 특성화 고등학교 |
| ⑤ 기타() | |

20.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는 학교는 다음 중 어디에 있습니까?

- ① 대도시
- ② 중소도시
- ③ 읍면지역(또는 군지역)

--	--	--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 조사 (코디기관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각종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여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하는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은 시범사업의 개선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무기명으로 작성하시면 되므로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현철 박사 (02)2188-8836

황여정 박사 (02)2188-8882

1. 귀 기관에서는 지난 1학기에 시범학교와 업무협의회(또는 창체협의회)를 몇 회 개최하셨습니다니까? (만약 개최한 적이 없다면 “0회”로 기입해주시오.)

총 _____ 회

2. 귀 기관에서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연구모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별로 답해 주십시오.

문항	운영하지 않고 있다	운영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않다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1) 시범학교 교사와의 연구모임	①	②	③
2) 기타 연구모임 ※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	①	②	③

3. 연구모임의 운영방식과 연구모임이 시범사업 운영에 끼친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운영방식)

(성 과)

4. 귀 기관에서는 시범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협의회를 운영하거나 참여하고 계십니까? 각 항목별로 답해 주십시오.

문항	운영(참여)하지 않고 있다	운영(참여)하고 있으나, 활발하지는 않다	활발히 운영(참여)하고 있다
1) 시범사업 관련 지역사회협의회	①	②	③
2) 기존의 지역사회협의회	①	②	③

5. 지역사회협의회의 내용·운영방식이나 성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내용이나 운영방식)

(성 과)

6. 귀 기관의 시범사업 전담팀(운영팀)은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명

7. 귀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과 학교지원사업으로 구분할 때, 전체사업에서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답 예시 : ...3/10, 5/10, 6/10...)

(/10)

8. 다음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음 문항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각 항목에 알맞은 답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시범사업의 취지 및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시범사업에 대한 기관장의 의지는 확고하다	①	②	③	④	⑤
3) 시범사업에 대해 기관장과 실무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시범사업은 실무자에게는 다른 사업보다 특별히 더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5) 시범사업을 계기로 시범학교의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체험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지역 네트워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증가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존재감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10) 개발된 지역사회 네트워크 자원은 충실히 활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의 청소년 체험활동 관련 자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코디네이터 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코디네이터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시범학교와의 창체계획 공동수립은 필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5) 시범학교와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시범사업의 홍보 및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시범학교의 자원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시범사업 운영팀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시범학교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시범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운용계획을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시범학교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시범학교 교사의 요구를 파악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특화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특화프로그램은 학교급별/학년별로 차별화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시범사업에서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본 시범사업을 포함하여 귀 기관이 청소년체험활동을 위해 아래 각 기관과 어느 정도 나 연계관계가 이뤄졌는지를 아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1단계) 먼저 각 기관별과의 네트워크 정도를 1단계~ 3단계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1단계에서 3단계로 갈수록 네트워크가 밀접한 관계이며, 상위단계는 하위단계의 사항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상호 교류가 없으면 맨 오른쪽의 '상호 교류 없음(⑨)'에 동그라미(O)로 표시해 주세요.

※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경우, 단순한 공문처리 관련사항은 상호교류사항으로 고려하지 말아주십시오.

<예시>

구분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상호 교류 없음
		1단계		2단계		3단계		표시(O)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③		⑨	

2단계) 그 옆 공란에 금년 1학기 동안 이루어진 네트워크 관계 횟수를 기입

<예시>

구분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 교류 없음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표시 (O)	건수 (횟수)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3	③		⑨
	박물관	①		②		③		⑨

구분	세부 기관 및 시설	활동 내용							
		1단계		2단계		3단계		상호교 류 없음	
		정보교류 또는 의견교환		물적 자원교류 또는 인적 자원교류		정기모임 또는 공동사업 또는 공식계약(협약)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건수(횟수)		표시(O)
지방자치단체		①		②		③		⑨	
교육지원청		①		②		③		⑨	
문화 및 공공서비스 기관	도서관	①		②		③		⑨	
	박물관	①		②		③		⑨	
	전시관	①		②		③		⑨	
	체육시설	①		②		③		⑨	
	문화센터, 문화원	①		②		③		⑨	
	문화재단	①		②		③		⑨	
	상담센터	①		②		③		⑨	
	자원봉사 센터	①		②		③		⑨	
	고용지원 센터	①		②		③		⑨	
	평생학습센터	①		②		③		⑨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③		⑨	
청소년 (수련) 활동시설	청소년수련관 (생활권 주변)	①		②		③		⑨	
	청소년수련원 (자연권에 있는 숙박 중심 시설)	①		②		③		⑨	
	청소년문화의 집	①		②		③		⑨	
	청소년문화정보센 터·청소년교육문화 센터 등	①		②		③		⑨	
사회복지 시설	종합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⑨	

기업 및 상업시설	기업, 직업체험기관 (키자니아 등)	①		②		③		⑨
	상공회의소 등	①		②		③		⑨
교육기관	인근 초·중·고	①		②		③		⑨
	대학 등	①		②		③		⑨
종교기관		①		②		③		⑨
시민단체	NGO/NPO 기관	①		②		③		⑨
지역사회협 의회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세요 ()	①		②		③		⑨
기타	내용:	①		②		③		⑨

10. 본 시범사업을 운영하시면서 겪은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본 시범사업의 개선을 위해 제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지원)청에 대한 요구, 시범사업 개선 사항, 시범학교에 대한 요구 등)

12. 이번 워크샵의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13. 향후 워크샵 운영 개선을 위해 조언해주십시오.

14.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 ① 청소년수련관 ② 청소년문화의집

15. 귀하께서 근무하시는 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있습니까?

- ①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읍면지역(또는 군지역)

16. 귀하의 직급은 무엇입니까? ()

17. 귀하의 청소년기관 근무기관은 몇 년입니까?()년

※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범사업 또는 기관의 추진사업 관련한 문의 언제든지 대환
영입니다.

부록 2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학생변화에 대한 인식 (문항별 결과)

부록 표-1 응답자 분포표

(단위 : %)

	사례수 (명)	1.0
전체	(9179)	100.0
성별		
남자	(4820)	52.5
여자	(4359)	47.5
학교급		
초등학교	(2838)	30.9
중학교	(3141)	34.2
일반계고	(2460)	26.8
전문계고	(740)	8.1
학교 소재지		
서울	(3954)	43.1
광역시	(3953)	43.1
시군	(1272)	13.9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103)	88.3
한부모 가정	(786)	8.6
조손가정	(97)	1.1
기타	(113)	1.2
무응답	(79)	0.9
경제적 수준		
상	(1344)	14.6
중	(7296)	79.5
하	(428)	4.7
무응답	(110)	1.2
학교 성적		
상	(2726)	29.7
중	(3828)	41.7
하	(2581)	28.1
무응답	(44)	0.5

부록 표-2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1)나는 모든 체험활동에 열심히 참여 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126(1.4)	575(6.3)	3112(33.9)	3561(38.8)	1755(19.1)	50(0.5)	9179(100.0)
성별							
남자	90(1.9)	309(6.4)	1585(32.9)	1822(37.8)	989(20.5)	26(0.5)	4820(100.0)
여자	36(.8)	266(6.1)	1527(35.0)	1739(39.9)	766(17.6)	24(0.6)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30(1.0)	102(3.6)	740(26.1)	1071(37.7)	852(30.0)	44(1.6)	2838(100.0)
중학교	45(1.4)	212(6.8)	1192(38.0)	1188(37.8)	502(16.0)	1(0.0)	3141(100.0)
일반계고	41(1.7)	196(8.0)	861(35.0)	1039(42.3)	318(12.9)	5(0.2)	2460(100.0)
전문계고	10(1.4)	65(8.7)	319(43.2)	263(35.5)	83(11.2)	0(0.0)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44(1.1)	250(6.3)	1276(32.3)	1564(39.6)	813(20.6)	6(0.2)	3954(100.0)
광역시	62(1.6)	249(6.3)	1402(35.5)	1491(37.7)	704(17.8)	44(1.1)	3953(100.0)
시군	20(1.5)	75(5.9)	434(34.1)	506(39.8)	237(18.7)	0(0.0)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115(1.4)	488(6.0)	2686(33.1)	3183(39.3)	1588(19.6)	43(0.5)	8103(100.0)
한부모 가정	8(1.1)	75(9.5)	311(39.6)	272(34.6)	115(14.6)	5(0.6)	786(100.0)
조손가정	1(1.0)	3(2.9)	46(46.9)	31(31.8)	15(15.3)	2(2.2)	97(100.0)
기타	0(0.0)	5(4.3)	38(33.7)	46(40.7)	24(21.3)	0(0.0)	113(100.0)
무응답	1(1.3)	5(5.9)	32(39.8)	29(36.7)	13(16.3)	0(0.0)	79(100.0)
경제적 수준							
상	20(1.5)	45(3.4)	282(21.0)	529(39.3)	463(34.4)	6(0.4)	1344(100.0)
중	95(1.3)	501(6.9)	2629(36.0)	2822(38.7)	1205(16.5)	44(0.6)	7296(100.0)
하	5(1.2)	24(5.6)	168(39.3)	161(37.6)	70(16.3)	0(0.0)	428(100.0)
무응답	6(5.3)	5(4.8)	33(29.8)	49(44.5)	17(15.6)	0(0.0)	110(100.0)
학교 성적							
상	26(0.3)	97(1.1)	622(6.8)	1161(12.6)	810(8.8)	10(0.1)	2726(29.7)
중	48(0.5)	243(2.7)	1369(14.9)	1497(16.3)	641(7.0)	30(0.3)	3828(41.7)
하	51(0.6)	231(2.5)	1104(12.0)	888(9.7)	297(3.2)	10(0.1)	2581(28.1)
무응답	1(0.0)	3(0.0)	17(0.2)	15(0.2)	7(0.1)	0(0.0)	44(0.5)

부록 표-3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2)나는 체험활동시간이 기다려진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340(3.7)	1097(11.9)	2837(30.9)	2864(31.2)	1994(21.7)	47(0.5)	9179(100.0)
성별							
남자	199(4.1)	540(11.2)	1480(30.7)	1427(29.6)	1151(23.9)	24(0.5)	4820(100.0)
여자	141(3.2)	557(12.8)	1357(31.1)	1437(33.0)	844(19.4)	23(0.5)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65(2.3)	139(4.9)	612(21.6)	835(29.4)	1145(40.3)	43(1.5)	2838(100.0)
중학교	111(3.5)	413(13.2)	1093(34.8)	1016(32.3)	507(16.1)	1(0.0)	3141(100.0)
일반계고	111(4.5)	392(15.9)	870(35.4)	797(32.4)	288(11.7)	3(0.1)	2460(100.0)
전문계고	54(7.2)	153(20.7)	262(35.5)	216(29.2)	55(7.4)	0(0.0)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135(3.4)	461(11.7)	1250(31.6)	1237(31.3)	866(21.9)	5(0.1)	3954(100.0)
광역시	162(4.1)	517(13.1)	1200(30.4)	1216(30.8)	817(20.7)	42(1.1)	3953(100.0)
시군	43(3.3)	119(9.4)	387(30.4)	411(32.4)	312(24.5)	0(0.0)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299(3.7)	939(11.6)	2464(30.4)	2574(31.8)	1786(22.0)	41(0.5)	8103(100.0)
한부모 가정	33(4.1)	120(15.3)	284(36.2)	200(25.5)	143(18.2)	5(0.6)	786(100.0)
조손가정	2(1.7)	8(8.2)	45(46.6)	28(28.4)	14(14.1)	1(1.1)	97(100.0)
기타	3(2.9)	11(9.8)	26(22.9)	35(30.6)	38(33.7)	0(0.0)	113(100.0)
무응답	3(4.2)	18(22.4)	17(21.4)	27(34.7)	14(17.3)	0(0.0)	79(100.0)
경제적 수준							
상	41(3.0)	98(7.3)	290(21.6)	381(28.3)	531(39.5)	4(0.3)	1344(100.0)
중	269(3.7)	911(12.5)	2373(32.5)	2320(31.8)	1380(18.9)	43(0.6)	7296(100.0)
하	26(6.0)	76(17.7)	144(33.6)	120(27.9)	63(14.8)	0(0.0)	428(100.0)
무응답	5(4.2)	12(10.6)	30(27.4)	44(39.8)	20(18.0)	0(0.0)	110(100.0)
학교 성적							
상	72(2.6)	243(8.9)	700(25.7)	856(31.4)	846(31.1)	9(0.3)	2726(100.0)
중	141(3.7)	441(11.5)	1225(32.0)	1222(31.9)	770(20.1)	29(0.8)	3828(100.0)
하	125(4.8)	407(15.8)	897(34.8)	771(29.9)	371(14.4)	9(0.3)	2581(100.0)
무응답	2(3.6)	6(12.5)	15(33.6)	16(35.3)	7(14.9)	0(0.0)	44(100.0)

부록 표-4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3)나는 체험활동때문에 학교생활이 즐겁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500(5.4)	1408(15.3)	3651(39.8)	2156(23.5)	1401(15.3)	63(0.7)	9179(100.0)
성별							
남자	263(5.5)	670(13.9)	1902(39.5)	1096(22.7)	853(17.7)	36(0.7)	4820(100.0)
여자	237(5.4)	738(16.9)	1749(40.1)	1060(24.3)	547(12.6)	27(0.6)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79(2.8)	192(6.8)	868(30.6)	807(28.4)	840(29.6)	53(1.9)	2838(100.0)
중학교	170(5.4)	512(16.3)	1381(44.0)	747(23.8)	327(10.4)	4(0.1)	3141(100.0)
일반계고	183(7.4)	536(21.8)	1050(42.7)	491(20.0)	194(7.9)	6(0.2)	2460(100.0)
전문계고	68(9.2)	168(22.7)	352(47.5)	112(15.1)	40(5.4)	1(0.1)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209(5.3)	627(15.9)	1569(39.7)	920(23.3)	623(15.8)	7(0.2)	3954(100.0)
광역시	238(6.0)	633(16.0)	1568(39.7)	894(22.6)	567(14.3)	53(1.3)	3953(100.0)
시군	53(4.2)	148(11.6)	513(40.4)	342(26.9)	211(16.6)	4(0.3)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443(5.5)	1216(15.0)	3198(39.5)	1933(23.9)	1261(15.6)	52(0.6)	8103(100.0)
한부모 가정	43(5.5)	142(18.1)	342(43.6)	155(19.7)	98(12.5)	5(0.6)	786(100.0)
조손가정	3(2.7)	12(12.5)	45(46.4)	23(23.8)	12(12.1)	2(2.4)	97(100.0)
기타	4(3.9)	20(17.8)	35(31.2)	33(29.5)	18(16.0)	2(1.5)	113(100.0)
무응답	7(8.4)	17(21.7)	30(37.6)	12(14.7)	12(14.9)	2(2.7)	79(100.0)
경제적 수준							
상	48(3.6)	112(8.3)	394(29.3)	363(27.0)	418(31.1)	9(0.7)	1344(100.0)
중	400(5.5)	1178(16.1)	3033(41.6)	1700(23.3)	932(12.8)	52(0.7)	7296(100.0)
하	43(10.0)	106(24.7)	174(40.6)	70(16.3)	35(8.2)	1(0.2)	428(100.0)
무응답	9(8.4)	12(10.7)	50(45.1)	23(20.6)	15(14.0)	1(1.1)	110(100.0)
학교 성적							
상	115(4.2)	312(11.5)	960(35.2)	721(26.4)	604(22.2)	14(0.5)	2726(100.0)
중	188(4.9)	625(16.3)	1515(39.6)	922(24.1)	544(14.2)	35(0.9)	3828(100.0)
하	194(7.5)	464(18.0)	1155(44.8)	507(19.6)	248(9.6)	12(0.5)	2581(100.0)
무응답	4(8.5)	7(15.6)	20(45.7)	6(14.7)	5(10.6)	2(4.9)	44(100.0)

부록 표-5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4)나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722(7.9)	1876(20.4)	3701(40.3)	1956(21.3)	859(9.4)	65(0.7)	9179(100.0)
성별							
남자	432(9.0)	947(19.6)	1902(39.5)	993(20.6)	514(10.7)	33(0.7)	4820(100.0)
여자	290(6.7)	929(21.3)	1798(41.3)	963(22.1)	345(7.9)	32(0.7)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119(4.2)	294(10.3)	1156(40.7)	731(25.7)	484(17.1)	54(1.9)	2838(100.0)
중학교	249(7.9)	723(23.0)	1325(42.2)	654(20.8)	187(5.9)	4(0.1)	3141(100.0)
일반계고	273(11.1)	663(27.0)	928(37.7)	449(18.2)	141(5.8)	5(0.2)	2460(100.0)
전문계고	81(10.9)	196(26.5)	292(39.4)	123(16.6)	47(6.4)	1(0.2)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298(7.5)	781(19.7)	1583(40.0)	883(22.3)	399(10.1)	10(0.3)	3954(100.0)
광역시	343(8.7)	888(22.5)	1550(39.2)	797(20.2)	325(8.2)	50(1.3)	3953(100.0)
시군	81(6.4)	208(16.3)	568(44.7)	276(21.7)	134(10.6)	5(0.4)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637(7.9)	1670(20.6)	3240(40.0)	1748(21.6)	755(9.3)	53(0.7)	8103(100.0)
한부모 가정	61(7.7)	154(19.6)	344(43.7)	148(18.8)	72(9.2)	7(0.9)	786(100.0)
조손가정	3(2.7)	20(20.4)	40(41.1)	25(26.0)	8(8.7)	1(1.1)	97(100.0)
기타	10(9.3)	16(13.7)	45(39.8)	27(24.1)	14(12.1)	1(1.1)	113(100.0)
무응답	11(14.4)	17(21.0)	32(40.3)	8(9.8)	9(11.8)	2(2.7)	79(100.0)
경제적 수준							
상	87(6.5)	156(11.6)	464(34.5)	363(27.0)	267(19.8)	7(0.5)	1344(100.0)
중	568(7.8)	1581(21.7)	3042(41.7)	1492(20.4)	557(7.6)	55(0.8)	7296(100.0)
하	56(13.0)	124(29.1)	148(34.6)	71(16.6)	27(6.4)	1(0.3)	428(100.0)
무응답	11(9.7)	15(13.2)	46(41.7)	30(27.2)	8(7.0)	1(1.1)	110(100.0)
학교 성적							
상	166(6.1)	472(17.3)	991(36.4)	692(25.4)	391(14.3)	15(0.6)	2726(100.0)
중	271(7.1)	763(19.9)	1616(42.2)	825(21.5)	319(8.3)	35(0.9)	3828(100.0)
하	283(10.9)	637(24.7)	1071(41.5)	432(16.8)	146(5.7)	13(0.5)	2581(100.0)
무응답	3(7.1)	5(10.7)	23(53.2)	7(17.0)	3(7.1)	2(4.9)	44(100.0)

부록 표-6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5)선생님과 친해졌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770(8.4)	1702(18.5)	3670(40.0)	2031(22.1)	954(10.4)	53(0.6)	9179(100.0)
성별							
남자	440(9.1)	838(17.4)	1894(39.3)	1070(22.2)	550(11.4)	29(0.6)	4820(100.0)
여자	330(7.6)	864(19.8)	1776(40.7)	962(22.1)	404(9.3)	23(0.5)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146(5.1)	317(11.2)	1053(37.1)	745(26.3)	534(18.8)	43(1.5)	2838(100.0)
중학교	262(8.4)	629(20.0)	1371(43.6)	629(20.0)	249(7.9)	1(0.0)	3141(100.0)
일반계고	295(12.0)	562(22.8)	946(38.5)	516(21.0)	134(5.5)	7(0.3)	2460(100.0)
전문계고	67(9.0)	194(26.3)	300(40.5)	141(19.1)	36(4.8)	2(0.3)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342(8.6)	712(18.0)	1609(40.7)	841(21.3)	445(11.3)	6(0.2)	3954(100.0)
광역시	337(8.5)	790(20.0)	1547(39.1)	861(21.8)	373(9.4)	46(1.2)	3953(100.0)
시군	91(7.1)	200(15.7)	514(40.5)	330(26.0)	136(10.7)	0(0.0)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674(8.3)	1488(18.4)	3253(40.1)	1787(22.0)	854(10.5)	48(0.6)	8103(100.0)
한부모 가정	76(9.6)	163(20.8)	296(37.7)	179(22.7)	68(8.7)	4(0.5)	786(100.0)
조손가정	6(6.2)	15(15.7)	43(44.1)	25(25.6)	7(7.4)	1(1.1)	97(100.0)
기타	5(4.2)	17(15.4)	46(40.6)	32(28.3)	13(11.5)	0(0.0)	113(100.0)
무응답	10(12.1)	18(22.5)	32(40.3)	9(11.8)	11(13.4)	0(0.0)	79(100.0)
경제적 수준							
상	98(7.3)	145(10.8)	420(31.2)	384(28.6)	295(21.9)	3(0.2)	1344(100.0)
중	611(8.4)	1435(19.7)	3047(41.8)	1534(21.0)	621(8.5)	48(0.7)	7296(100.0)
하	51(11.9)	105(24.5)	156(36.3)	88(20.6)	27(6.2)	2(0.5)	428(100.0)
무응답	10(9.5)	17(15.4)	47(42.5)	25(22.9)	11(9.7)	0(0.0)	110(100.0)
학교 성적							
상	172(6.3)	397(14.6)	1008(37.0)	720(26.4)	419(15.4)	11(0.4)	2726(100.0)
중	299(7.8)	723(18.9)	1558(40.7)	854(22.3)	365(9.5)	30(0.8)	3828(100.0)
하	293(11.4)	575(22.3)	1079(41.8)	452(17.5)	169(6.5)	12(0.5)	2581(100.0)
무응답	6(14.0)	6(13.3)	25(57.3)	6(13.1)	1(2.4)	0(0.0)	44(100.0)

부록 표-7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인식-6)친구들과 친해졌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376(4.1)	796(8.7)	3035(33.1)	3188(34.7)	1731(18.9)	52(0.6)	9179(100.0)
성별							
남자	228(4.7)	422(8.7)	1527(31.7)	1609(33.4)	1008(20.9)	27(0.6)	4820(100.0)
여자	148(3.4)	374(8.6)	1508(34.6)	1580(36.2)	723(16.6)	24(0.6)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84(3.0)	149(5.3)	661(23.3)	927(32.7)	969(34.2)	48(1.7)	2838(100.0)
중학교	115(3.7)	294(9.4)	1182(37.6)	1123(35.7)	427(13.6)	1(0.0)	3141(100.0)
일반계고	127(5.2)	254(10.3)	895(36.4)	898(36.5)	283(11.5)	3(0.1)	2460(100.0)
전문계고	50(6.7)	99(13.4)	298(40.2)	241(32.5)	52(7.1)	0(0.0)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174(4.4)	323(8.2)	1255(31.7)	1420(35.9)	774(19.6)	8(0.2)	3954(100.0)
광역시	157(4.0)	380(9.6)	1372(34.7)	1311(33.2)	690(17.5)	43(1.1)	3953(100.0)
시군	45(3.5)	93(7.3)	408(32.1)	457(36.0)	268(21.0)	1(0.1)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330(4.1)	693(8.6)	2676(33.0)	2812(34.7)	1547(19.1)	44(0.5)	8103(100.0)
한부모 가정	34(4.4)	81(10.3)	264(33.6)	282(35.9)	120(15.2)	5(0.6)	786(100.0)
조손가정	8(7.8)	8(8.7)	29(30.2)	35(35.9)	16(16.3)	1(1.1)	97(100.0)
기타	2(1.4)	10(9.1)	26(22.9)	40(35.6)	35(30.9)	0(0.0)	113(100.0)
무응답	2(3.0)	3(4.3)	40(50.3)	19(23.4)	14(17.3)	1(1.6)	79(100.0)
경제적 수준							
상	48(3.6)	80(5.9)	282(21.0)	435(32.3)	492(36.6)	7(0.5)	1344(100.0)
중	297(4.1)	639(8.8)	2575(35.3)	2564(35.1)	1178(16.1)	43(0.6)	7296(100.0)
하	24(5.7)	69(16.2)	148(34.6)	143(33.4)	43(10.1)	0(0.0)	428(100.0)
무응답	7(6.2)	8(7.2)	29(26.5)	47(42.6)	18(16.4)	1(1.1)	110(100.0)
학교 성적							
상	95(3.5)	178(6.5)	754(27.7)	967(35.5)	719(26.4)	13(0.5)	2726(100.0)
중	142(3.7)	325(8.5)	1231(32.1)	1391(36.3)	711(18.6)	29(0.8)	3828(100.0)
하	139(5.4)	291(11.3)	1027(39.8)	822(31.8)	294(11.4)	8(0.3)	2581(100.0)
무응답	0(0.0)	3(5.9)	23(53.1)	9(21.6)	7(16.6)	1(2.9)	44(100.0)

부록 표-8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인식-7)수업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웠다

(단위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그런 편이다	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400(4.4)	944(10.3)	3076(33.5)	3142(34.2)	1535(16.7)	82(0.9)	9179(100.0)
성별							
남자	235(4.9)	500(10.4)	1585(32.9)	1562(32.4)	887(18.4)	51(1.1)	4820(100.0)
여자	164(3.8)	443(10.2)	1491(34.2)	1580(36.3)	648(14.9)	31(0.7)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54(1.9)	126(4.4)	716(25.2)	1001(35.3)	888(31.3)	53(1.9)	2838(100.0)
중학교	132(4.2)	316(10.1)	1199(38.2)	1095(34.9)	378(12.0)	20(0.6)	3141(100.0)
일반계고	158(6.4)	396(16.1)	864(35.1)	830(33.7)	202(8.2)	9(0.4)	2460(100.0)
전문계고	55(7.4)	106(14.3)	296(40.1)	216(29.1)	67(9.1)	0(0.0)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154(3.9)	372(9.4)	1322(33.4)	1394(35.3)	693(17.5)	20(0.5)	3954(100.0)
광역시	199(5.0)	466(11.8)	1357(34.3)	1289(32.6)	583(14.8)	59(1.5)	3953(100.0)
시군	47(3.7)	106(8.3)	398(31.3)	459(36.1)	259(20.4)	3(0.3)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362(4.5)	836(10.3)	2692(33.2)	2790(34.4)	1356(16.7)	69(0.8)	8103(100.0)
한부모 가정	28(3.6)	70(8.9)	293(37.2)	256(32.6)	128(16.3)	11(1.4)	786(100.0)
조손가정	3(3.2)	13(13.4)	31(32.3)	41(42.2)	8(7.8)	1(1.1)	97(100.0)
기타	2(2.2)	11(9.5)	33(28.9)	36(31.9)	29(25.9)	2(1.7)	113(100.0)
무응답	4(5.5)	14(17.6)	28(34.7)	19(24.2)	14(18.0)	0(0.0)	79(100.0)
경제적 수준							
상	39(2.9)	93(6.9)	333(24.8)	452(33.6)	421(31.3)	6(0.5)	1344(100.0)
중	318(4.4)	790(10.8)	2552(35.0)	2509(34.4)	1056(14.5)	72(1.0)	7296(100.0)
하	35(8.2)	48(11.3)	159(37.1)	140(32.8)	43(10.0)	2(0.6)	428(100.0)
무응답	7(6.7)	13(11.8)	31(28.6)	41(37.1)	16(14.4)	2(1.4)	110(100.0)
학교 성적							
상	90(3.3)	220(8.1)	721(26.5)	996(36.5)	681(25.0)	19(0.7)	2726(100.0)
중	135(3.5)	372(9.7)	1333(34.8)	1356(35.4)	588(15.4)	45(1.2)	3828(100.0)
하	174(6.7)	350(13.6)	1005(38.9)	772(29.9)	261(10.1)	19(0.7)	2581(100.0)
무응답	1(2.3)	2(5.7)	17(38.3)	18(41.2)	6(12.6)	0(0.0)	44(100.0)

부록 표-9 창의적체험활동에 대한 인식-8)체험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넓어졌다 (단위 :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627(6.8)	1610(17.5)	4188(45.6)	1934(21.1)	748(8.1)	73(0.8)	9179(100.0)
성별							
남자	377(7.8)	834(17.3)	2158(44.8)	959(19.9)	450(9.3)	42(0.9)	4820(100.0)
여자	250(5.7)	776(17.8)	2030(46.6)	975(22.4)	298(6.8)	31(0.7)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101(3.6)	260(9.2)	1179(41.5)	846(29.8)	397(14.0)	55(2.0)	2838(100.0)
중학교	218(6.9)	641(20.4)	1516(48.3)	544(17.3)	218(6.9)	5(0.2)	3141(100.0)
일반계고	238(9.7)	543(22.1)	1141(46.4)	428(17.4)	100(4.1)	10(0.4)	2460(100.0)
전문계고	70(9.5)	165(22.3)	353(47.7)	116(15.7)	34(4.6)	2(0.3)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253(6.4)	656(16.6)	1777(45.0)	890(22.5)	358(9.1)	20(0.5)	3954(100.0)
광역시	300(7.6)	767(19.4)	1811(45.8)	743(18.8)	282(7.1)	50(1.3)	3953(100.0)
시군	74(5.8)	187(14.7)	599(47.1)	301(23.7)	107(8.4)	3(0.2)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563(6.9)	1402(17.3)	3686(45.5)	1729(21.3)	661(8.2)	64(0.8)	8103(100.0)
한부모 가정	49(6.3)	160(20.3)	358(45.6)	152(19.4)	58(7.4)	8(1.0)	786(100.0)
조손가정	5(5.3)	14(14.2)	52(53.5)	21(21.2)	5(4.7)	1(1.1)	97(100.0)
기타	2(1.7)	18(15.6)	53(46.4)	24(21.5)	17(14.7)	0(0.0)	113(100.0)
무응답	8(9.6)	17(20.9)	39(49.8)	8(10.1)	8(9.7)	0(0.0)	79(100.0)
경제적 수준							
상	67(5.0)	156(11.6)	501(37.3)	365(27.2)	244(18.2)	10(0.8)	1344(100.0)
중	508(7.0)	1345(18.4)	3429(47.0)	1477(20.2)	474(6.5)	62(0.9)	7296(100.0)
하	43(10.0)	94(22.0)	202(47.2)	68(15.9)	21(4.8)	1(0.1)	428(100.0)
무응답	9(8.0)	15(13.2)	55(49.7)	23(21.0)	9(8.1)	0(0.0)	110(100.0)
학교 성적							
상	161(5.9)	402(14.8)	1144(42.0)	689(25.3)	310(11.4)	19(0.7)	2726(100.0)
중	204(5.3)	660(17.3)	1805(47.1)	832(21.7)	287(7.5)	40(1.0)	3828(100.0)
하	258(10.0)	541(21.0)	1216(47.1)	405(15.7)	147(5.7)	14(0.6)	2581(100.0)
무응답	4(8.5)	6(13.2)	23(52.6)	8(19.1)	3(6.6)	0(0.0)	44(100.0)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무응답	계
전체	705(7.7)	1655(18.0)	3876(42.2)	1861(20.3)	1026(11.2)	56(0.6)	9179(100.0)
성별							
남자	387(8.0)	795(16.5)	1962(40.7)	1022(21.2)	621(12.9)	33(0.7)	4820(100.0)
여자	318(7.3)	860(19.7)	1914(43.9)	838(19.2)	405(9.3)	23(0.5)	4359(100.0)
학교급							
초등학교	119(4.2)	291(10.2)	950(33.5)	774(27.3)	657(23.1)	47(1.7)	2838(100.0)
중학교	235(7.5)	633(20.2)	1503(47.9)	554(17.6)	214(6.8)	2(0.1)	3141(100.0)
일반계고	261(10.6)	555(22.6)	1082(44.0)	431(17.5)	124(5.0)	7(0.3)	2460(100.0)
전문계고	90(12.2)	175(23.7)	341(46.1)	102(13.7)	31(4.2)	0(0.0)	740(100.0)
학교 소재지							
서울	300(7.6)	682(17.2)	1667(42.2)	818(20.7)	478(12.1)	8(0.2)	3954(100.0)
광역시	327(8.3)	782(19.8)	1651(41.8)	751(19.0)	396(10.0)	46(1.2)	3953(100.0)
시군	78(6.1)	191(15.0)	558(43.9)	291(22.9)	152(12.0)	2(0.1)	1272(100.0)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622(7.7)	1455(18.0)	3415(42.1)	1646(20.3)	919(11.3)	47(0.6)	8103(100.0)
한부모 가정	64(8.2)	152(19.3)	341(43.3)	152(19.3)	73(9.3)	5(0.6)	786(100.0)
조손가정	6(5.8)	14(14.0)	45(46.2)	26(26.4)	5(5.5)	2(2.1)	97(100.0)
기타	4(3.5)	16(14.3)	43(38.3)	29(25.9)	18(15.8)	2(2.1)	113(100.0)
무응답	9(11.6)	18(22.7)	33(41.4)	8(10.5)	11(13.9)	0(0.0)	79(100.0)
경제적 수준							
상	75(5.6)	154(11.4)	426(31.7)	343(25.5)	343(25.5)	4(0.3)	1344(100.0)
중	567(7.8)	1384(19.0)	3218(44.1)	1433(19.6)	644(8.8)	51(0.7)	7296(100.0)
하	53(12.4)	102(23.8)	186(43.5)	60(14.0)	27(6.3)	0(0.0)	428(100.0)
무응답	10(8.8)	15(13.9)	47(42.3)	26(23.3)	12(10.6)	1(1.1)	110(100.0)
학교 성적							
상	159(5.8)	387(14.2)	1040(38.2)	653(23.9)	476(17.5)	11(0.4)	2726(100.0)
중	271(7.1)	676(17.7)	1649(43.1)	802(20.9)	395(10.3)	36(0.9)	3828(100.0)
하	269(10.4)	586(22.7)	1167(45.2)	398(15.4)	151(5.8)	10(0.4)	2581(100.0)
무응답	5(12.1)	5(10.9)	21(46.7)	9(19.7)	5(10.6)	0(0.0)	44(100.0)

부록 표-11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한 태도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전체		(9134)	3.36	0.8060
성별	남자	(4797)	3.37	0.8247
	여자	(4338)	3.34	0.7848
학교급	초등학교	(2797)	3.76	0.7475
	중학교	(3140)	3.25	0.7609
	일반계고	(2457)	3.14	0.7645
	전문계고	(740)	3.02	0.7677
학교 소재지	서울	(3949)	3.38	0.8154
	광역시	(3913)	3.30	0.8044
	시군	(1272)	3.46	0.7661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064)	3.36	0.8068
	한부모 가정	(782)	3.28	0.7961
	조손가정	(96)	3.36	0.7195
	기타	(113)	3.54	0.7858
	무응답	(79)	3.20	0.8849
경제적 수준	상	(1342)	3.73	0.8336
	중	(7254)	3.30	0.7811
	하	(428)	3.12	0.7951
	무응답	(110)	3.34	0.8449
학교 성적	상	(2718)	3.57	0.8144
	중	(3799)	3.35	0.7776
	하	(2573)	3.14	0.7787
	무응답	(44)	3.24	0.7295

부록 표-12 내적 동기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전체		(9172)	2.28	0.8858
성별	남자	(4818)	2.30	0.9196
	여자	(4354)	2.25	0.8462
학교급	초등학교	(2835)	2.16	0.9107
	중학교	(3140)	2.44	0.8798
	일반계고	(2458)	2.22	0.8568
	전문계고	(740)	2.19	0.8034
학교 소재지	서울	(3950)	2.32	0.9005
	광역시	(3951)	2.24	0.8727
	시군	(1272)	2.28	0.8759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098)	2.28	0.8848
	한부모 가정	(785)	2.25	0.8952
	조손가정	(97)	2.38	0.9522
	기타	(113)	2.23	0.7917
	무응답	(79)	2.11	0.9322
경제적 수준	상	(1343)	2.16	0.9423
	중	(7291)	2.30	0.8754
	하	(428)	2.31	0.8666
	무응답	(110)	2.32	0.8277
학교 성적	상	(2725)	2.09	0.8727
	중	(3825)	2.32	0.8693
	하	(2578)	2.41	0.8939
	무응답	(44)	2.14	0.8062

부록 표-13 외적 동기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전체		(9174)	3.00	1.2083
성별	남자	(4818)	2.95	1.2405
	여자	(4356)	3.06	1.1688
학교급	초등학교	(2836)	3.48	1.2654
	중학교	(3140)	2.75	1.1232
	일반계고	(2458)	2.92	1.1039
	전문계고	(740)	2.51	1.0705
학교 소재지	서울	(3950)	3.07	1.2131
	광역시	(3952)	2.95	1.2017
	시군	(1272)	2.93	1.2032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098)	3.03	1.2101
	한부모 가정	(786)	2.78	1.1831
	조손가정	(97)	2.81	1.0311
	기타	(113)	2.87	1.2142
	무응답	(79)	2.82	1.2114
경제적 수준	상	(1344)	3.57	1.3675
	중	(7291)	2.93	1.1536
	하	(428)	2.59	1.0727
	무응답	(110)	2.82	1.1157
학교 성적	상	(2726)	3.58	1.2567
	중	(3825)	2.95	1.1010
	하	(2578)	2.46	1.0280
	무응답	(44)	2.93	1.0456

부록 표-14 무동기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전체		(9174)	2.73	1.2812
성별	남자	(4818)	2.73	1.2907
	여자	(4356)	2.74	1.2706
학교급	초등학교	(2836)	1.93	0.9917
	중학교	(3140)	2.96	1.2266
	일반계고	(2458)	3.18	1.2175
	전문계고	(740)	3.38	1.2178
학교 소재지	서울	(3950)	2.72	1.2669
	광역시	(3952)	2.77	1.2992
	시군	(1272)	2.68	1.2664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098)	2.70	1.2758
	한부모 가정	(786)	3.09	1.2868
	조손가정	(97)	2.76	1.3277
	기타	(113)	2.79	1.2284
	무응답	(79)	2.75	1.2709
경제적 수준	상	(1344)	2.23	1.2470
	중	(7291)	2.79	1.2568
	하	(428)	3.38	1.3532
	무응답	(110)	2.74	1.1082
학교 성적	상	(2726)	2.23	1.1190
	중	(3825)	2.68	1.1977
	하	(2578)	3.35	1.3141
	무응답	(44)	2.58	1.0491

부록 표-15 자아존중감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전체		(9175)	3.10	0.3942
성별	남자	(4820)	3.10	0.4172
	여자	(4355)	3.10	0.3672
학교급	초등학교	(2838)	3.04	0.4311
	중학교	(3138)	3.09	0.4030
	일반계고	(2459)	3.18	0.3222
	전문계고	(740)	3.12	0.3795
학교 소재지	서울	(3953)	3.11	0.3875
	광역시	(3950)	3.09	0.3880
	시군	(1272)	3.08	0.4313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100)	3.10	0.3884
	한부모 가정	(786)	3.08	0.4119
	조손가정	(97)	3.10	0.4550
	기타	(113)	3.01	0.5412
	무응답	(79)	2.94	0.4321
경제적 수준	상	(1344)	3.12	0.4573
	중	(7292)	3.10	0.3802
	하	(428)	3.14	0.3658
	무응답	(110)	2.98	0.5287
학교 성적	상	(2726)	3.16	0.3719
	중	(3827)	3.08	0.3948
	하	(2578)	3.07	0.4091
	무응답	(44)	3.05	0.4145

부록 표-16 몰입 (평균 및 표준편차)

		사례수(명)	평균(점)	표준편차
전체		(9179)	3.21	0.4023
성별	남자	(4820)	3.21	0.4291
	여자	(4359)	3.20	0.3704
학교급	초등학교	(2838)	3.21	0.4433
	중학교	(3141)	3.19	0.4207
	일반계고	(2460)	3.24	0.3295
	전문계고	(740)	3.16	0.3647
학교 소재지	서울	(3954)	3.24	0.3972
	광역시	(3953)	3.19	0.4016
	시군	(1272)	3.18	0.4138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8103)	3.21	0.3956
	한부모 가정	(786)	3.17	0.4540
	조손가정	(97)	3.09	0.3145
	기타	(113)	3.23	0.4762
	무응답	(79)	3.11	0.4650
경제적 수준	상	(1344)	3.30	0.4713
	중	(7296)	3.19	0.3815
	하	(428)	3.18	0.4250
	무응답	(110)	3.10	0.5474
학교 성적	상	(2726)	3.33	0.3921
	중	(3828)	3.18	0.3837
	하	(2581)	3.13	0.4102
	무응답	(44)	3.23	0.4522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operational model for creative hands-on activities of youth I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uild a community-based operational model for creative hands-on activity of young people and thereby to provide a policy alternative that can help various community resources including school to make an organic network with one another in which creative hands-on activities as well as regular youth activities in the community are stimulated.

Literature research, operation and evaluation of pilot projects, surveys, and case studies of both domestic and foreign attempts on the same theme were employed as the methods of study. Expert councils, policy consultations, and seminars were also held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research.

The reviewing of preceding studies revealed that young people get better motivated and experience a higher degree of flow when creative hands-on activities take place in the community context. Also, it was definite that the higher their engagement is, the more positive outcomes they are likely to achieve. The survey showed that schools, as having great expectations of creative hands-on activities, are aware that they are strongly in need of coordinators who can link schools to community resources because they find it to be a lot pressure to operate the project on their own without proper expertise. Students were generally positive about hands-on activities. The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activities was proved to lead them to have more self-respect and the higher degree of flow. Case studies demonstrated that in order to have a successful outcome from the project, priorities should be given to creating more open and transparent organizational culture in which rational allocation of work and flexibility in operation counts although personal factors like principals' determination and teachers' passion, expectations and trust of all the parties involved, instructors, parents, and students, in the project still play

a key role. Youth institutions in the community could build up trust as a coordinator for creative hands-on activities in the pilot projects designed for the institutions to function not so much as a program provider as a community networker.

Through the research mentioned above were drawn four different operational models for creative hands-on activities depending upon who takes the initiative and the degree of youth's engagement in the project. The matrix shows a school-and-adult-based, a community-and-adult-based, a school-and-youth-based, and a community-and-youth-based model, among which a community-and-youth-based one was proved to be the most desirable.

We suggest that some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considered to get this model invigorated. First, organic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gencies such a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and the restructuring of communication system among youth policy groups are very crucial in setting a unified direction of the project. A larger number of capable coordinators, means to relieve their workload as well as that of teachers, sufficient budget, and the building of the network in the rural areas are the ones required for the actual scenes of implementation.

Key Words: Creative hands-on activities, Youth activities, Motivation, Flow, Community network, Coordinating, Self-directed participation of youth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2-R0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 김형주 · 황진구 · 김정주 · 권순달
- 12-R01-1 청소년문화의집 평가편람 / 김형주 · 황진구
-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연구Ⅱ / 김현철 · 황여정 · 민경석 · 윤혜순
- 12-R0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Ⅰ / 조혜영 · 김지경 · 전상진
- 12-R04 주5일수업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맹영임 · 이광호 · 이진원
- 12-R05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 연구 / 이창호 · 성윤숙 · 정낙원
- 12-R06 청소년정책 총괄조정방안 연구 / 윤철경 · 박병식 · 김진호 · 강현주
- 12-R07 청소년 생활실태 국제비교연구 : 진로준비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송민경
- 12-R08 다문화가족 아동 ·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양계민 · 김승경 · 김윤영
- 12-R09 취약계층 아동 · 청소년 종단조사Ⅲ / 이해연 · 박영균 · 유성렬 · 정선욱
- 12-R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활성화 방안 연구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0-1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Ⅲ :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보고서 / 김경준 · 김영지 · 정익중 · 김지혜
- 12-R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임희진 · 김현신
- 12-R1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 2012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 / 임희진 · 김현신 · 강현철
- 12-R1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Ⅱ 아동 · 청소년의 놀 권리 : 현실과 대안 / 황옥경
- 12-R1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김영한 · 이승하
- 12-R12-1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감수성 및 판단력 검사도구 개발 / 임영식 · 손경원 · 신태수 · 정경원
- 12-R12-2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청소년 도덕 동기화 및 품성화 검사도구 개발 / 이인재 · 박균열 · 홍승훈 · 윤영돈 · 유숙희 · 전종희
- 12-R13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아동 ·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강지명 · 조윤오 · 윤옥경
- 12-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사업보고서 / 이경상 · 서정아 · 배상률 · 성은모 · 김지영 · 강현철
- 12-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1 : 범죄유발적 지식구조와 청소년비행에 관한 연구 / 이경상 · 이순래 · 박철현
- 12-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뉴미디어활용이 인지, 정서, 사회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성은모
- 12-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3 :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문화배양효과 연구 / 배상률
- 12-R14-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Ⅲ 데이터분석보고서 4 :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가족, 지역사회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 서정아 · 조홍식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 최인재 · 모상현 · 이선영 (자체번호 12-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조사 결과 자료집 / 최인재 (자체번호 12-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인프라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자체번호 12-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1-04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별 지원모형 개발 연구 / 이창호 · 최보영 · 유춘자 (자체번호 12-R15-3)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1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이종원 · 김준홍 (자체번호 12-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2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미디어 이용과 가족내 사회적 자본 / 이종원 · 김준홍 · 정선아 (자체번호 12-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2-03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교육분야 민주시민역량 요인과 관계성 분석 / 김태준 · 이민영 (자체번호 12-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총괄보고서 / 백혜정 · 김지연 · 김혜영 · 방은령(자체번호 12-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의 발생과정에 따른 예방 및 지원정책 연구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자체번호 12-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 비교 연구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2-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2-23-04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Ⅰ :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편람 / 백혜정 · 김지연 (자체번호 12-R17-3)

수 시 과 제

- 12-R18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개선방안 연구 / 박영균 · 김호순
- 12-R18-1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매뉴얼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관 / 박영균 · 김호순
- 12-R19 청소년 흡연 · 음주 실태와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 / 이경상 · 김지연 · 최수미 · 이순래
- 12-R20 차기정부 청소년정책 방향과 과제 / 김기현 · 장근영
- 12-R21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연구 / 김현철
- 12-R22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경제적 효과성 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김지경 · 우석진
- 12-R23 학교폭력 및 학교문화에 대한 학부모 · 교사 인식조사 연구 / 윤철경 · 강명숙
- 12-R24 예술영재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 한예중 사례를 중심으로 / 안선영 · 김희진 · 김준홍 · 김정희 · 최인호
- 12-R25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활성화 기초 연구 / 서정아 · 김지경
- 12-R26 소년보호기관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도 제고를 위한 역할 강화 방안 연구 / 서정아
- 12-R27 지역사회 청소년 보호 효과(이슈페이퍼 발간) / 황여정
- 12-R28 청소년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교재 개선방안(이슈페이퍼 발간) / 황진규

수탁과제

- 12-R29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29-1 제1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안) : 2013~2015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 12-R30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관련 평가척도개발 연구 / 이창호 · 이경상 · 변승환 · 유홍식 · 김현수 · 김동일 · 이형초
- 12-R3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방향 및 대응방안 연구 / 최인재 · 김영지 · 김지연 · 오승근
- 12-R3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총괄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2-1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 활동 운영 매뉴얼 (지도자용) / 모상현
- 12-R32-2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운영모델 및 매뉴얼 개발연구 :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모상현 · 이진숙 · 조남익
- 12-R33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개선 연구 / 김형주 · 김진호 · 김혁진
- 12-R34 디지털게임에 대한 이미지분석 연구 / 모상현 · 장근영 · 이장주
- 12-R35 공생발전 종합연구 아동, 청소년과 함께하는 공생의 사회구현 실행방안 연구 / 김지연
- 12-R36 CYS-Net과 Wee센터의 효율적 연계 운영방안 / 김지연 · 전연진 · 차성현
- 12-R37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초등용, 중등용) / 이창호 · 성윤숙 · 김경준 · 김영지
- 12-R37-1 학교규칙 평가표 개발 연구 / 허종렬 · 조진우 · 박형근 · 이수경 · 이지혜
- 12-R37-2 학교규칙 운영 내실화 정책사례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한유경 · 정제영 · 김성기 · 정성수
- 12-R38 2012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 임희진 · 백혜정 · 김현철
- 12-R39 청소년동아리활동인증 시범운영 / 맹영임 · 조남익 · 손익숙 · 김현경
- 12-R40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김영한
- 12-R41 한 · 중 청년의 국제관과 문화자원의 가치에 대한 인식비교 / 윤철경 · 장수현 · 정계영
- 12-R42 2012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효과 · 만족도 조사 연구 / 양계민
- 12-R43 청소년 유해환경별 현황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 김영한
- 12-R44 2012년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 이종원 · 이유진 · 김준홍
- 12-R45 청소년 체험활동의 발달적 가치 및 사회 · 경제적 가치 연구 / 성은모 · 이해연 · 황여정
- 12-R46 멘토링 수행기관 유형별 사례지침서(매뉴얼) 개발 / 성은모
- 12-R47 경제사회지표 변화 조사 연구 - 청소년정책 부문 / 이종원 · 김기현 · 이경상
- 12-R48 한국가족의 변화와 청소년정책 / 김준홍 · 장근영 · 배상률
- 12-R49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Public Relations 정책의 진단과 정책과제 / 김준홍 · 김지경 · 배상률
- 12-R50 체험중심 진로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기관간 연계협력 방안 / 김현철 · 안선영
- 12-R51 포래조정 시범학교사업(2013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맹영임 · 조혜영
- 12-R52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 실태조사(2013년 1월 발간예정) / 배상률 · 김준홍 · 이창호
- 12-R53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성윤숙 · 김영지
- 12-R54 학생모니터단 운영 사업 결과보고서(2013년 2월 발간예정) / 박영균 · 최인재 · 모상현
- 12-R55 학업중단 학생 중단 정책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영지 · 유성렬 · 강명숙
- 12-R56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 성과분석 연구(2013년 2월 발간예정) / 윤철경 · 김성기
- 12-R57 서울 교육복지정책 적정성 분석 및 체계화 방안(2013년 2월 발간예정) / 김준홍 · 윤철경 · 우창빈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2-S01 개원 23주년 기념 특별 세미나 : 19대 국회에 청소년정책을 묻는다(7/6)
- 12-S02 연구성과발표회(2/26)
- 12-S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 I 콜로키움 자료집 : 청소년 한부모 지원정책의 쟁점과 방향(3/20)
- 12-S04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1차 콜로키움 자료집 :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의 설계, 결과 그리고 종단조사에서 유의해야할 개인정보보호법(3/21)
- 12-S05 청소년과 SNS 소통(4/6)
- 12-S06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차 콜로키움 자료집 : 고령화연구패널조사(4/4)
- 12-S07 학생대상교사의 표본설계와 조사데이터 분석(4/5)
- 12-S08 인성교육실천 우수학교 워크숍(4/9, 10)
- 12-S09 청소년활동 관점에서 바라본 주5일 수업제(4/13)
- 12-S10 지역사회 자원활용 진로체험활동 국내외 사례(4/12)
- 12-S1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4/24)
- 12-S12 제2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발표회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4/19)
- 12-S13 질적연구에서의 자료수집방법에 대한 이해(4/25)
- 12-S14 정책의 원리 및 정책분석·평가의 이해(4/24)
- 12-S15 2012년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컨설팅위원 워크숍(4/30)
- 12-S16 청소년보호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5/2)
- 12-S17 정책분석 및 성과평가의 방법(5/11)
- 12-S18 2012년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교 교장 특별연수(4/25)
- 12-S19 2012년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방안 : 육성·수련·활동·역량, 개념의 고리를 찾아서
- 12-S20 주5일수업제와 청소년활동(5/25)
- 12-S21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22 질적연구 자료분석방법의 다양성 이해(5/24)
- 12-S2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6/11)
- 12-S24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국내·외 동향(6/5)
- 12-S25 청소년멘토링 국내·외 실태 및 활성화 과제 모색(6/8)
- 12-S2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 12-S27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현황 및 관련정책 동향 분석 :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6/8)
- 12-S28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콜로키움 혼합형 모형 : 아동·청소년 발달연구에서의 대상 중심적 접근과 적용
- 12-S29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2차 워크숍
- 12-S30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2010 Ⅲ : 데이터방법론 세미나(7/5)
- 12-S31 후기청소년세대 연구를 위한 쟁점과 이슈(2/10)
- 12-S32 청소년동아리활동 인증 시범운영워크숍
- 12-S33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국가비교와 예방접근 모색(7/13)
- 12-S34 청소년심터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
- 12-S35 2012 전국청소년운영위원회 워크숍(8/8)

- 12-S36 2012 초·중·고 진로업무담당교사 직무연수
- 12-S37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8/23)
- 12-S38 청소년보호대책안 전문가 워크숍(8/24)
- 12-S39 청소년 도덕성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Ⅱ :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9/4)
- 12-S40 학교규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 구현방안 학술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9/26)
- 12-S41 청소년멘토링 효과분석 및 활성화 정책과제
- 12-S42 청소년멘토링 시범사업 기관 성과발표회
- 12-S43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 연구Ⅲ 워크숍 자료집 : - 청소년문화의집 시범평가용 편람(안) -
- 12-S44 교과속의 체험활동요소(9/27)
- 12-S45 청소년 한부모와 학습권(10/16)
- 12-S46 일본의 진로교육정책 콜로키움(10/19)
- 12-S47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리더러시 증진을 위한 정책세미나(11/12)
- 12-S48 제2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11/16)
- 12-S49 소셜텍스트를 활용한 사회문제분석 : 빅데이터를 중심으로(11/29)
- 12-S50 진로교육정책 이해과정
- 12-S51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Ⅰ :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 연구결과 발표 워크숍(12/18)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1호(통권 제64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2호(통권 제65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66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3권 제4호(통권 제67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심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29호 : 청년층의 효과적인 성인기 이행 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0호 :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및 대응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1호 : 청소년 멘토링 활성화 정책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2호 :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발달실태 및 지원정책 개선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3호 : 대학 재학 후기청소년 현안과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4호 : 청소년문화의집 현황과 평가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5호 : 청소년 국제교류 현황 및 정책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6호 : 주5일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7호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8호 : 청소년정책 총괄조정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39호 : 지역사회의 청소년 보호 효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호 : 2011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2호 : 201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3호 :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결과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4호 : 2011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5호 : 제19대 국회의원 청소년정책 의견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6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연구협력진

강지현(안성 대덕초등학교 교사)
권태영(고성청소년수련관장)
김성환(양평 조현초등학교 교사)
김운상(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운영파트장)
김주희(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김진홍(강릉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라수림(교육과학기술부 주무관)
박성숙(부천청소년수련관 관장)
박성희(부천청소년수련관 학교지원네트워크 코디네이터)
박정식(여성가족부 사무관)
백선옥(강원도 교육청 장학사)
소진형(성남 성남서중학교 교감)
이강엽(춘천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이범희(용인 흥덕고등학교 교장)
이정미(인천서부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이주혜(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수련·운영파트 담당)
이진원(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창의활동지원실장)
이현주(원주시청소년수련관장)
전성원(홍천군청소년수련관장)
정영선(인천강화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정장호(원주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지권섭(인천광역시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최정화(인천남부 창의체험지원센터 장학사)
한창진(전 여수미평초등학교 교사)

(가나다 순임)

연구보고 12-R02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운영모형 개발연구 II

인 쇄 2012년 12월 26일

발 행 2012년 12월 26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아르빛 전화 02)503-3223 대표 유채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기획·대외협력팀)

ISBN 978-89-7816-341-5 93330